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 제 출 문

---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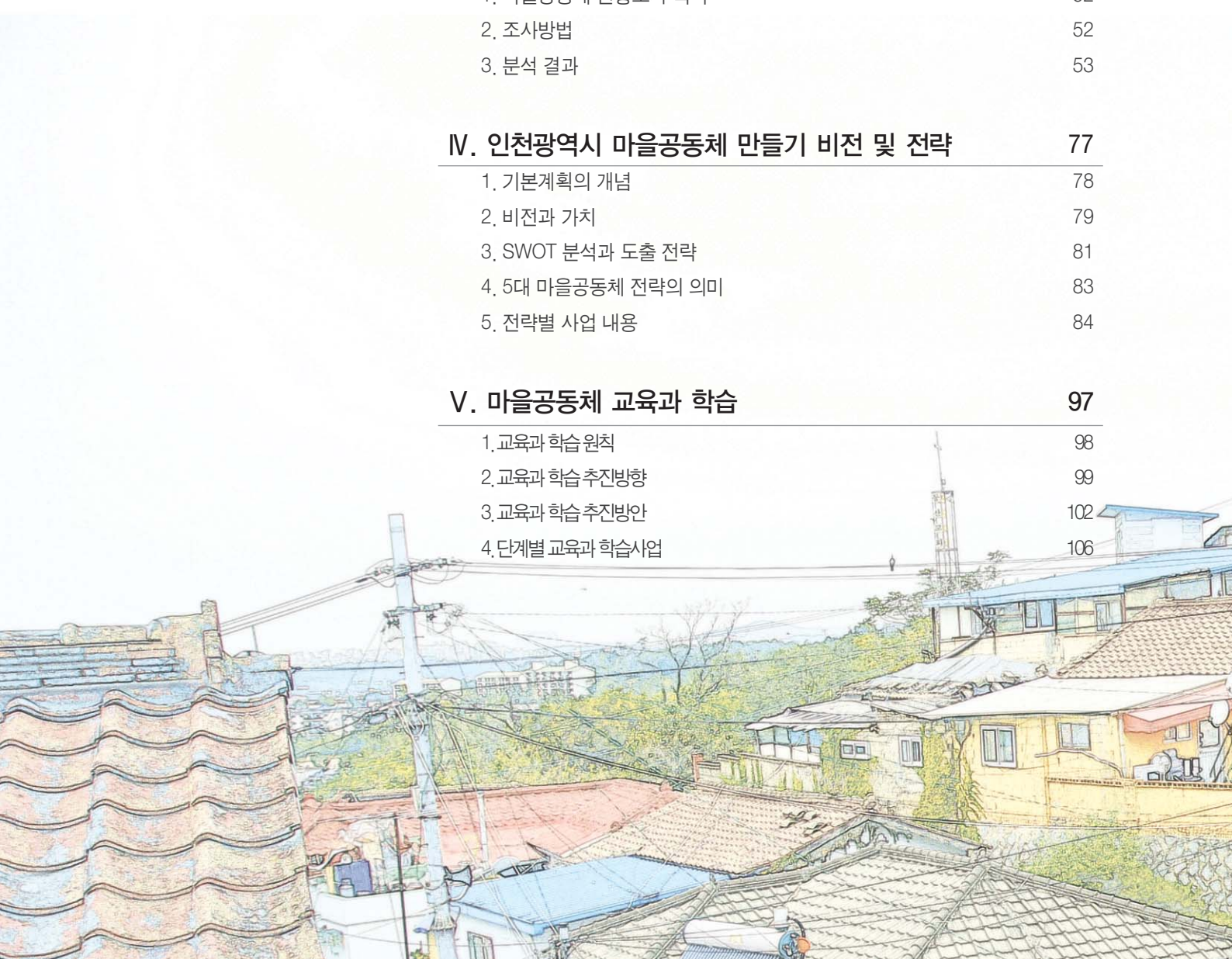
(재)인천발전연구원 원장 **이 갑 영**

---



## CONTENTS

<b>I. 계획의 개요</b>	<b>1</b>
1. 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2
2. 계획수립 절차 및 기본틀	3
3. 연구범위	4
4. 과업수행체계	4
5. 계획의 기대효과	5
<b>II.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현황</b>	<b>7</b>
1.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8
2. 우리나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동향	13
3. 타 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요 정책 및 사례	29
4.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 정책 동향	44
<b>III.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현황 및 여건분석</b>	<b>51</b>
1. 마을공동체 현황조사 목적	52
2. 조사방법	52
3. 분석 결과	53
<b>IV.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비전 및 전략</b>	<b>77</b>
1. 기본계획의 개념	78
2. 비전과 가치	79
3. SWOT 분석과 도출 전략	81
4. 5대 마을공동체 전략의 의미	83
5. 전략별 사업 내용	84
<b>V. 마을공동체 교육과 학습</b>	<b>97</b>
1. 교육과 학습 원칙	98
2. 교육과 학습 추진방향	99
3. 교육과 학습 추진방안	102
4. 단계별 교육과 학습사업	106



## VI. 지원사업 추진방안 109

- 1. 지원사업 원칙 110
- 2. 지원사업 추진방향 111
- 3. 지원사업 추진방안 112
- 4. 공모사업 평가지표 설정 116
- 5. 마을공동체 종합발전계획과 마을 의제 수립 118
- 6. 단계별 지원사업 121

## VII.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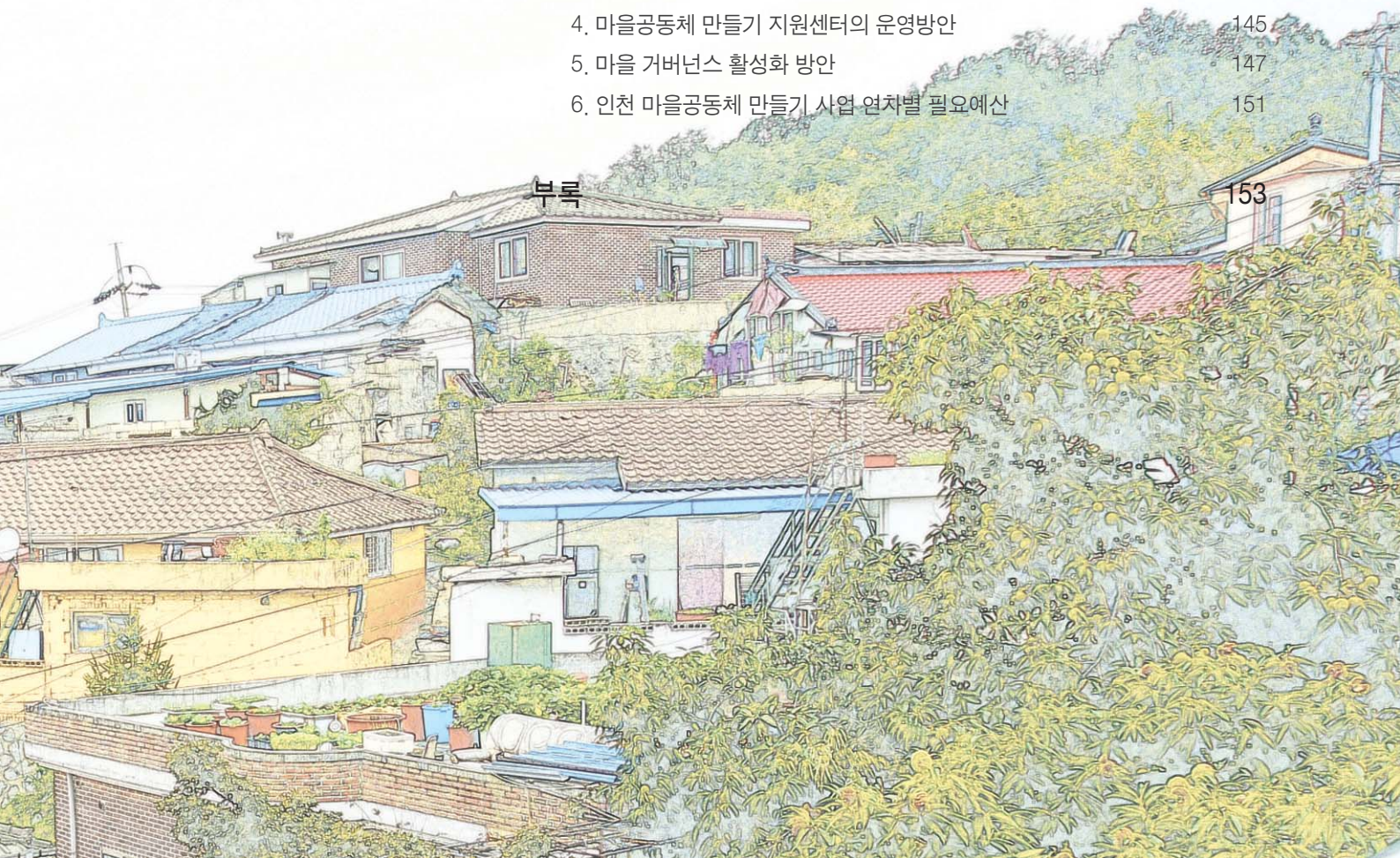
- 1. 네트워크 구축 원칙 124
- 2. 네트워크 구축 추진방향 125
- 3. 네트워크 구축 추진방안 127
- 4. 홍보체계 구축방안 129
- 5. 단계별 네트워크 및 홍보체계 130

## VIII.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체계 133

- 1. 거버넌스 구축 원칙 134
- 2. 인천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기본구조 136
- 3.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용 방안 139
-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방안 145
- 5. 마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47
- 6.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차별 필요예산 151

부록

153







##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2. 계획수립 절차 및 기본틀
3. 연구범위
4. 과업수행체계
5. 계획의 기대효과

# 1.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5년 단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시민이 주인이 되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살기 좋은 마을로 성장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을발전 계획이 필요함.
- 지역 주민-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행·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민 주도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림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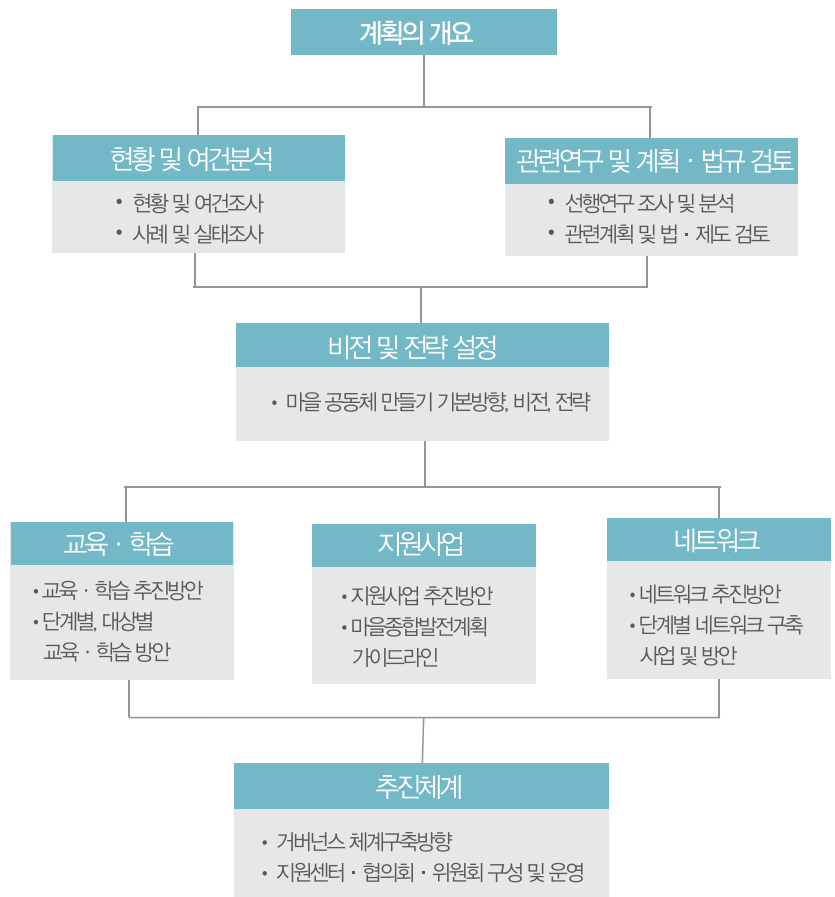
주민-지자체 간 지속적 협력시스템 구축  
체계적 지원 및 실행전략 마련

## 2. 계획수립 절차 및 기본틀

- 우리나라 마을공동체만들기 정책 동향과 사례를 조사하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함.
- 이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비전을 설정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며 실천과제별 사업 내용을 예시함.
- 비전 및 실천과제에 따른 실행화 방안으로서 지원사업, 교육과 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방안을 도출함.
-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원센터, 협의회,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체계를 정립함.

〈그림 1-2〉 계획내용 및 흐름

1.개요 ➡ 2.추진현황 및 여건조사 ➡ 3.비전 및 전략 ➡ 4.실행방안 ➡ 5.추진체계



### 3.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 8개 구, 2개 군

####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3년
- 목표연도 :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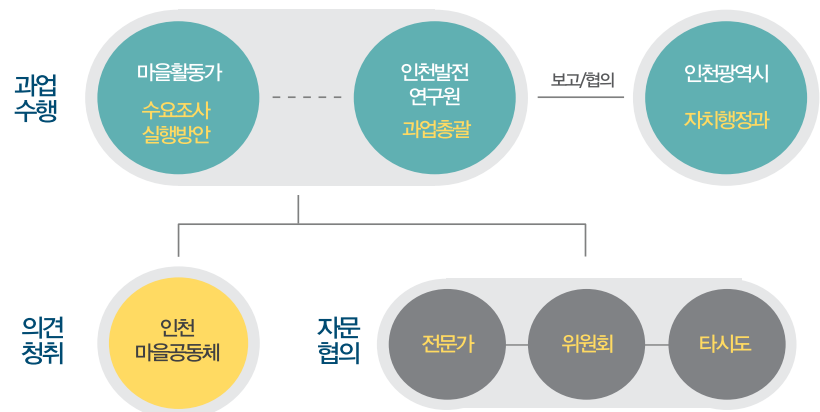
#### » 내용적 범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현황 및 여건 분석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비전 및 전략 수립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행방안 도출
-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체계 정립

### 4. 과업수행체계

-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이 과업을 총괄하되, 실천적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외부전문가로 초빙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
- 인천발전연구원과 이들 공동연구자들은 함께 마을활동에 대한 조사지를 만들어, 이들 조사지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활동 내용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함. 또한, 지원사업 및 교육과 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실행화 방안을 공동으로 제시함.
- 인천 마을공동체에 대한 수요 및 현황은 조사지와 함께 직접 면접으로도 조사되었으며, 타 시도 사례 역시 문헌 분석과 면접을 동시에 실시함.
- 또한, 시민설명회를 통하여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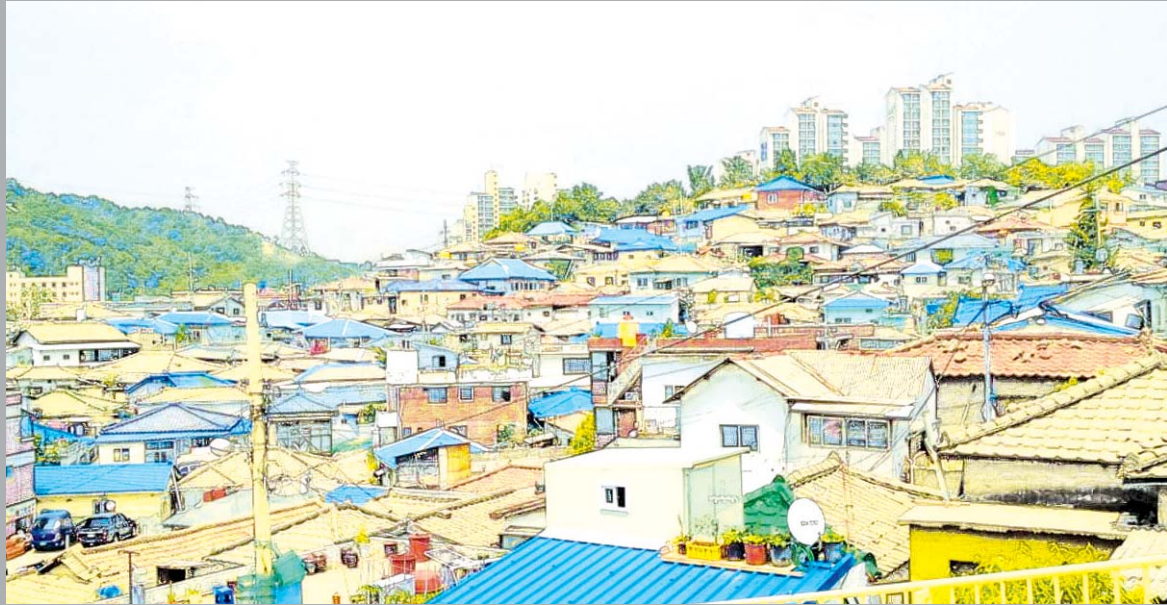
(그림 1-3) 과업수행 체계



## 5. 계획의 기대효과

-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세대 및 계층 간 더 붙어 살기를 도모함으로써 고령자와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기존 전면철거 중심의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상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 공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이 마을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등의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음.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제·공연·문화행사 등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문화사업 추진이 가능함.





## II.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현황

1.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2. 우리나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동향
3. 타 시·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주요 정책 및 사례
4.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 정책 동향

## II.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현황

### 1.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의미

####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의미

- ‘마을(물리적 범위 및 주거공동체의 의미)+‘공동체(소속감, 신뢰, 유대감을 가진 집단)’<sup>1)</sup>+‘만들기(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문화조성과 공동체 형성)’라는 의미
- 마을만들기, 좋은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만들기 등이 혼용<sup>2)</sup>

#### 〈표 2-1〉 마을공동체만들기에 대한 정의

연구자	정의
田村明 (1987) <sup>3)</sup>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며 편리하게 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만들어가는 방법 및 과정
문승국 (1998) <sup>4)</sup>	지역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흐름을 일컬어 만들만들기라 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정비 및 이를 가능케 하는 각종 제도와 틀로 정의
정석 (1999) <sup>5)</sup>	마을의 삶터(생활환경)를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가꾸어 가는 일, 마을 공동체(주민조직)를 이루는 일, 책임감 있고 자격 있는 건강한 마을사람(주민)을 기르는 일
홍인옥 (2001) <sup>6)</sup>	각각의 지역이나 도시에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환경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이를 추진해나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각종이 노력과 운동, 환경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틀의 형성, 다양한 물적·사회적 환경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 및 이들의 유지·활용해 가기 위한 노력이나 운동

#### »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서의 의미

-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에서는 자치의 기본 단위로써 마을공동체를 정의하고 있음.
- 법제도 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범위와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마을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를 주로 의미하며, 이에 덧붙여 사회문화적 개념을 포괄하는 광의의 정의도 가능함.

1)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y)’는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유대감’(common ties)을 공동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됨. ‘community’는 우리나라 말로 보통 ‘지역사회’로 번역 되기도 하고, 맥락에 따라 ‘공동체’로 번역되기도 함

2)‘마을만들기’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과 공동체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물리적 환경개선 부분을 제외한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한정하기도 함.

3)田村明 (1987), まちづくりの發想, 岩波新書. (도시연대 (2000), 「마을만들기 2000」에서 재인용)

4)문승국 (1999), 일본의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마찌즈구리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정석 (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홍인옥 (2001), 주민참여형 도시개발 방안으로서 마을 만들기,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91-95.

〈표 2-2〉 마을공동체만들기에 대한 조례상 의미

지방자치단체	정의
광주광역시 북구 (2004) <sup>7)</sup>	<p>마을 :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며 협의로는 동네에 있는 거주지 또는 거리를 의미함. 광의로는 '동'과'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p> <p>마을만들기 :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을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p>
경기도 안산시 (2007) <sup>8)</sup>	<p>마을 :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며 협의로는, 동네 및 동, 구, 시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을 의미, 광의로는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말함</p> <p>좋은 마을 만들기 :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p>
경기도 수원시 (2010) <sup>9)</sup>	<p>마을 :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p> <p>좋은 마을 만들기 :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p>
서울특별시 (2012) <sup>10)</sup>	<p>마을 :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p> <p>공동체: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p> <p>마을공동체 만들기 :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p>
충청남도 (2012) <sup>11)</sup>	<p>“희망마을”: 농어촌 마을이나 지역에서 공동체 또는 이에 상응한 다양한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협력을 통해 삶터(공간), 사람(조직), 공동체(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개선해 나가는 마을</p>

- 따라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공통된 관심을 기초로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살아가는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함.

7) 광주광역시 북구 (2004),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2조

8) 경기도 안산시 (2007),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2조

9) 경기도 수원시 (2010),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2조

10) 서울특별시 (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11) 충청남도 (2012),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

## 2) 역사적 맥락 속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 » 조선시대 이중환의 택리지와 마을공동체 만들기<sup>12)</sup>

- 이중환은 ‘살기 좋은 곳’ 즉 가거지(可居地)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복거총론(卜居總論)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때 중요한 요소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로 제시
  - 지리 : 풍수적 요소. 산의 모양, 흐르는 물, 흙의 빛깔 등 풍수적인 요소
  - 생리 : 경제적 잠재력. 오곡과 목화 경작하기에 알맞은 곳
  - 인심 : 공동체성과 풍속. 사람들이 거칠지 않고 재리만 추구하지 아니하며, 간사하지 않을 것
  - 산수 : 환경적 아름다움.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확장하게 하는 것
- 6.25 이후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 그리고 도시빈민운동
  - 6.25 이후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 등 국가 차원의 운동들은 전형적인 하향식 방식의 운동으로 대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한계
  - 재건국민운동추창자들은 신생활운동, 기독교사회운동, 국민상상운동 전개: 가족계획, 문맹퇴치, 지역사회 개발, 재해민 지원, 혼분식 장려, 화장실 개량 등의 사업전개
  - 새마을운동은 농민의 근면·자조·협조하는 정신계발을 목표로 하면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상의 기술혁명을 성취하는 것
  -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1980년 제정)이 제정되었으며, 유사하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9년 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1991년 제정) 등이 제정
- 반면 민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철거를 통한 국가적 개발 방식과 인권으로서 철거민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도시빈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이는 일방적 철거에 대한 도시빈민들의 생존권과 결부된 것으로 지역과 공동체의 식과의 연계성이 약함.

### » NGO의 시대와 공동체운동

- 1987년 6월 항쟁과 1990년대 리우회의 이후 시민단체 또는 NGO 용어의 등장, 시민들의 생태적 환경과 형평성, 시민주권에 대한 민간 부문의 관심 증가
- 이들은 거시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전개
- 다만, 제도권 밖에서의 저항, 비판적 대안, 소수주민의 참여로서의 성격을 띠어 추진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채 ‘문제연급’에 치중된 경향이라는 문제 노출
- 이와 같은 NGO와 같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국가적 관심이 노정되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2000년 제정

12) 이하 6.25 이후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 역시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2007), 살기좋은 지역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개념정립. 균형발전지원본부 살기좋은지역기획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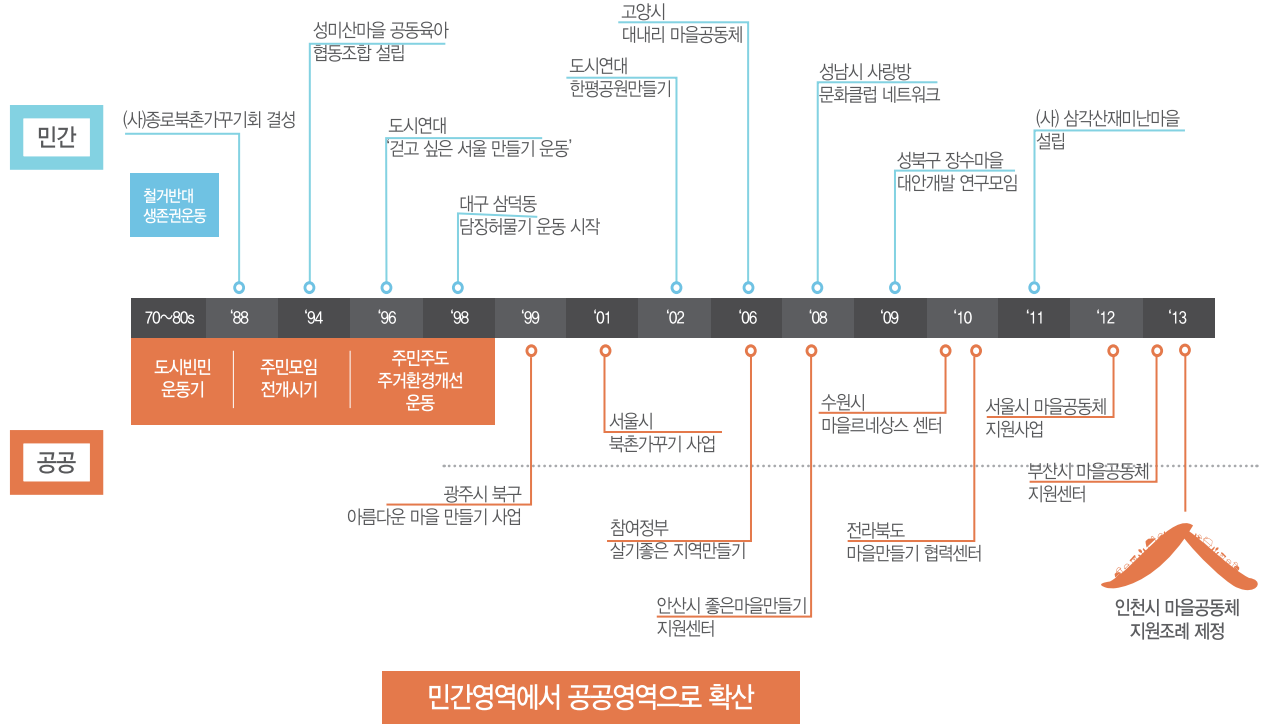
### » 풀뿌리주민조직과 마을 단위의 정책으로의 변화 바람

- 1990년대 이후의 인권, 시민주권, 환경 문제 등의 거대 담론의 움직임 속에서 일부 운동조직들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회의감
- 공동육아, 교육, 먹거리 등 주민들의 직접적 문제와 주민 '참여'에 관심
  -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1990년대에 성미산마을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도시연대를 중심으로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 등이 펼쳐짐. 즉, 주민주도적 주거환경개선 운동과 주민들의 요구에 기반한 운동 등이 시작된 시기로 평가
- 농어촌에서는 일방적인 국가의 원조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이 마을 관련 정책으로 발전, 정보화 바람은 농어촌을 정보화마을로 지정하여 정보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관심 유도
- 농어촌에서의 정보화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의 움직임은 도시 속에서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도 발전
- 시민 사회로부터의 공동육아, 교육, 먹거리 등의 공동체 운동과 정책 속에서의 정보화마을, 살기 좋은 지역 또는 도시 만들기 정책이 별개로 전개

### » 공동체 운동과 마을 단위의 정책의 결합 움직임

- 최근 마을 공동체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및 사업 추진 움직임은 위와 같은 공동체 운동과 마을 단위 정책의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일련의 제 활동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지원센터 설립, 수원 마을르네상스 센터 등이 공동체 운동과 마을 관련 정책의 결합으로 볼 수 있음.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등도 기존 중앙정부 정책의 흐름 속에서 마을 단위의 민간 활력을 결합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탄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공유 경제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마을 내부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
  - 참여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 단위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등이 소개됨. 다만, 각 부처별로 시도됨에 따라 사업이 파편화되었다는 문제점 노정
  -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활동 등에 대한 지원정책 형성
-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원도심에 대한 개발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가
  - 서울시 북촌가꾸기 사업은 기반조성 사업 성격이 강하고 출발은 민간에서 시작하였으나 곧 공공 정책과 결합하면서 기존 도심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강하게 표출함.
  - 또한, 성북구 장수마을 대안개발 연구모임 역시 민간 주도적으로 시작하였으나 기존 원도심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

〈그림 2-1〉 마을공동체 만들기 역사적 흐름



## 2. 우리나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동향

- 최근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음.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정책
  -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관련 정책
  - 원도심 재생 관련 정책
- 위 세 유형의 정책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도심 재생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반면,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임.
- 현재 위 세 가지 정책의 통합적 추진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존재함. 이들 사업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법률 및 정책

####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제도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제정

- 마을공동체만들기 조례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함.
- 최초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인 광주광역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하여 각급 지자체별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음.
- 한편, 최근에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형성이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1개, 광주는 5개 자치구 중 모두가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류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주도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정책과 마을만들기 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음.
- 특·광역시 중 가장 최근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3년 7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문화복지 증진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음. 이를 통해 세종시의 급속한 해결과제인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과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표 2-3〉 전국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운영 현황

구분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특별광역시	서울 (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21/25)
	부산 (1+4)	부산광역시	동구, 북구, 영도구, 해운대구(4/16)
	대구 (1)	대구광역시	-
	인천 (1+4)	인천광역시	남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4/10)
	광주 (1+5)	광주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5/5)
	울산 (1)	울산광역시	-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 (14)	경기도	가평군, 과천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13/31)	
강원 (3)	-	강릉시, 인제군, 홍천군(3/18)	
충남·북 (5)	충청남도	단양군, 금산군, 보령시, 아산시(4/28)	
전남·북 (10)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강진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9/36)	
경남·북 (2)	-	영양군, 거제시(2/41)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주: 2013년 11월 기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3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주요 내용 : 마을공동체 관련내용의 정의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기능·운영 등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정의)	· 마을공동체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응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제3조 (기본원칙)	·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6조 (기본계획)	·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 주요 내용: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등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가능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등
제14조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설치 · 심의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
제23조 (종합지원센터 기능)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등

〈출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각 시도 조례 현황을 보면, 위원회 설치와 시행계획 수립은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기본계획 역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 공통적임.

- 조례에서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공통적임.
- 마을단위 계획 및 전담부서 설치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 각 시·도 조례 현황

구분	제정 일시	조례명	계획수립			추진체계				비고
			기본 계획	시행 계획	마을 단위 계획	위원회	지원 센터	협의회	전담 부서	
제주 특별 자치도	2009. 1. 7.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	○	○	-	○	○	· 지역주민 주체의 추진위원회 구성 · 별도의 지원센터 대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전라 북도	2009. 12. 28.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	○	○	○	-	-	-
광주 광역시	2010. 3. 1.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	-	○	○	-	-	-
서울 특별시	2012. 3. 15.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지원사업선정 심의회 설치
부산 광역시	2012. 7. 11.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경기도	2012. 8. 1.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	-	○	○	○	○	-
충청 남도	2012. 12. 31.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	△	△	○	○	-	· 마을유형 4단계 구분 · 위원회 형태의 추진단 운영
인천 광역시	2013. 5. 27.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	○	○	○	○	○	-	-
세종 특별 자치시	2013. 7. 30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	○	△	○	○	○	○	· 주민협의회와 행정지원 협의회를 별도 운영

△ : 명시적으로 마을단위계획 또는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경우

» 개별 사업 중심의 중앙정부 정책 움직임: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육성 외

- 중앙정부의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 사업들은 부처별 사업 성격에 맞도록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2001년부터 추진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부터 최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에 지원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까지 마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전원마을 등의 사업을 통하여 농어촌 마을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농어촌의 수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국회에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 의결됨(2013. 4. 30).
  - 환경부는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던 녹색에너지자립마을, 농촌형 에너지자립녹색마을, 저탄소 녹색마을,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통합하여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정책 및 사업들이 기반 조성이나 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지원을 하는 일방적 관계였다고 한다면, 최근의 정책 및 사업은 대부분 공동체 형성과 주민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림 2-2〉 중앙정부 부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및 사업 예시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5〉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육성 외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및 사업 내용

[ 안전행정부 ]

사업명	사업내용
마을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li> <li>-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li> </ul> </li>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지역 NPO 등</li> </ul> </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 컨설팅, 전문 CEO 육성지원</li> <li>- 2013년 총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li> <li>-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지원</li> </ul> </li> </ul> <p>※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10%</p>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정보화에 소외되었던 농산어촌에 정보 접근 기회 제공 및 주민 정보화교육으로 정보격차 해소</li> <li>- 지역 특산물, 문화, 자연자원 등을 유기적 연계 및 온라인화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자립형 마을공동체'로 육성</li> </ul> </li>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지역의 농·산·어촌 마을</li> </ul> </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별 테마 홈페이지 등 정보콘텐츠 구축(마을소개, 특산물·체험상품의 전자상거래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구축)</li> <li>- 마을별 정보이용환경 조성(인터넷 이용 환경 설치, 마을정보센터 구축, 지주·입간판 설치 등)</li> </ul> </li> <li>▶ 2013년 총 51억 9,700만원</li> <li>▶ 2009년부터 지방비로 신규마을 조성</li> </ul>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 복합활용공간 조성으로 사회·문화·경제적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li> <li>- 대통령 주재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시 10대 핵심과제로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사업으로 시작 (2008년 9월)</li> </ul> </li> <li>※ '따뜻한 국정'천명에 따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2010년 6월)</li>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민(영세기업)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우리마을 녹색길·친수공간 자전거길·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사업 인근 지역</li> </ul> </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공간 개선형 : 야외 쉼터(마당), 벤치, 운동기구 정원 등</li> <li>- 사회복지 확충형 : 북카페·놀이방·도서관·다문화지원센터 등</li> <li>- 수익사업 추구형 : (특산물)전시장·체험실·작업장, 주차장 등</li> </ul> </li> </ul> <p>총 100억원 이상(특교세 50억원, 지방비 50억원 이상, 기타)</p>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내용
<p>농어촌마을 모델링사업</p>	<p>▶ 추진배경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마을 내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전통성 및 역사적 자산을 보전활용하며, 마을 내 가용 토지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li> <li>- 기존 마을 기반시설정비와 노후주택개량 및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주거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전체에서 노후·불량주택이 주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고,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마을 공동개발을 서약하는 마을(단, 마을 가구수가 20호미만일 경우 유지보전형은 제외)</li> <li>- 마을 전체 가주중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주택 가구가 3분의 2 이상인 마을 우선 지원</li> </ul>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설치, 마을 안길, 상·하수도, 주차장, 슬레이트 철거, 취약계층 공동생활형주택, 영유아보육시설 등 기존 마을 시설의 정비는 보조 지원(농어촌특별회계 신규예산)</li> <li>- 노후·불량한 개별 주택의 개량은 융자 지원</li> <li>- 기반 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30~70억원 차등 보조 지원</li> </ul>
<p>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p>	<p>▶ 추진배경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산품, 경관, 유통기공, 전통문화, 음식, 테마마을, 마을개발 등 마을이 지닌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특성화한 마을 조성</li> <li>- 1마을 1공동체회사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육성하고, 색깔 있는 마을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및 마을자체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기반이 조성된 마을을 중심으로 선정, 행정시에서 1차적으로 예비선정을 하고, 도에서 최종선정</li> <li>※ 마을·권역 관련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매출액·고용 증가, 인구 유입·관광객, 마을협의체 구성 주민 참여, 수상실적, 핵심주체 및 주민역량 수준(교육 이수 등)</li> </ul>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깔 있는 마을육성 기반사업 지원(보조율 90%) : 400백만원(민간자본보조)</li> <li>- 2013년도 신규 선정 마을에 한하여 사업계획 검토 후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28백만원 내외×14개 마을)</li> <li>- 신규마을 선정이 당초 계획(14마을)보다 미달할 경우 기존 마을 지원 추진</li> <li>- 색깔 있는 마을육성 운영 지원(보조율 90%) :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li> <li>- 기존 및 신규 선정 마을에 대하여 마을 협의체 운영 및 현장 포럼 등 운영경비 지원(2백만원 내외 ×44개 마을)</li> </ul>
<p>전원마을 조성 사업</p>	<p>▶ 추진배경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제공</li> <li>-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li> <li>-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 지역</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부지정리,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조경 등 경관형성, 농장·농원, 마을회관 등 부대시설 설치, 마을 커뮤니티 형성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인근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li> <li>- 마을의 규모에 따라 10~3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li> <li>-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li> </ul>

[ 환경부 ]

사업명	사업내용
<p>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p>	<p>▶ 추진배경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웰빙문화, 친환경생태 교육 등 생활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진 살기 좋은 녹색마을 구현</li> <li>- 에너지 절약운동, 지역공동체 형성, 중앙·지방·주민공동체로 연계된 거버넌스 체계확보</li> </ul> <p>▶ 지원대상 및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부터 본 사업 추진 시 환경부가 주관부처로 추진하며, 다른 부처는 협조 및 지원</li> </ul> <p>※ 행정안전부(도농복합형)녹색에너지리미마을 조성사업, 농식품부(농촌형) 농촌형 에너지리미마을 조성사업, 환경부(도시형) 저탄소 녹색마을(도시형) 조성사업, 산림청(산촌형)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통합</p>
<p>산촌종합 개발 사업</p>	<p>▶ 추진배경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주민의 농외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과 도시민에게 새로운 보건휴양 및 녹색체험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산림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도모</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유형림 인근마을, 국유림집단지역, 농·축·임업기반시설과 병행하여 목재집하장, 가공공장 등 유통, 가공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등</li> </ul>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박과 특산물 판매로 소득을 증대하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li> <li>- 특산임산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개선</li> </ul> <p>총 2,500억원, 마을단위, 2년 동안 14억 지원</p>

## 2) 사회적 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임.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라고 정의
- 사회적 기업의 시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임.
-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는 다음과 같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인증 요건을 갖추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음. 사회적 기업 인증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설립경로로 볼 때, 사회적일자리, 자활공동체, 장애인작업장,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6〉 국내 사회적기업 현황(2013. 7월 현재)

(단위: 개)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41	188	56	36	22	43	23	3	137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39	26	33	33	49	31	50	18	

-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외에도 협동조합도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유사한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즉,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회적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국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제공 등을 협동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됨.
- 일반협동조합의 지정요건은 조합원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유권은 조합원 공동소유로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름.

- 뜻을 같이 하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정관을 갖추고 설립동지자를 모집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시도지사에 설립·신고하고 이사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 받아서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면 설립이 됨(일반협동조합의 경우)
  - 배당은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함.
- 협동조합의 설립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된 협동조합은 1,727개이며 수리된 협동조합은 1,461개이며, 서울이 515개가 신고되어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212개가 신고되어 있음(인천은 신고된 협동조합 50개, 수리 40개)(2013. 6. 30 기준).

〈표 2-7〉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주요 내용

구분	관련 법률	정책내용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li> <li>▶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에 따라 조직형태, 유급 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등이 적합할 때 인증받게 됨.</li> <li>▶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노동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짐.</li> </ul>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li> <li>▶ 설립요건 : 5인 이상의 모여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일반협동조합)</li> <li>▶ 추진체계 : 기획재정부(전체 협동조합 정책 추진체계 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실태조사 자료 제출 및 정책협의회 참여), 시도(일반협동조합 신고, 관리, 과태료 징수 등, 협동조합의 날 행사 등)</li> </ul>

### 3) 주민참여 도시재생정책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대응적 재생사업 도입이 추진 중임.
  -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환을 시도 중에 있음.

####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추진근거

-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신설되면서 노후주택개량,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주민공동체 운영 등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념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등)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 가능함.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주민의 50% 이상 동의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는 개별주택의 개량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재건축 적용이 가능함.

##### » 추진목표 및 방향

-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주택유지 관리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성 보전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개선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함.
-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행정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역량 및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주민참여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기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서 설명회, 공람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민활동이 활성화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 기반 운영체계를 조성하고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킴.
-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주민,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행정이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됨.

- 대상지 선정, 구상안 마련, 실행계획 수립 등의 기본업무와 함께 주민워크숍, 주민협정, 마을기업 등의 주민참여 절차가 포함됨.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공동이용의 건축계획, 환경개선계획 등과 함께 공공사업 추진 및 주택개량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도 제시되어야 함.

〈표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내용

구분	주요내용
법 제2조 정의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법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8조제6항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은시장·군수가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제①항 별표1 정비계획 정립대상구역	<p>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p> <p>가.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p> <p>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p> <p>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p> <p>라.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p>

### »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면서 기존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서울 휴먼타운 시범사업)을 포괄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련계획 및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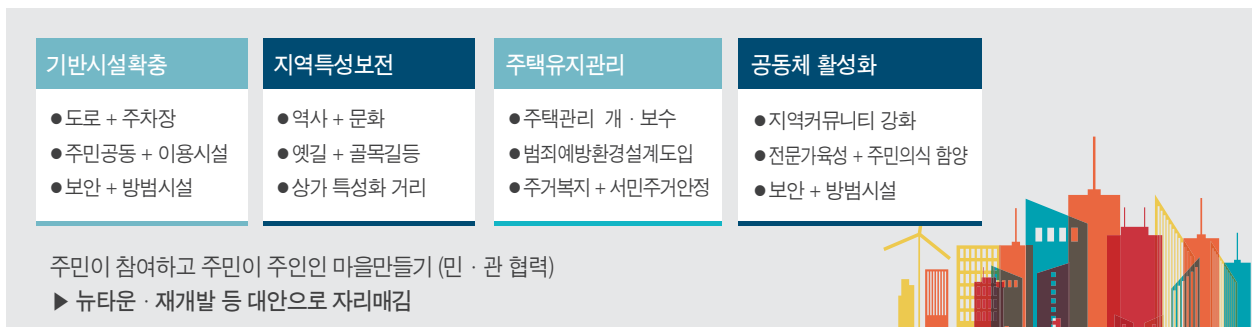
〈그림 2-3〉 서울시 주거지정비 관련사업의 흐름



〈출처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과(2013),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기법을 적용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옴.
  -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함.
  - 이후 추진된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및 재정비촉진 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대상지로 선정함.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보편적인 주거지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학생공모전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을 추가로 선정함.
-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은 대안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시도해오던 곳으로,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지로 선정됨.
- 현재 사업이 완료된 3개 시범지역(서원마을, 능안골, 선유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이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 중에 있음.

〈그림 2-4〉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출처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과(2013),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추진근거

- 기존 도시공간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도시재생에 필요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지원하며, 주민 교육, 의견 조정 및 마을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가칭)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함.

» 개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의미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됨.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통해 쇠락하는 근린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을 복합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킴.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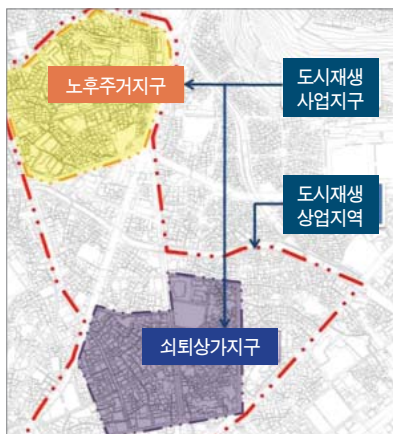
» 추진 세부사항 및 특례사항

- 도시재생 추진조직은 중앙조직(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지원기구 등)과 지방조직(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구분됨.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계획수립비, 공원·주차장·문화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설치, 주택 개보수 등 H/W사업, 마을기업 창업지원·상권활성화 등 S/W 사업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함.
-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각, 임대, 양여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됨.
- 주민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 계획수립시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전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함.
  -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재생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주민 교육, 전문가 파견,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을 진행함.
-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에는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테스트베드 사업

-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에서는 도시재생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을 실제 사업구역 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원시와 전주시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시범운영 중에 있음.
  - 테스트베드(TB)사업은 기성시가지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개발된 도시재생 관련 정책, 제도, 기법, 설계 및 시공기술 등 연구성과물을 선택적 패키지 형태로 실제 사업구역 내에 적용하기 위함.
  - 이를 통하여 도시재생기술의 완성도를 확보하고, 실용성 있는 도시재생모델 구축 및 제도를 정비하여 전국적 확산 추진을 목적으로 함.
- 창원시 테스트베드 사업은 노산동 노후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쇠퇴도심을 새로운 문화·상업지구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된 사업임.
  -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 사회·경제적 정비를 지원하는 통합적 주거지 재생 방안과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관리하는 주민주도형 주거지 재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그림 2-5〉 창원TB 현황

-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노산동(주거) / 창동·오동동(상가) 일대
- 사업지역 면적 : 547,600㎡
- 사업지구 면적 : 292,820㎡(주거지구148,820㎡ / 상가지구144,000㎡)
- 규모 : 주거지구 1,216세대 상가지구 754개 점포
- 노후주거지 쇠퇴 현황
  - 호수밀도 : 53.4호/ha
  - 노후불량률 : 79.6%
  - 과소필지율 : 51.1%

〈출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발표자료(2012), 노산동 주거지 재생 사례〉

- 창원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자력형 테스트베드 사업으로서 기성시가지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도시재생 관련 정책, 제도, 기법, 설계 및 시공기술 등 연구성과물을 실제 사업구역 내에 적용한 사례임.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동체 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환경 개선, 마을기업 설립 등의 경제적 환경 개선에도 주력함.
  -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주민회의, 마을만들기 학교, 선진사례답사 뿐만 아니라 재생 추진기구(마래하우스)를 설립하여 집수리서비스, 마을기업, 주민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
- 전주 테스트베드 사업은 주택재개발 사업지구가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팔달로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를 통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함.
  - 전주시 도심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됨.



〈그림 2-6〉 전주TB 현황

- 위치 : 전주시 노송동, 인후1·2동(주거)  
중양동 진북동(상가) 일대
- 사업지역 면적 : 1,739,000㎡
- 사업지구 면적 : 330,000㎡ (주거지구145,000㎡ / 상가지구185,000㎡)
- 규모 : 주거지구 952세대 / 상가지구 1,313개 점포

〈출처 : 도시재생사업단 전주 테스트베드 웹사이트 (<http://jeonju.kourc.or.kr>)〉

- 전주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자력형 테스트베드 사업으로서 기성시가지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도시재생 관련 정책, 제도, 기법, 설계 및 시공기술 등 연구성과물을 실제 사업구역 내에 적용한 사례임.
  - 전주 도시재생사업은 체계적인 주민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지구진단을 시행하고 마을만들기를 위한 방향성 및 계획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
  - 마을만들기 학교 추진에 있어서 현황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행계획의 단계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시행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후반부로 갈수록 발생하는 주민 관심도 결여, 불만 야기 등의 상황에 대처함.
  -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주민협의체 활동을 병행하여 주민대표 및 사업 연구진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 적극 지원 및 협조체계를 구축함.

### 3. 타 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요 정책 및 사례

#### 1) 공공주도 마을만들기 주요 정책 및 사례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유형은 공공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속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사회의 변화에 민간 주도형이 대두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공공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정책 및 사례가 뚜렷해지고 있음.
  - 이러한 공공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요 정책 및 사례와 민간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을 포함하여 각 시도별 부서별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각 시도별로 담당부서 및 추진 현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담당관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물론, 예산의 집행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지만, 16개 타 부서의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기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개 부서와 19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모사업을 추진 중임.
    - 전라북도의 경우 몇 개 부처를 거쳐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국 삶의질정책과가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총괄 부서임. 다만,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정의 어려움이 존재함.
  - 이와 같은 공공주도 마을만들기의 정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당 공모 금액이 소액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님.
  - 환경 개선과 같은 물리적 환경 변화보다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성격의 공모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표 2-9〉 시도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시도	진행 현황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담당관</li> <li>● 16개 타 부서의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관리 / 16개 부서 외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부서 있음</li> <li>● 매년 계속사업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추진 중</li> </ul>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개 부서 19개 사업 총괄</li> </ul> </li> <li>● 지원센터를 통해서 각 부서 사업공모 추진 중</li> </ul>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li> <li>● 현재 공모를 통해 226개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로 200~2,000만원씩 모두 7억 5,000만원 지원계획</li> </ul> </li> </ul>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안전행정국 시민협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 관리</li> </ul> </li> <li>● 각 부서별로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 중</li> <li>● 군·구의 마을공동체를 관리하기 위한 센터 설립을 위해 TF 구성</li> </ul>
세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li> <li>● 공모한 사업중 2~3개를 선정하여 사업별로 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li> <li>● 현재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위한 컨설팅 작업 실시 예정</li> </ul>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li> <li>● 농촌형마을만들기 시범사업10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마을당 마스터플랜비 7,000만원 지원</li> </ul> </li> </ul>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삶의질정책과</li> <li>● 도청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사업공모를 추진 중, 선정된 마을에 대한 지원이나 컨설팅은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통해 추진</li> </ul>

**(1)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사업<sup>13)</sup>**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은 직접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주요 목적은 도심 재생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한 휴먼타운 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14)</sup>
-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역시 유사 사업임. 다만,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마을공동체보다는 지역 범위가 크다는 차원에서 위 세 가지 사업만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봄.

〈표 2-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공동체를 비전으로 주민의 관계망과 상호신뢰의 복원, 그리고 마을단위 자치구조 형성으로 '함께 살아갈만한 지역으로 회복'목적</li> <li>▶ 2012년 9월 5개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li> <li>▶ 동년 동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 (민간위탁)</li> <li>▶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는 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일부터 마을활동가 양성을 지원하는 일, 주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계획 등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주민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 포함</li> <li>▶사업 35개 사업단위, 725억원 예산에 대한 사업신청, 제안서 작성, 현장조사, 심층상담, 설명회, 실행계획 작성 등에 지원센터 관여(2012년 기준)</li> </ul>	마을 공동체 지원
휴먼타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li> <li>▶ 물리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주거지 관리 시도: 기반시설 부족, 편의성, 방법 및 안전문제 열악 등과 같은 주거환경 불만요소에 대한 해결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제고함으로써 서민주거지의 멸실을 막아 도시 내에서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li>▶ 추진사업 : 강동구 서원마을 (단독주택밀집지형), 마포구 연남동/서대문구 북가좌동 (다세대·다가구 밀집지형)</li> </ul>	도심 재생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 진행</li> <li>▶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존 정비사업에서의 형식적인 주민참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활동 가능성 제고 목적: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 기반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주민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타 사업들과의 연계 가능</li> <li>▶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전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을 확충</li> <li>▶ 대상지 선정, 구상안 마련, 실행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정비사업 업무절차에 추가하여 주민워크숍, 주민협정, 마을기업 등의 주민참여 절차 진행</li> </ul>	도심 재생

13) 서울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도시정보 2011년 9월호, 『주거지 재생: 뉴타운, 그리고 휴먼타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자료집(2012), 「서울시, 5개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2012. 9. 1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4)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역시 유사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마을공동체보다는 그 지역 범위를 크게 한다는 차원에서 위 세 가지 사업만 고찰함.

■ 위 사업 중 직접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음.



- ▶ 조례제정 : 2012. 3. 15.
- ▶ 추진체계
  -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담당관(개방형 직위)  
\*16개 타 부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관리
  - 지원센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2. 9. 11. 설립
- ▶ 사업영역
  - 교육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마을리더 교육' 등 성장과정별 맞춤 교육 지원
  - 지원사업 :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 ▶ 예산 : 2013년 197억 2천 5백 만원(사업예산)
- ▶ 특징 : 과단위 전담부서 설치,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씨앗단계 사업중심

사람사는마을  
사람사는재미



(2) 부산광역시  
창조도시사업<sup>15)</sup>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 부산광역시는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함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커뮤니티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창조도시사업으로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의 유형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커뮤니티 뉴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을 거침.

<표 2-11>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지원센터 설립공모, 부산발전연구원 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li> <li>▶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12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해서 2013년 5월 22일 설립되었으며,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지원, 평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li> </ul>	마을 공동체 지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후된 주거지역을 마을단위로 묶어 지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추진하는 종합적인 재생방식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추진</li> <li>▶ 마을리더의 발굴을 핵심사항으로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유도를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을 마을만들기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설정함.</li> <li>▶ 3년의 사업기간으로 계획되어 1년은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2년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을 중심 사업으로 확산되도록 지원</li> <li>▶ 추진주체는 행정기관(부산시, 자치구군, 자치센터), 행복마을 추진협의회사업대상지 자치구군, 자치센터,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등),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도록 유도함.</li> <li>▶ 주요 추진사례 : 과내마을 행복센터 개소, 상리마을 행복센터(알콜치유 등 주민 프로그램 운영)</li> </ul>	마을 공동체 지원
커뮤니티 뉴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퇴지수를 활용한 부산형 마을만들기 사업</li> <li>▶ 커뮤니티 뉴딜 운영부문을 통해 쇠퇴지수 조사, 결핍유형/재생유형 도출, 재생 사업 시행을 위한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순위 및 우선대상지 선정, 사업실행·재원확보 계획 수립</li> <li>▶ 커뮤니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커뮤니티 뉴딜 운영부문에서 도출된 대상지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li> </ul>	도심 재생

15) 부산시의 창조도시사업에 대한 내용은 부산시청 창조도시본부 웹사이트와 부산시커뮤니티뉴딜기본계획안(2012)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위 사업 중 직접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음.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다함께 행복하고 희망찬 마을만들기”



- ▶ 조례제정 : 2012. 7. 11.
- ▶ 추진체계
  - 담당부서 :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기획과  
\*16개 타 부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관리 / 창조도시기획과 내 창조도시협력팀 마을만들기 사업 전담 (팀장 외 3명)
  - 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3. 5. 22. 설립
- ▶ 사업영역
  - 교육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마을리더 교육’ 등 성장과정별 맞춤 교육 지원
  - 지원사업 :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 ▶ 특징 : 도시재생사업과 복합된 형태의 사업 운영, 내부공모사업 외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  
찾아가는 교육사업과 기존 사업의 컨설팅 중점

(3)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사업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추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조례제정 : 2009. 12. 28.
- ▶ 추진체계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삶의질정책과  
\*마을만들기 민관협력 체계구축 · 시 · 군의 신청을 받아 사업공모 추진
  - 지원센터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 2010. 4. 21. 설립(2009년 시범 운영)  
\*최초의 광역단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 사업영역
  - 주요사업 : 향토산업마을조성사업, 전북형 슬로시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전라북도협의회
- ▶ 특징 : 농촌활력중심 사업진행, 국고지원사업과 동시 추진, 광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추진

(4)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sup>16)</sup>



- 수원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수원시청의 이니셔티브가 돋보이는 사업임.
- 수원마을르네상스센터를 통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조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2-12〉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

사업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실무자와 전문가들로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작성하고 제2부시장 직속 행정전담부서인 마을만들기 추진단 신설</li> <li>▶ 마을르네상스와 도시르네상스로 분류</li> <li>▶ 전문가로 구성된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를 발족, 민간 인적자원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li> <li>▶ 환경수도, 인문학도시, 화성 르네상스, 여성친화 도시조성을 목표로 연도별,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전개</li> <li>▶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조성과 공간조성 사업으로 다시 세분, 주로 소공간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과 공공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포함. 주민 참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실시,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li> <li>▶ 도시르네상스는 마을르네상스 대상사업보다 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설조성과 공간조성사업으로 구분 시행됨.</li> </ul>	마을 공동체 지원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음.

- ▶ **조례제정** : 2010. 12. 29
- ▶ **추진체계**
  - 담당부서 : 마을만들기 추진단 \*마을만들기사업 총괄
  -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 행정협의회체, 공무원 서포터즈 운영
  - 지원센터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 \* 2011. 6. 14. 설립 \*마을르네상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 **사업영역**
  - 교육 : 마을학교, 도시대학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진행
  - 지원사업 : 공동체 형성과 도시재생 사업 영역을 나누어 지원 (마을르네상스, 도시르네상스)
- ▶ **특징**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계획단 운영, 마을공동체 발굴에 치중  
공무원 서포터즈 구성, 마을르네상스 사업 위주로 추진



16)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에 관한 내용은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http://www.maeulcenter.or.kr>)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5)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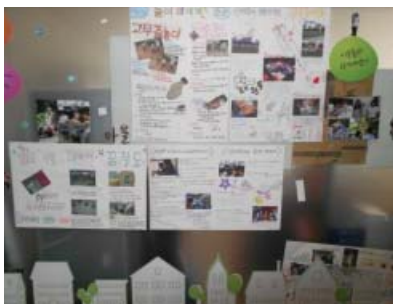
- 안산시는 시민단체로부터의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표 2-13〉 안산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사업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환경 악화와 공단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공동체성 약화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사회로부터 공동체 마을만들기에 대한 필요성 공론화</li> <li>▶ 2006년에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정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의제21 마을만들기 연구분과를 안산의제21 정식분과인 마을만들기 분과로 확대·재편하였고, 조례 작성팀을 구성하여 안산시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작성</li> <li>▶ 2007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를 의결하였으며, 2007년 12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본격적인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차원의 활동이 추진</li> <li>▶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과 주민리더교육, 마을포럼을 중심으로 진행됨.</li> </ul>	마을공동체 지원

-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음.

- ▶ 조례제정 : 2007. 09. 27
- ▶ 추진체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새마을, 그린마을,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총괄
  - 지원센터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2008. 1. 1. 설립 \*최초의 민간위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 사업영역
  - 교육 : 마을주민대학, 마을디자인대학, 마을리더학교 등 단계별 교육사업 진행
  - 지원사업 : 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 진행
- ▶ 특징 :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지역 내 4개 대학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자원 활용  
작은 단위의 예산사업 전개



17)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사례는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2011)에서 작성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활동소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2) 민간주도 마을만들기 사례

### (1) 서울 성미산 마을공동체<sup>18)</sup>

#### » 개요

- 마포구 성미산 주변 일대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으로, 도시 속에서 '생태, 공동체, 마을문화, 이웃, 고향'을 실현하면서 살기위한 활동이 10여 년 동안 전개됨.
- 육아, 교육, 먹거리 등 생활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마을 축제 등을 통해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현재진행형 사례로, 1994년 국내 최초로 공동육아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이 설립된 이후 본격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시작되었음.
- 2003년 '성미산 지키기 운동'의 성공 이후, '성미산 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으며,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성미산학교(대안학교) 등 다양한 활동과 경험으로 공동체가 성숙단계에 이룸.
- 공동체 구성원은 대략 1,000여명으로 30~40대 가족 중심의 단체/가게/모임 등 약 40~50여개의 크고 작은 커뮤니티가 독립적으로 활동 중임.
- 2007년 3월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사람과마을'이 설립되고,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공모 프로젝트의 실행기관 역할을 맡고 있음.
- '(사)사람과마을'은 독자적인 주민 조직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또는 신규사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2-7〉 서울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 연혁



〈출처: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사람과마을'마을 안내자료 수정〉

18) 서울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대한 내용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사람과마을'의 마을 안내 자료와 2012년 2월 1일 인천시 남구에서 개최한 공동체마을만들기 국내사례 초청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마을공동체 활동<sup>19)</sup>

-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은 교육과 마을기업, 마을문화 활동 등으로 구분됨.
- 공동관심사였던 육아 및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방과후 교실·배움터를 통한 교육 및 취미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됨.
- 법인으로 전환된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주민 출자 및 위탁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반찬가게, 녹색가게, 식당, 카페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활용함.
- 복합 문화공간인 마을극장을 설립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마을 축제 및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표 2-14〉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주요 활동

구분	관련 내용	
육아 및 교육	공동육아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형태의 보육시설로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li> <li>● 보육은 교사회에서 담당, 운영은 조합 이사회가 운영</li> </ul>
	방과후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기관(협동조합 형태)</li> <li>● 숙제지도, 야외 활동, 특별활동 프로그램 진행</li> </ul>
	성미산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개교한 대안학교로 초중고 통합 12년제로 운영</li> <li>● 학교설립위원회 이사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의 세 조직이 동등한 위상으로 협력 운영</li> </ul>
	마을배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공립초등학생과 성미산학생이 함께 참여 (학기별 운영, 약 25개 프로그램 개설)</li> </ul>
마을기업	마포두레 생활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11월 물품 공급으로 시작되었으며, 2003년 2월 법인으로 전환, 2007년 6월 조합원 가입범위를 강북지역 전역으로 확대</li> <li>● 2010년 12월 '마을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미산 마을커뮤니티와의 관계 강화</li> </ul>
	동네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5월 마을여성 8명이 공동출자한 친환경 유기농 반찬가게 (정규직 2명과 시간제 2명 근무), 2007년 5월 매장 확장 이전</li> </ul>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만들기(소행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4가구가 모여 공동주택 건립</li> <li>● 코하우징 컨설팅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회사인 '소행주'설립 (2011년 3월 입주, 9가구 6층 건물)</li> </ul>
	작은나무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사람과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운영 중인 마을의 중요한 문화 휴식공간</li> </ul>
마을문화	성미산마을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2009년 개장, 2010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공연, 마을회의, 방문자들을 위한 마을 소개장소로 활용</li> </ul>
	마을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와 주민 중심으로 기획·진행</li> <li>● 비용은 내부조달 원칙(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li> </ul>
	마을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축제와 연계한 동아리 활동 추진</li> <li>● 연극, 밴드, 풍물패, 드로잉모임, 사진, 여성 인문학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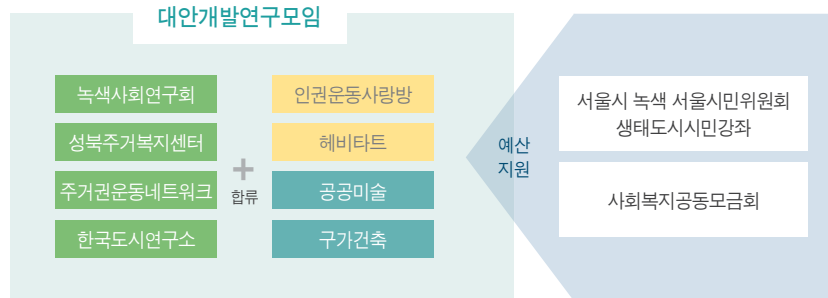
19) 사용된 이미지는 (사)사람과마을의 마을안내팀 '길눈이'에서 제공하는 성미산마을 공동체 활동소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

(2) 서울 장수마을<sup>20)</sup>  
(서울시 성북구 삼선 4구역)

» 개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의 서울성곽에 인접한 재개발예정지역(삼선4구역)으로 국공유지에 지어진 노후화가 심한 무허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단체 중심의 대안개발연구모임활동으로 다양한 주민참여형 정비사업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최근 마을기업인 '동네목수'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 중임.
- 대안연구모임으로 초기 녹색사회연구소, 성북주거복지센터 등이 참여하고, 이후 인권운동사랑방, 헤비타트 등이 참여하였으며,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도시 시민강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함.

〈그림 2-8〉 장수마을 대안개발연구모임 참여 기관 및 단체



- 주민 워크숍 개최(2008년) : 마을의 명칭을 '장수마을'로 결정하고 단계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안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주민워크숍을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검토함.
- 주민협의회 구성(2009년) :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정비계획(안)을 마련함. 순환식 전면정비를 통한 공동주택건설, 경관 가치 보존을 위한 경관협정 연계, 개별 주택 개보수시 비용절감, 주택 구조와 안전진단을 통한 정비 등을 검토함.
-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 마을만들기 사례와 저비용 주택 건축 사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함.
- 지원체계 구축 및 대안개발계획 실행(2010년~) : 대안개발계획 실현방안을 위해 주민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병행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함.
- '성곽과 골목,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을경관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간 및 시설, 프로그램, 사람 만들기를 통한 마을 경관 만들기의 방향을 설정함.

20) 서울 장수마을 사례는 '삼선4구역 주민참여형 대안개발 계획 1차 보고서'와 2011년 7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세미나' 제3차 발표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2-9〉 서울 장수마을의 연도별 주요 대안개발계획 추진 내용



» 주요 활동 <sup>21)</sup>

- 장수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추진된 주요 활동으로는 공간 및 시설 만들기, 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마을의 일꾼(사람) 만들기, 마을기업 활성화 등이 있음.

〈표 2-15〉 장수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요 활동

구분	사업내용
공간 및 시설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과 나대지에 화단, 텃밭 조성</li> <li>● 빈집, 경로당(2층)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공간 · 교육장으로 활용</li> </ul>
프로그램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뚝뚝뚝 마을학교’: 도시농업, 집수리, 골목정원가꾸기 강좌 개설</li> <li>● 도시 농부의 소규모 화분농사 : 공동체 생태텃밭 확대</li> <li>● 집수리 기술자 조직 : 독거노인 노후주택 수리</li> <li>● 집수리 공동체(뚝뚝이 기동대) 조직 :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li> </ul>
사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한 마을 일꾼 만들기 추진</li> <li>● 서울성곽 관련 역사문화자원 안내자 및 일상관리원 양성</li> <li>● 공공근로 등과 연계한 마을 위생환경 관리원 채용</li> </ul>
마을기업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주택 수리 목적의 마을기업(동네목수) 설립 :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공급, 일자리 제공 효과 도모</li> </ul>

21) 사용된 이미지는 2011년 7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발표된 장수마을(삼선4구역) 소개 자료의 내용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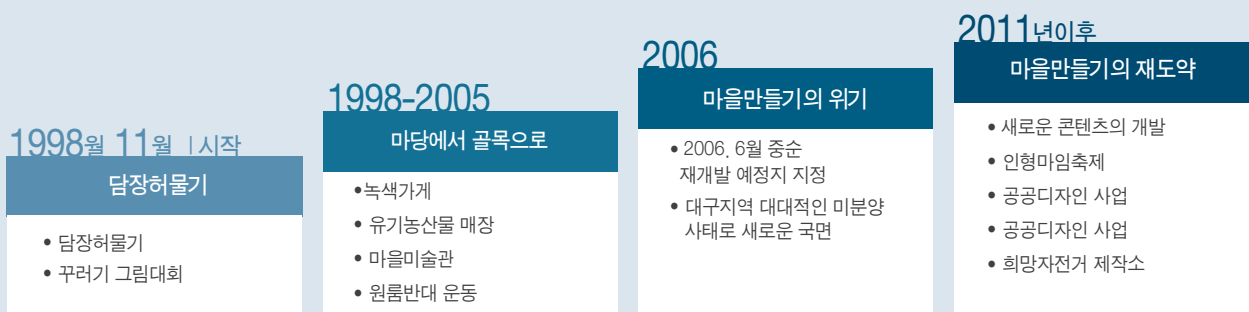
(3) 대구 삼덕동 마을공동체<sup>22)</sup> » 개요

- 대구광역시 북구 삼덕동 일대의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삼덕동으로 이주한 시민단체 임원의 담장허물기에서 시작된 민간주도의 대표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작으로 인식됨.
- 한 개인의 담장허물기가 마을공동체 활동의 형태로 확산되어 담장벽화와 공공시설 디자인 등 마을환경개선운동으로 전개됨.
- 한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으나, 마을축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마을기업 등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기를 되찾게 됨.

» 마을만들기의 전개

- 삼덕동의 마을만들기 과정은 최초 담장허물기를 진행한 시점부터 마을만들기가 골목으로 확산된 시기, 재개발 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마을만들기 침체 시기, 이후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재도약기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10〉 삼덕동 마을공동체의 마을만들기 활동과정



22) 대구 삼덕동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례는 국토연구원(2009), '한국의 도시·마을만들기'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음

### 3) 국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특징 종합

#### » 정책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 및 학습의 중요성 강조

- 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과 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됨.
-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지속성을 가능케 함.
- 정책의 기초가 되는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 역시 주민들의 의식과 함께 확산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는 사람 즉, 주민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추진

- 대부분의 공공에서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은 공모에 의한 사업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공모제는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 및 공간 조성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됨.
-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1년 단위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효과는 1년 내에 가시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공모사업 자체는 사업 단위별로 1년 단위로 지원하더라도 사업의 확산과 재구성을 통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 추진체계는 전담부서, 행정협의체, 중간지원조직, 위원회로 구성

- 공공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립, 사업공모, 교육 및 홍보라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의 설립과 예산 지원, 사업공모, 교육,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담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추진체계는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전담부서, 위원회, 중간지원조직과 사업에 따라 행정협의체를 운용하고 있음.

#### » 정책의 기초가 되는 마을공동체 발굴 및 형성 지원에 중점

- 민간 측면에서는 마을공동체 운동이 초기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와 같은 특정 개인 또는 공동체적 필요와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나, 차츰 방과 후 교실과 마을 축제 등 공익적 활동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보임.
- 또한, 공익적 관점의 공동체 활동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마을기업이나 생활협동조합 활동 등으로도 확산됨.
- 공동체 활동의 확대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에서 문화, 경제 및 생활 부문으로 넓혀가는 특징을 보임.
- 이러한 정책의 기초가 되는 민간 측면에서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주민의 수요에 따른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하여 사업 초기에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정책 실현방안으로서 교육과 학습, 공동체 지원사업, 네트워크 사업 추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은 교육과 학습, 공모사업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지원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임.
- 이러한 사업들은 전담부서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많은 공공 부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사례에서는 각각의 형태는 다르나, 교육과 학습, 공모(지원)사업,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
- 사업 각각에 있어서는 주민, 공공, 전문가,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임.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과 소통 필요

- 공공 부문의 정책 사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과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운영이 있음.
-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 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실행화 기관인 중간조직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구분될 필요가 있는 동시에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도시재생 부문 및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상호 업무연계 필요

- 서울 휴먼타운과 수원 마을(도시)르네상스 사례에서는 공동체 활동 지원과 주거지 재생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최근에는 마을 단위 현장에서의 도시재생 부문과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통합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즉, 물리적 환경개선, 공동체식 제고, 사회복지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에 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필요성이 주창되고 있음.

## 4.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 정책 동향

### 1) 인천의 공동체 활동 연혁<sup>23)</sup>

- 인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국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자생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진행됨.
- 1970~80년대 이전부터 산업단지 등의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자치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물론 이 시기가 인천지역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작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공유된 바는 없으나, 이 시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씨앗이 만들어졌다고 견해가 있음. 이 시기에는 도시민민의 생존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활동이 동구 송림동을 비롯하여 만석동 송현동 일대와 북구(현 부평구와 계양구)의 십정동, 산곡동, 효성동 일대에 있었음.<sup>24)</sup>

23) 인천의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운동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황조사를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 연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24) 유진수, 인천마을만들기 운동이 걸어간길, 황해문화, 2013 가을.

- 1990년대는 환경 운동과 함께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빈민지역 공부방, 탁아소, 진료소 등 작은 공동체 활동이 지역에서 성장함. 이들은 주민신문, 마을잔치, 어머니 교실 등을 통해 마을활동의 토대를 만듦. 이 때 환경운동으로부터 모태가 된 의료생활협동조합도 인천에서 태동하게 됨.
- 이후 2000년대 초를 전후로 수인선 철도노선과 지역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계기로 형성된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함.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단법인 형태의 마을공동체 활동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마을 내 작은 도서관이나 먹거리 운동 등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이 다양해짐.
  - 2000년대 이전 공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이 마을공동체로 발전하기 시작함.
  - 작은도서관 육성 및 안전한 먹거리운동 등 중앙 부서의 정책이나 민간 부문의 캠페인 등 특정 활동을 중심의 활동들이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와 결합하거나 활동의 반경을 넓히기 시작함.
  - 특정계층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복지적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센터 등을 기반으로 동네주민과의 교류 및 친목 강화를 도모하는 등의 마을공동체 활동으로의 변화도 보임.
  -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고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비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활동들이나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 개선 활동들이 공동체 활동으로 발전되기도 함.
- 2010년 마을공동체간 연계를 위한 '인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들은 주민 속에서 직접적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함.
- 최근에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공공 주도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들도 전개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공동체 활동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 민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먼저 발생하였으며, 최근 공공 주도의 마을공동체 정책들이 이를 지원하는 위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 인천시 정책 지원현황

- 민간의 움직임에 맞추어 공공에서도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됨.
- 부평구에서는 인천도시대학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인천시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2013년 5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
  - 목적: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적 토대 정립

- 주요 내용 : 목적·정의·주체별(시·구·종합지원센터) 역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 인천시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방법·기능·역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방법·업무내용, 마을만들기 사업범위·지원방법·사업분석 및 평가 등

■ 또한, 최근에는 연수구, 남구, 동구, 부평구 등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구 차원에서의 지원활동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음.

〈표 2-16〉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제3조(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li> <li>●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li> <li>●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li> <li>●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li> </ul>
제6조(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단위로 수립</li> <li>● 주요 내용 : 기본계획과 방향, 지원센터 설치, 운영,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등 민간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효율적인 지원 방향 및 추진체계 등</li> </ul>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li> <li>●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li> <li>●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li> <li>●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li> <li>●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li> <li>●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li> <li>●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li> <li>●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li> </ul>
제14조~제21조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행정부시장</li> <li>● 당연직 위원 :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국, 실장</li> <li>● 위촉직 위원 :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li> <li>●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li> </ul>
제22조~제26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센터의 설치·기능·관리·운영</li> <li>●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 평가, 연구</li> <li>● 사업계획 수립, 실행 지원</li> <li>●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li> <li>● 마을일꾼 발굴 및 육성</li> </ul>

〈표 2-17〉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
광역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3.05
연수구	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2.06
부평구	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	2009.11
동구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2.11
남구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3.07

〈주: 2013년 8월 현재〉

### 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

####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등 및 공모사업 추진

- 인천시는 201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전 연구를 인천발전연구원 주도로 시행하여왔음.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3년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구성하여 사업운영 방향, 공모사업 지정,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함.
- 2013년 10월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공모를 통하여 (사)마을넷을 민간위탁자로 선정함.
  -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이 모두 초기단계로서 마을 주민에 대한 교육과 제도 정비 추진에 초점이 있음.
  - 이에 따라 2013년도는 인천시청(자치행정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인천발전연구원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 기본방향 등을 설정하며, 비전 및 추진과제 등을 발굴하는 시점임.

#### » 인천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 인천광역시 및 각 구군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등의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천형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증조건을 완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예비 사회적기업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되며, 사업 내용의 우수성, 사업 주체의 견실성, 사업 내에서의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훈련계획의 충실성 등 4가지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함.
- 인천시 사회적 기업은 총 123개로 이중 인증형이 44개,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4개,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75개임.

〈표2-18〉 인천시 사회적 기업 총괄 현황 (2013. 7. 30 기준)

총계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형	부처형	인천형
123개	44개	4개	75개

〈출처: 서봉만 · 박수현 (2013)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인천시 JOB-CARE 사업 활성화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 인천시 협동조합 육성 사업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5월 27일 공포하여 이를 근거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현재 인천시 협동조합의 수립 및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수리된 협동조합건수는 총 41건이며, 신고된 협동조합 건수는 56건임(2013년 6월 기준).
- 군구별로는 부평구와 남동구가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문화·예술서비스 업종이 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서봉만·박수현, 2013).

### »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원도심 지역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수단을 도입함.
- 2013년 2월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8개 사업 구역 및 지원규모가 결정됨.
  - 사업구역 : 인현, 북성구역 등 6개구 총 8개 사업(선도사업)
  - 지원 규모 : 총 45,100백만원(구역당 2,700 ~ 9,800백만원)
- 선도사업의 경우, 2013년 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설계 용역 등이 마무리 되며, 2014년 이후 시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임.
  - 2013년에 주민 설명회 및 교육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주민협의체 관련 자치규정이 마련되고, 공동이용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방안이 협의될 예정임.
- 2014년에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확대 추진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 결정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등이 진행될 예정임.

〈표 2-19〉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행계획(2013년)

(단위 : 백만원)

구별	구역명	예산액	세부사업 내용
중구 중구	인현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이용시설(경로당,공동작업장,휴게실)</li> <li>● 가로경관, 지붕개량 등 시설정비</li> </ul>
	북성	4,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이용시설(경로당,공동작업장,휴게실)</li> <li>● 가로경관, 지붕개량 등 시설정비</li> </ul>
동구	박문여고주변	6,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작업장, 임대주택건립</li> <li>● 소공원조성 및 방범시설 확충</li> </ul>
남구 남구	송의4,7	7,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길정비, 주차장조성, 텃밭조성</li> <li>●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관련시설, 편의시설)</li> </ul>
	주안북초교북측	2,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쉼터, 북카페조성, 주차장조성</li> </ul>
남동구	만부	4,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공부방, 체력단련실)</li> <li>● 주민쉼터 및 안전한 마을만들기사업</li> </ul>
부평구	삼산2	5,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조성</li> <li>● 주민공동이용시설(공부방, 인터넷방, 북카페 등)</li> </ul>
서구	천마초교서측	9,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이용시설(경로당, 북카페, 보육시설 등)</li> <li>● 석남공원리모델링, 주차장조성, 가로경관개선 등</li> </ul>
합계	총 8개 사업, 45,100백만원		〈출처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2013),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행〉

-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마을공동체활동 기반의 재생사업으로, 주거 재생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함.
  - 아직까지 인천시와 자치구 담당 실무자는 물론 주민의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만을 기초로 선정하고 있어 관련 주체간 원활한 협의와 진행에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의 근린재생 TB사업, 장수마을 사례 등과 같이 사전기획단계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준비되어야 함.
-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인천시 및 자치구 업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선진사례 답사 등의 밀착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완료된 일부 서울시 구역에서는 공공주도의 접근으로 인한 주민의 참여의지 부족, 사업완료 후 공동체활동의 미약 등으로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주민의 관심은 대부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기반시설, 주택 수리 등 물리적 환경에 치우친 관계로 시설개선 중심의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관심이 저하되는 성향을 보임.
  -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인식하고, 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제도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차원에서 관련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형성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해야 함.
-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 지속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사업기간을 설정해야 함.
  - 주민의 역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 및 의사결정을 토대로 계획이 완성되도록 충분한 사업기간을 설정해야 함.
  - 주민의 관심도와 참여가 충분히 성숙되고,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계획이 추진되어야 함.



### Ⅲ. 인천광역시 마을 공동체 현황 및 여건 분석

1. 마을공동체 현황조사 목적
2. 조사방법
3. 분석 결과



### Ⅲ. 인천광역시 마을 공동체 현황 및 여건 분석

#### 1. 마을공동체 현황조사 목적

-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원으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역단체 네트워크 활동을 조사함

#### 2. 조사방법

##### » 조사방법

- 지역시민단체 활동가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단체의 단체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일대일 면접조사와 이메일,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인터뷰 방식을 병행함. 현황조사 결과에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사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추가하여 실시함.

##### » 조사기간

- 조사는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9월 18일부터 10월 4일 까지 2차 조사가 진행되었음.

##### »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인천시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단체, 군·구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 공모단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조사 중 발굴된 단체를 포함하였음.
- 인천시 관내 모든 마을공동체가 조사된 것은 아니며, 조사된 단체만을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로서 분석된 내용이 인천시 마을공동체를 대표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뚜렷한 경우<sup>25)</sup>에만 표본에 넣어 조사하였음. 다만,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많다고 판단되어 작은도서관들은 포함되었음.

25) 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1-2개씩만 포함되어 조사되었으며, 결과에 포함되어 분석되었음.

### 3. 분석 결과

####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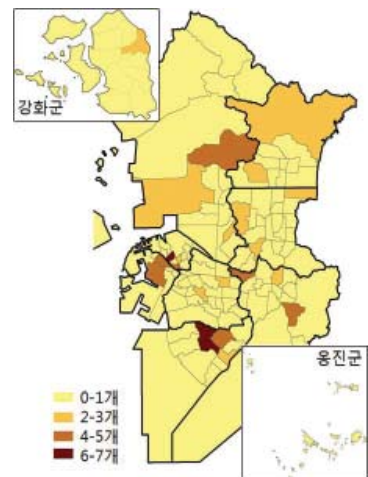
##### » 군·구별 조사대상수

- 설문조사에 응답한 단체는 총 98개 단체로, 응답단체가 가장 많은 자치군·구는 동구(17개), 연수구(17개), 남동구(12개), 서구(12개) 순으로 나타났음. 응답단체가 10개 미만인 자치군·구는 계양구(7개), 남구(6개), 옹진군(3개), 강화군(2개)로 나타났음.
-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모사업의 시작은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생기는 데 촉진제 역할을 수행함. 아래에서 동구와 연수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동구와 연수구의 경우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기업 등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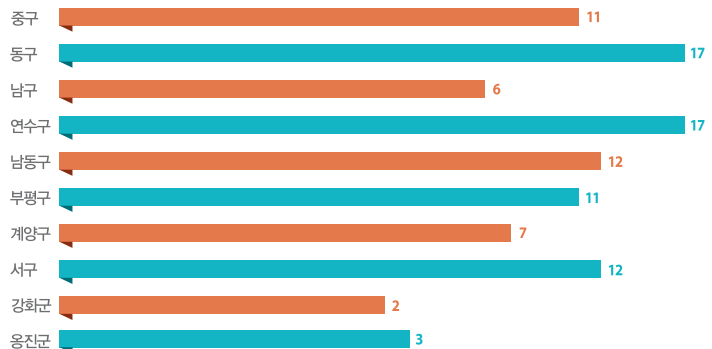
〈표 3-1〉 군·구별 조사대상수

구분	빈도(개)	비율(%)
중구	11	11.2
동구	17	17.3
남구	6	6.1
연수구	17	17.3
남동구	12	12.2
부평구	11	11.2
계양구	7	7.1
서구	12	12.2
강화군	2	2.0
옹진군	3	3.1
합계	98	100.0

〈그림 3-1〉공동체 분포현황



인천시 마을공동체 동별 현황 : 총 98개소 (강화·옹진군 5개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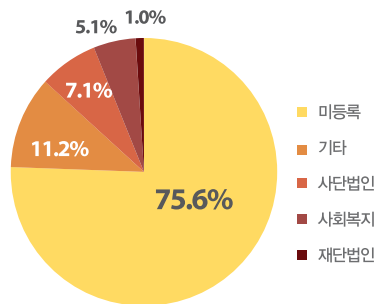


##### » 법인형태

- 응답단체 중 법인등록을 하여 법적 지위가 있는 단체가 24.5%이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는 75.5%로 나타났음. 사단법인이 7.1%, 사회복지법인이 5.1%, 재단법인은 1.0%를 나타냈고, 주식회사 등 기타가 11.2%로 나타났음.

〈표 3-2〉 법인형태

법인형태	빈도(개)	비율(%)
사단법인	7	7.1
재단법인	1	1.0
사회복지법인	5	5.1
기타	11	11.2
미등록	74	75.5
합계	98	100.0



〈그림 3-2〉 법인등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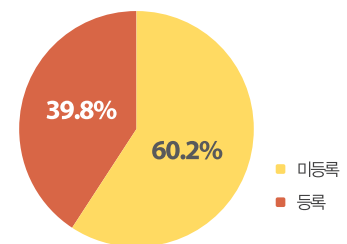
- 이렇듯이 법인 미등록 기관이 75.6%에 이르는 것은 활동 시작년도가 2000년대 이후 시작된 단체가 대부분이며, 활동 규모가 작은 단체가 많은 것에 기인함.
- 마을공동체 역시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동네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 등록 필요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 응답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단체가 39.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는 60.2%로 나타났음.

〈표 3-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

법인형태	빈도(개)	비율(%)
등록	39	39.8
미등록	59	60.2
합계	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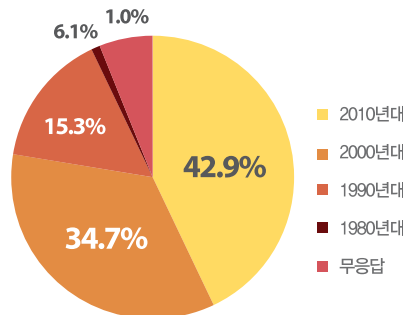
- 법인 등록에 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보다 비율이 높은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지부로 활동하다가 2000년대 이후 분화되어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예를 들어, 설립 초반 지역 나눔 사업으로 반찬나누기, 어린이 공부방 등의 활동을 하다가 2007년부터 지역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하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동부지부도 이러한 단체라고 할 수 있음.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역시 구 단위 지회에서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 단체로 변화하였음.

### » 활동 시작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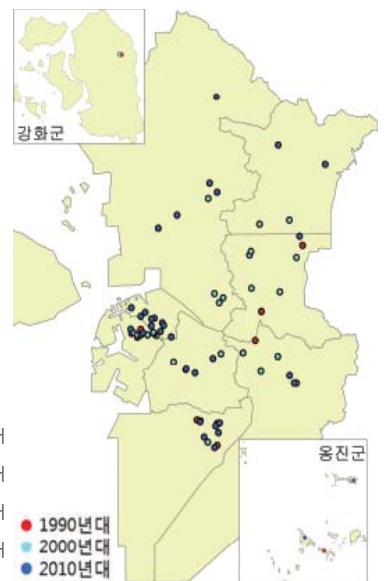
- 응답단체의 지역활동 시작연도를 보면 2010년대 들어 지역활동을 시작한 단체가 42.9%로 가장 많았고, 2000년대에 지역활동을 시작한 단체가 34.7%, 1990년대 활동을 시작한 단체가 15%, 1980년대 지역활동을 시작한 단체는 1.0%로 나타났음.
- 최근 활동을 시작한 단체들의 동향을 보면, 마을기업 형태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음. 2011년 설립된 다남동 마을회 등은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있는 사례로 들 수 있음.
- 동구와 연수구의 경우 기존에도 다른 구 수준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시행된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기업 등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되었음.

〈표 3-4〉 활동 시작연도

활동 시작 연도	빈도(개)	비율(%)
1980년대	1	1.0
1990년대	15	15.3
2000년대	34	34.7
2010년대	42	42.9
결측값	6	6.1
합계	98	100.0



〈그림 3-3〉 활동시작 연도



- 이처럼 법인형태와 활동 시작연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최근 활동을 시작하면서 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교류의 장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음.

### » 활동가 규모

- 응답단체 중 상근활동가가 있는 단체가 59.2%, 없는 단체가 40.0%로 나타났고, 반 상근활동가가 있는 단체는 49.0%, 없는 단체가 51.0%로 나타났음.
- 상근활동가가 있는 경우는 작은도서관 등의 활동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음. 도서관의 경우 상근 사서가 있으므로, 사서들과 함께 이러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상근활동가가 존재함. 따라서 상근활동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 활동만을 위한 상근활동가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예를 들어,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은 2003년 부평여성회, 부평청년회, 마을주민들이 어린이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다는 취지로 설립하게 되었으며, 설립 당시 한 가족이 10,000원, 월회비 10,000원을 내고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곳임. 기본적인 열람 및 대출서비스를 시작으로 '동화읽은 엄마 모임'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가교실'과 '부평공원 지킴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화랑북로 골목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다만, 도서관이나 마을기업, 문화공간 등 활동을 전개하는 곳과 같이 상근활동가가 1인이더라도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1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5〉 활동가 현황

활동가 규모		빈도(개)	비율(%)
상근 활동가	있음	58	59.2
	없음	40	40.8
합계		98	100.0
반상근 활동가	있음	48	49.0
	없음	50	51.0
합계		98	100.0

〈그림 3-4〉 상근활동가 현황



- 상근활동가 전체 159명으로 그 중 유급활동가는 65.4%, 무급활동가는 34.6%로 나타났다. 반상근활동가는 전체 322명으로 그 중 유급활동가는 18.6%, 무급활동가는 81.4%로 나타났다.
- 다만, 이러한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는 단순히 인건비라기보다는 활동비의 성격이 강한 곳이 많음.

〈표 3-6〉 활동가 규모

활동가 규모		전체(명)	평균(명)	비율(%)
상근활동가	유급	104	1.06	65.4
	무급	55	0.56	34.6
합계		159	1.62	100.0
반상근활동가	유급	60	0.61	18.6
	무급	262	2.67	81.4
합계		322	3.29	100.0

- 따라서 상근활동가 또는 반상근활동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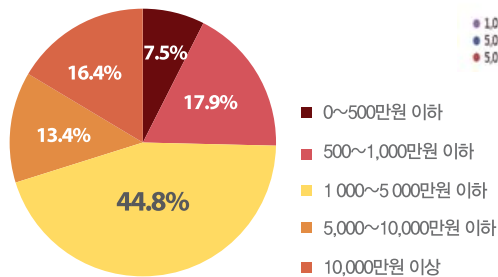
» 예산 규모

- 응답단체 중 2013년을 기준으로 예산이 1,000만원~5,000만원 이하 단체가 44.8%로 가장 많았고, 0원~100만원 이하 단체는 3.0%, 100만원~ 500만원 이하 단체가 4.5%, 500만원~1,000만원 이하 단체가 17.9%, 5,000만원~ 10,000만원 이하 단체가 13.4%, 10,000만원 이상 단체가 16.4%로 나타났다.
- 예산 규모에 대하여 결측값으로 응답된 곳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초기 단계인 곳임. 이들 단체들은 예산 규모를 적시하기 어려운 경우임.
- 즉, 이들 결측값이 있는 단체 역시 예산 규모가 매우 적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은 단체들이 다수라고 할 수 있음.

〈표 3-7〉 예산 규모

예산 규모	빈도(개)	비율(%)
0원~100만원 이하	2	3.0
100만원~500만원 이하	3	4.5
500만원~1,000만원 이하	12	17.9
1,000만원~5,000만원 이하	30	44.8
5,000만원~10,000만원 이하	9	13.4
10,000만원 이상	11	16.4
합계	67	100.0
결측값	31	-

〈그림 3-5〉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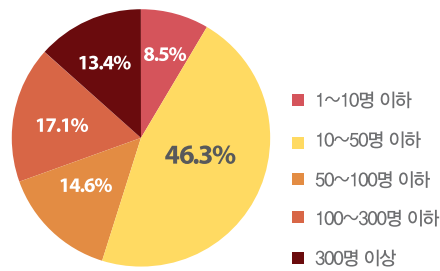


» 회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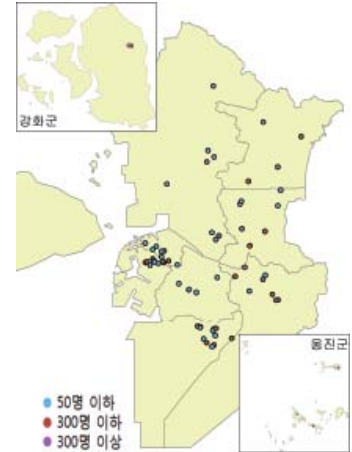
- 응답단체의 회원 수는 10명~50명 이하가 46.3%로 가장 많았고, 1명~10명 이하 단체가 8.5%, 50명~100명 이하가 14.6%, 100명~300명 이하가 17.1%, 300명~500명 이하가 7.3%, 500명~1,000명 이하가 3.7%, 1,000명 이상이 2.4%로 나타났다.
- 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회원규모의 결측값 역시 작은 공동체의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됨.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50-60% 이상의 단체들이 회원규모 50명 이상의 단체라고 판단됨.
-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활용한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회원 수의 의미가 적은 곳도 있음. 카페 낙타사막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경우도 회원 규모는 의미가 약함.
- 또한, 함박마을공동체의 경우 적게는 20명 많게는 70명 가량이 주민회의를 월 1회 씩 개최하고 있는 회원규모가 큰 마을공동체이지만, 중심적 활동은 대표 1인이 하고 있는 등 회원 규모를 단순히 마을공동체 자체의 규모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표 3-8〉 회원 규모

회원 규모	빈도(개)	비율(%)
1명~10명 이하	7	8.5
10명~50명 이하	38	46.3
50명~100명 이하	12	14.6
100명~300명 이하	14	17.1
300명~500명 이하	6	7.3
500명~1,000명 이하	3	3.7
1,000명 이상	2	2.4
합계	82	100.0
결측값	16	-



〈그림 3-6〉 회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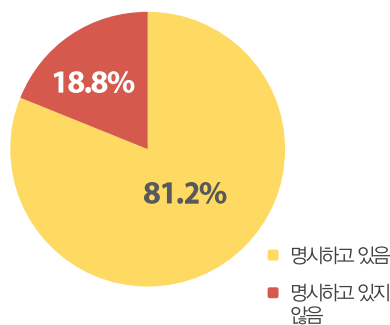
- 예산규모와 회원규모를 볼 때 저예산 및 소규모 공동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이들 저예산 및 소규모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단체설립 목적 중 “마을공동체” 명시 여부

- 단체 정관 또는 사업목표에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또는 공동체) 지향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단체가 81.2%로 나타났으며, 명시하고 있지 않은 단체가 18.8%로 나타났음.

〈표 3-9〉 단체설립 목적 중 “마을공동체” 명시 여부

명시 여부	빈도(개)	비율(%)
명시하고 있음	65	81.2
명시하고 있지 않음	15	18.8
합계	80	100.0
결측값	18	-



〈그림 3-7〉 공동체 명시여부



## 2) 단체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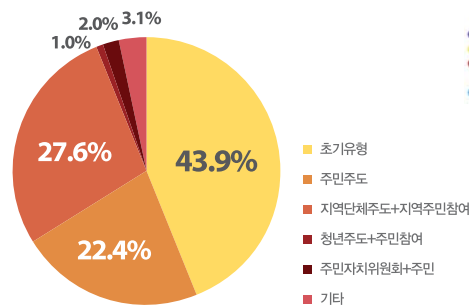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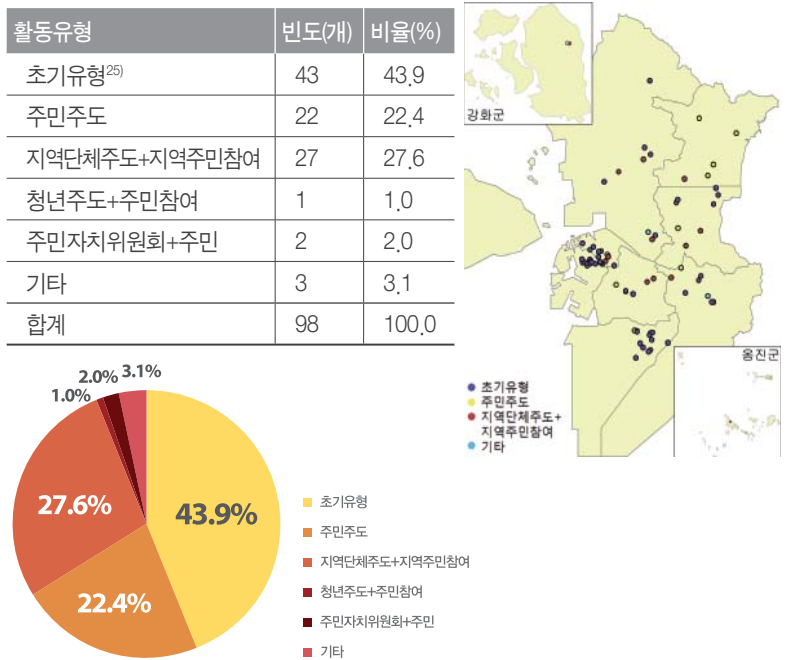
### » 활동유형

- 단체의 활동 유형이나 단체의 정체성 등은 초기 단계의 마을공동체가 응답하기 어려우므로 단체 성격 중 활동 유형과 단체 정체성 등을 제외한 설문지를 배포하였음.
- 결과적으로 활동유형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초기유형 단체 43개를 제외하고 55개 단체 중에서는 자신의 활동유형으로 '지역단체주도+지역주민참여'를 선택한 단체가 27.6%로 가장 많았음. '주민주도'를 선택한 단체가 22.4%, '청년주도+주민참여'를 선택한 단체가 1.0%, '주민자치위원회+주민'을 선택한 단체가 2.0%, 기타 활동유형이 3.1%로 나타났음.
- 청년 주도형의 경우에는 인천의 경우에는 아직 이와 같은 유형이 나타나기에는 정책적 지원이 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주도형을 찾기 어려운 것은 애초 대상 선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배제한 것이 원인임.

〈표 3-10〉 활동유형

활동유형	빈도(개)	비율(%)
초기유형 <sup>26)</sup>	43	43.9
주민주도	22	22.4
지역단체주도+지역주민참여	27	27.6
청년주도+주민참여	1	1.0
주민자치위원회+주민	2	2.0
기타	3	3.1
합계	98	100.0

〈그림 3-8〉 활동유형



- 현재는 마을공동체 위주의 활동이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단체가 주도 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어, 문화바람의 경우 1997년 생활문화예술공동체를 지향하는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로 시작하였으며, 2013년 현재는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와 함께 복합문화공간,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연합회 등을 포함한 생활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음.
-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로 마을발전협의회 등이 설립되고 지역 공원화 사업 및 주차장 조성, 공공버스 노선 유치 등의 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발전되는 주민주도형도 있음. 이러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

26) 활동유형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초기유형 단체용 설문지(B형) 응답단체임.

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짐. 청천·산곡동 마을공동체인 “동네야 놀자”나 “함박 마을공동체” 등이 유사사례임.

- 인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중에서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곳이 존재함. 예를 들어,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내부적인 동아리 활동, 어린이 도서관 운영, 축제 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마을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있음. 가좌2동의 경우에는 푸른샘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간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가좌2동은 이후 마을n사람이라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즉, 인천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발전 가능성도 돋보이는 지역이라고 판단됨.

### » 단체정체성

- 단체의 정체성 역시 초기 단계의 마을공동체가 응답하기 어려우므로 과반수 정도의 단체에는 이 질문을 제외하고 질문지를 배포하였음. 따라서 많은 마을공동체가 단체 정체성을 하나로 한정짓기는 어려운 상태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질문에 응답한 단체 중에서는 단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한 분야로 ‘시민사회단체’를 선택한 단체가 24.7%로 가장 많았고, ‘교육·문화·예술단체’ 22.5%, ‘지역자치단체’ 16.9%, ‘사회서비스단체’ 15.7%, ‘기타’ 10.2%, ‘여성단체’ 9.0%, ‘환경단체’ 1.1% 순으로 나타났음. 이 문항은 복수응답 문항으로 전체 89개가 응답되어 응답한 55개 단체 중 자신의 정체성을 2개 이상으로 응답한 단체들이 많음을 의미함.

〈표 3-11〉 단체정체성(복수응답)

단체정체성	빈도(개)	비율(%)
지역자치단체	15	16.9
교육·문화·예술단체	20	22.5
사회서비스단체	14	15.7
시민사회단체	22	24.7
여성단체	8	9.0
환경단체	1	1.1
기타	9	10.2
합계	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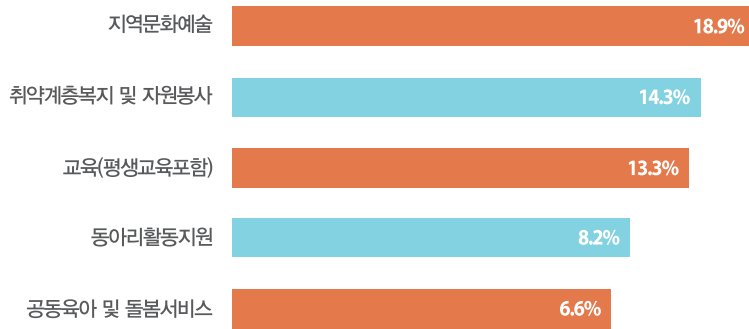
### » 사업유형 및 대표사업

-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유형 및 대표사업에서 ‘지역문화예술’을 선택한 단체가 18.9%로 가장 많았고, ‘취약계층복지 및 자원봉사’가 14.3%, ‘교육(평생교육포함)’이 13.3%, ‘동아리활동 지원’이 8.2%, ‘공동육아 및 돌봄서비스’가 6.6% 순으로 나타났음.
- 대표사업 중 문화사업의 경우 중구, 동구, 연수구, 남구 지역에서 높게 분포되었으며, 교육사업은 서구, 계양구, 남동구 등에서 높게 나타났음. 돌봄사업은 남구와 부평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제사업의 경우 계양구가 높게 나타났음. 기반사업은 동구와 남구에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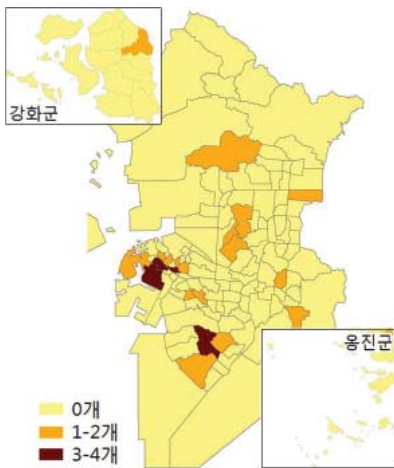
- 이들 사업유형 및 대표사업 역시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하였음. 모든 단체 들이 2개 씩 응답하여 단일의 사업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것이 보편 적임을 알 수 있음.
- 제1사업을 다른 유형의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문화예술사업이나 교육사업, 취약계층복지 및 자원봉사 사업을 부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즉, 시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마을축제 등을 병행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형태가 존재함.
-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포함되고 이러한 동아리 활동들은 평생학습과 연계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의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문화예술과 평생교육 등이 연계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음.
- 단, 현재 조사된 98개 단체 중 동구와 연수구의 공동체활동 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된 점과 마을공동체의 1~2개 활동만으로 사업에 대한 대표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계하되 참여 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 유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3-12〉 사업유형 및 대표사업(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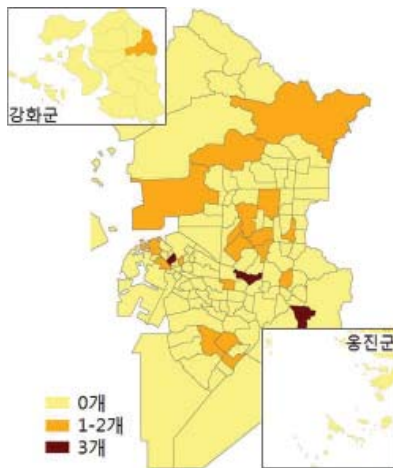
사업유형 및 대표사업		빈도(개)	비율(%)
문화	지역문화예술	37	18.9
교육	교육(평생교육포함)	26	13.3
	동아리활동지원	16	8.2
돌봄	취약계층복지 및 자원봉사	28	14.3
	공동육아 및 돌봄서비스	13	6.6
경제	공동 재화서비스 및 지역일자리 창출	10	5.1
	지역통화	3	1.5
모니터링 등	자치구행정 및 의정모니터링	10	5.1
	정책 및 조사연구	7	3.6
기반	지역안전	8	4.1
	도시텃밭	6	3.1
	지역기반시설공동관리	7	3.6
	환경	9	4.6
기타		16	8.2
합계		1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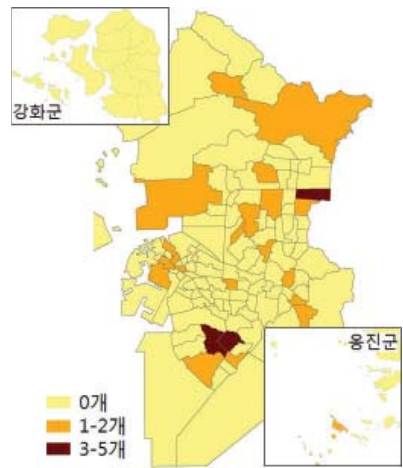
〈그림 3-9〉 대표사업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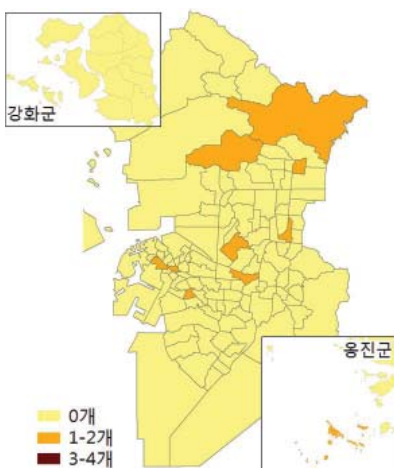
〈그림 3-10〉 대표사업 :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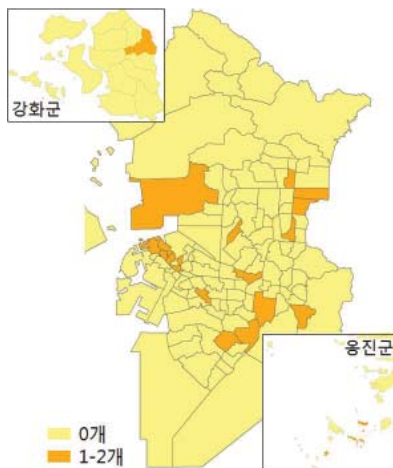
〈그림 3-11〉 대표사업 :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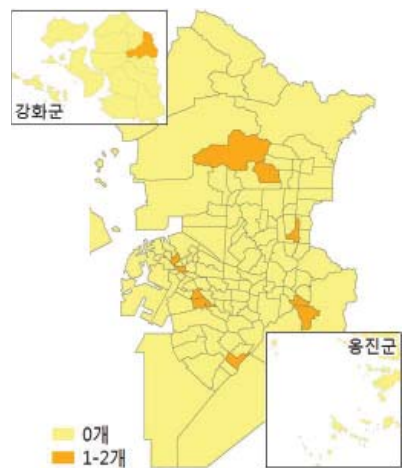
〈그림 3-12〉 대표사업 : 경제



〈그림 3-13〉 대표사업 : 기반



〈그림 3-14〉 대표사업 : 모니터 등



» 지원역할단체

- 응답단체 중 단체설립을 할 때 지원을 받은 단체가 64.3%로 나타났음. 지원역할을 한 단체 중 '지역풀뿌리단체(네트워크)'가 23.1%로 가장 많았고, '자치구 및 주민자치센터'가 14.8%, '광역형시민단체'가 12.0%, '기타'가 6.5%, '복지시설 및 기관'과 '교육·문화시설 및 기관'이 각각 5.5%로 나타났음.
- 지원역할단체에 대한 질문 역시 복수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전체 98개 단체가 응답하였음을 고려하면, 지원역할 단체가 없는 단체 35개를 제외하고는 63개의 단체가 1-2개의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음을 의미함.

〈표 3-13〉 지원역할단체(복수응답)

지원역할단체	빈도(개)	비율(%)
지역풀뿌리단체(네트워크)	25	23.1
광역형시민단체	13	12.0
복지시설 및 기관	6	5.6
교육·문화시설 및 기관	6	5.6
자치구 및 주민자치센터	16	14.8
기타	7	6.5
없음	35	32.4
합계	108	100

» 연대활동단체

- 응답단체 중 82.7%가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지역풀뿌리단체'가 32.3%로 가장 많았고, '복지시설 및 기관'이 19.2%, '행정부서'가 12.6%, '기타'가 10.2%, '광역형 시민단체'가 7.2% 순으로 나타났음.
-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은 1개의 단체와 활동하는 것이 아닌 2개 정도의 단체 들과 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3-14〉 연대활동단체(복수응답)

연대활동단체	빈도(개)	비율(%)	없음	비율(%)
지역풀뿌리단체	54	32.3	없음	10.2%
광역형 시민단체	12	7.2	지역 풀뿌리단체	32.3%
복지시설 및 기관	32	19.2	복지시설 및 기관	19.2%
교육·문화시설 및 기관	14	8.4	행정부서	12.6%
행정부서	21	12.6	기타	10.2%
기타	17	10.2		
없음	17	10.2		
합계	167	100		

###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동 » 주도적 역할 수행 주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에서 핵심적이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에 대해서 '지역풀뿌리단체(네트워크)'를 46.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문화,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및 기관'이 14.0%,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 부녀회'가 12.2%, '광역형 비영리 민간단체'가 7.0%, '자치구 행정부서 및 의회'가 6.4% '인천시 행정부서' 5.2%, '지역사회 대학 등 학교'가 1.2% 순으로 나타났음.
- 즉, 행정기관과 같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주도의 활동이 요망된다는 응답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2-33〉 주도적 역할 수행 주체(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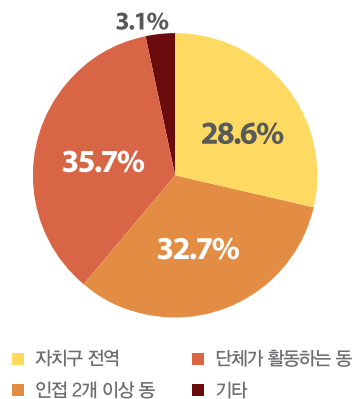
수행 주체	빈도(개)	비율(%)
지역풀뿌리단체(네트워크)	80	46.5
광역형 비영리 민간단체	12	7.0
인천시 행정부서	5	2.9
자치구 행정부서 및 의회	11	6.4
문화,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및 기관	24	14.0
지역사회 대학 등 학교	2	1.2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21	12.2
기타	17	9.9
합계	172	100.0

### » 사업의 적정 공간범위

- 단체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적절한 공간범위에 대해서 '단체가 활동하는 동'이 35.7%로 가장 많았고, '단체가 활동하는 동 포함 인접 2개 이상 동'이 32.7%, '단체가 활동하는 자치구 전역'이 28.6%, '기타' 3.1% 순으로 나타났음.
-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서는 단체가 활동하는 동이 사업의 적정 공간범위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밀집지역 등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단체가 활동하는 자치구 전역 또는 인접 2개 이상 동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정 공간범위로 나타났음.

〈표 3-16〉 사업의 적정 공간범위

공간범위	빈도(개)	비율(%)
단체가 활동하는 자치구 전역	28	28.6
단체가 활동하는 동 포함 인접 2개 이상 동	32	32.7
단체가 활동하는 동	35	35.7
기타	3	3.1
합계	98	100.0



〈그림 3-15〉 사업의 적정 공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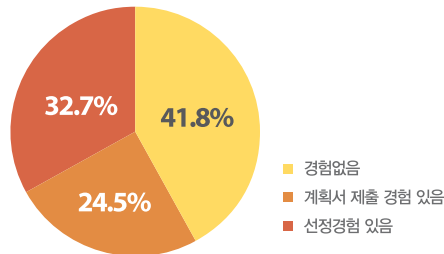


» 사업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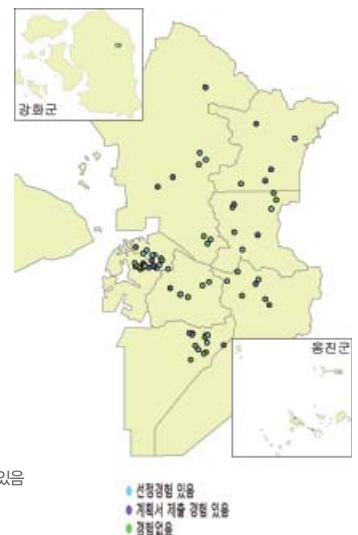
- 응답단체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단체는 58.2%로 나타났다.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 중 계획서 제출 경험이 있는 단체가 24.5%,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에 선정 경험이 있는 단체가 32.7%로 나타났다.
- 전체 조사 대상 중 중구와 연수구의 마을공동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의 경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경험이 있거나 선정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마을공동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작은 도서관 등 도서관 활동을 위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

〈표 3-17〉 사업 참여경험

사업 참여경험	빈도(개)	비율(%)
경험없음	41	41.8
계획서 제출 경험 있음	24	24.5
선정 경험 있음	32	32.7
결측값	1	1.0
합계	98	100.0



〈그림 3-16〉 사업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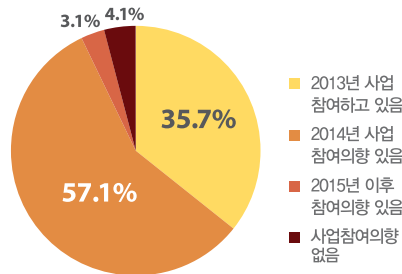
» 사업 참여의향

- 응답단체 중 2013년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35.7%로 나타났고, 2014년 사업에 대해 참여의향이 있는 단체가 57.1%, 2015년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단체가 3.1%로 나타났고, 사업 참여의향이 없는 단체가 4.1%로 나타났음.
- 즉,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지원사업에 공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 참여의향의 경우 공동체 활동을 2010년도 이후 시작한 단체가 상대적으로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8〉 사업 참여의향

사업 참여의향	빈도(개)	비율(%)
사업 참여의향 없음	4	4.1
2013년 사업 참여하고 있음	35	35.7
2014년 사업 참여의향 있음	56	57.1
2015년 이후 사업 참여 의향 있음	3	3.1
합계	98	100.0

〈그림 3-17〉 사업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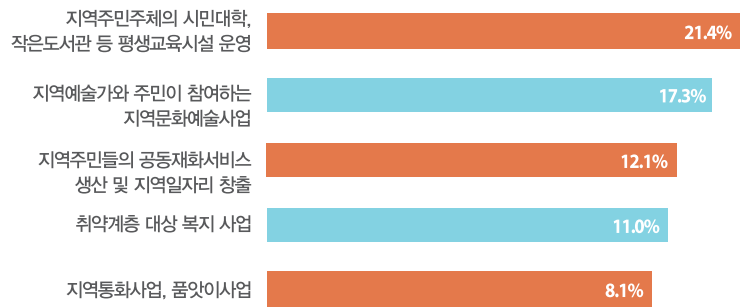


### » 희망 사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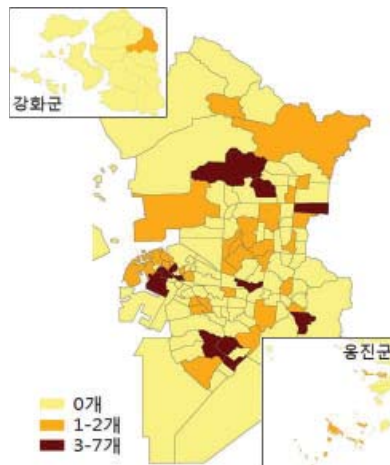
- 단체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시 희망사업 분야로 '지역주민 주체의 시민대학, 작은도서관 등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21.4%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 사업'이 17.3%, '지역주민들의 공동 재화서비스 생산 및 지역일자리 창출'이 12.1%, '취약계층 대상 복지 사업'이 11.0%, '공동육아, 돌봄사업'과 '지역통화사업, 품앗이 사업'이 각각 8.1%, '환경, 에너지 관련사업'이 6.9%, '도시텃밭 사업'이 4.0%, '주택, 공원 등 지역기반시설 공동정비 사업'이 3.5%로 나타났다.
- 희망사업 분야로 경제사업이 전체적으로 높게 희망되고 있음. 교육사업의 경우 중구, 남구, 남동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사업은 중구와 연수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사업의 경우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반사업의 경우 동구와 연수구에서 높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공동체가 희망하는 사업 분야 중 교육, 문화, 돌봄 등에서는 마을공동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대표사업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3-19〉 희망 사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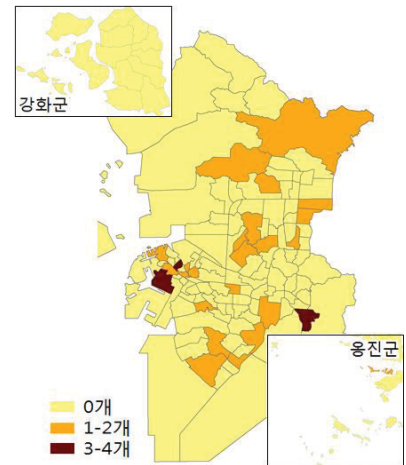
희망 사업분야	빈도(개)	비율(%)
지역주민들의 공동재화서비스 생산 및 지역일자리 창출	21	12.1
지역주민주체의 시민대학, 작은도서관 등 평생교육시설 운영	37	21.4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 사업	30	17.3
취약계층 대상 복지 사업	19	11.0
공동육아, 돌봄 사업	14	8.1
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12	6.9
도시텃밭 사업	7	4.0
지역통화사업, 품앗이 사업	14	8.1
주택, 공원 등 지역기반시설 공동정비 사업	6	3.5
기타	13	7.5
합계	1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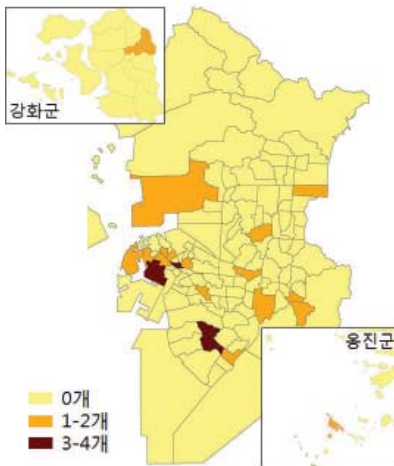
〈그림 3-18〉 희망사업 : 경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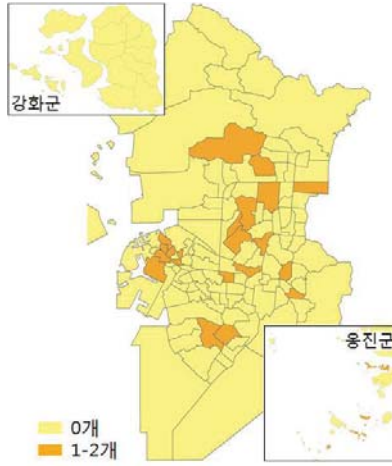
〈그림 3-19〉 희망사업 :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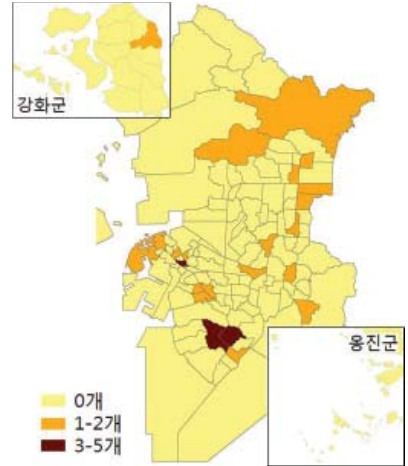
〈그림 3-20〉 희망사업 : 문화사업



〈그림 3-21〉 희망사업 : 돌봄사업



〈그림 3-22〉 희망사업 : 기반사업



- 사업 참여의향과 희망 사업 분야로 볼 때,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험이 있는 단체와 경험이 없는 단체 간의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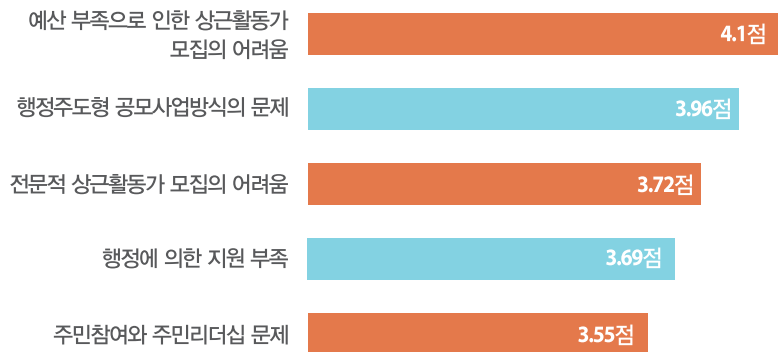
#### » 애로사항

-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 사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예산 부족으로 인한 상근 활동가 모집의 어려움'이 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정주도형 공모사업방식의 문제'가 3.96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그밖에 '전문적 상근활동가 모집의 어려움', '행정에 의한 지원 부족', '주민참여와 주민리더십 문제', '행정과의 소통 부족' 등의 애로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 상근가 관련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예산 부족 문제와 전문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상근가 문제를 조명하였음. 이에 따르면, 예산 문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더불어 행정주도형 공모방식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유연한 사업 추진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장 필요한 사업은 주민에 대한 교육과 재정 지원으로 파악됨.

〈표 3-20〉 애로사항

애로사항	애로사항 수준별 비율(%)					애로수준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마을공동체 목표의 모호	13.8	29.8	25.5	22.3	8.5	2.76
주민참여와 주민리더십 문제	2.1	15.6	22.9	43.8	15.6	3.55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단체의 지식과 노하우 부족	2.1	35.8	37.9	20.0	4.2	2.85
지역사회에서 연대할 단체의 부족	11.5	33.3	30.2	24.0	1.0	2.70
행정과의 소통 부족	2.1	15.6	31.3	30.2	20.8	3.52
행정주도형 공모사업방식의 문제	0.0	4.2	23.2	41.1	31.6	3.96
행정에 의한 지원 부족	0.0	10.5	26.3	43.2	20.0	3.69
민간에 의한 지원 부족	0.0	9.8	38.0	37.0	15.2	3.43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거공동체 해체	5.8	22.1	23.3	24.4	24.4	3.11
예산 부족으로 인한 상근활동가 모집의 어려움	2.2	7.6	8.7	32.6	48.9	4.10
전문적 상근활동가 모집의 어려움	1.1	13.0	23.9	28.3	33.7	3.72
회계·정산문제	8.6	31.2	26.9	18.3	15.1	2.97

※ 전혀 어렵지 않음 = 1, 어렵지 않음 = 2, 보통 = 3, 조금어려움 = 4, 매우 어려움 = 5



» 기타 애로사항

■ 활동주체간 소통

- 마을은 넓고 마을공동체 문화에 관심 있는 개인, 단체가 있으나 연대의 판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정치, 경제, 사회적 의식을 벗어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인식 및 계획을 공유하고 타협하며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인천에는 많은 활동가들이 각각 마을공동체 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문제 의식에 대하여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장의 마련이 없는 것이 현실임. 즉, 활동가 간의 소통 및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있었음.
-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마을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인만큼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정치인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단체 등 기존 조직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함.

■ 주민의 의식 개선을 통한 주민주체화 및 참여

-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함. 깨끗한 동네 만들기 등 환경 조성 사업이 있으나 이 역시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가 이끌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과의 화합으로 밝고 명량한 분위기를 만들고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벽을 허물고 격이 없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당을 만들고자 하나 주민의 인식이 아직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절대적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필요함.
-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하는, 즉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주민참여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도 존재함.

■ 예산 및 인력 지원

- 상근활동가에 대한 어려움은 많은 마을공동체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마을공동체에서는 담당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회계 및 집행 담당자 1인에 대해서 반상근 정도의 인건비 책정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지적함.
-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유지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나 이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예산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마을의 물적·인적 자원을 끌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 민관 네트워크교류가 원활하지 못함도 또 하나의 어려운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음. 현재 운영되어 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원활한 소통 구조 마련을 위한 시스템 변화에 새로운 시도들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가 시급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지역 사업의 변화하고 행정의 참여도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공모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절차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산편성 지침이 행정 편의적 성격이 강한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민관 소통을 매개하는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함.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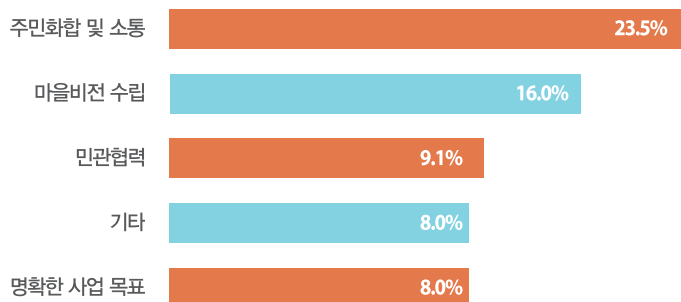
- 마을의 의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통계와 자료의 부족이 현실임. 자료와 정보의 개발과 축적이 필요함.
- 지속적인 주민 교육과 학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중요 요소**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민 화합 및 소통’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을비전 수립’이 16.0%, ‘민관협력’이 9.1% 순으로 나타났음. 그밖에 ‘주민 학습 및 교육’, ‘준비된 마을 리더’, ‘안정된 운영 방안’ 등이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음.

〈표 3-21〉 중요 요소(복수응답)

중요 요소	빈도(개)	비율(%)
준비된 마을	3	1.6
준비된 마을 리더	12	6.4
마을비전 수립	30	16.0
주민 학습 및 교육	13	7.0
주민 참여	6	3.2
주민 화합 및 소통	44	23.5
명확한 사업 목표	15	8.0
적절한 설계 및 목표	9	4.8
안정된 운영방안	12	6.4
투명한 사업전개	6	3.2
사업의 자립성 및 지속성	2	1.1
예산	3	1.6
민관협력	17	9.1
기타	15	8.0
합계	18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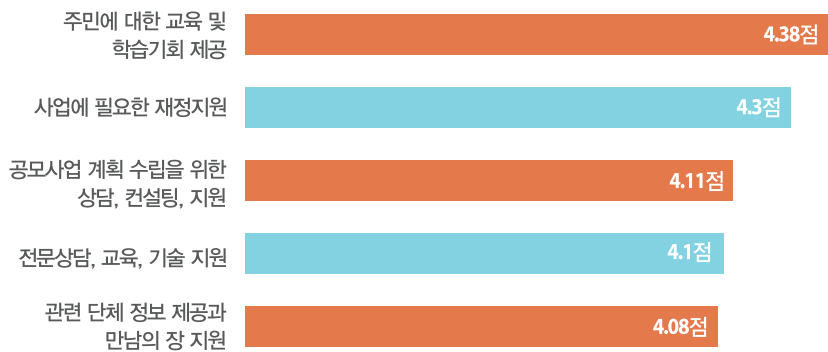
» **필요지원사업**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 예비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학습기회 제공’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4.30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그 밖에 ‘공모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등 사업별 필요 전문상담 · 교육 · 기술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대사업을 위한 관련 단체 정보 제공과 만남의 장 지원’ 등의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사업 수요는 앞서 정책 동향에서의 시사점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로서 인천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교육과 학습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음.

〈표 3-22〉 필요지원사업

필요지원사업	필요지원사업 수준별 비율(%)					필요수준
	전혀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주민들에게 단체활동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와 행사기획	2.0	1.0	23.5	49.0	24.5	3.93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상담과 지원	1.0	2.0	27.6	41.8	27.6	3.93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대사업을 위한 관련 단체 정보 제공과 만남의 장 지원	0.0	1.0	17.5	49.5	32.0	4.08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1.0	1.0	15.3	32.7	50.0	4.30
지역사회 내 예비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학습기회 제공	1.0	0.0	2.1	49.5	47.4	4.38
단체 회원 리더십 교육과 연수 지원	2.1	3.1	19.6	44.3	30.9	3.95
공모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컨설팅, 지원	0.0	3.1	15.5	48.5	33.0	4.11
공모사업 등 사업별 필요 전문상담·교육·기술 지원	0.0	1.0	21.6	43.3	34.0	4.10
회계·정산 교육지원	0.0	1.0	30.9	45.4	22.7	3.90

※ 전혀 어렵지 않음 = 1, 어렵지 않음 = 2, 보통 = 3, 조금어려움 = 4, 매우 어려움 = 5



» 기타 필요사항

-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의견과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무원들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해 향상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 마을활동가의 수요에 대한 의견들이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에 많이 도출되었음. 즉, 마을활동가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 사업비에서의 활동비 지원, 활동가 지원 시스템 구축, 소통을 위한 시간 마련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의 컨설팅을 위한 협의체(센터) 구성의 필요성, 국내·외 사례집 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공동체 사업의 지속력 마련, 교육 관련 강사 지원 등 의견들이 추가적으로 언급되었음.

#### 4) 분석에 따른 시사점

##### »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주체 역량과 기반 확인

- 본 분석을 통하여 인천 관내 모든 마을공동체가 조사된 것은 아님을 밝히는 바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98개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인천 관내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 주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
- 또한, 각각의 활동 주체들이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하여 역량이 있음과 지역 기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 지역내 마을단위 활동 주체들의 독자적 정체성 및 특성, 수행의지와 역량을 감안한 지원체계 필요

- 분석 결과를 볼 때, 마을 단위 활동 주체들이 다양한 유형을 취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로서 그 활동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곳도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각 마을단위 활동 주체들의 특성과 역량을 감안한 공공 측면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 사업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단순한 비용을 넘어서는 교육 등 다면적 지원 병행 필요

- 사업 수이나 애로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1년 단위의 공적 지원 체계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정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주민에 대한 교육과 학습 필요성 등이 많이 노출된 만큼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이 아닌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및 기회 제공, 네트워크 구축 등 다면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지역 내외의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나 활동가들과의 다양한 결합 및 협력, 지원, 자문 체계 필요

- 수요 조사 결과로 볼 때 전문성과 상담 및 컨설팅,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함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의 전담조직이나 중간 지원조직이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간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내외의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나 활동가들과 마을 공동체 활동 간 결합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결합 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협력과 지원, 자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공동체 지원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 이번 수요 조사 결과로 보면, 많은 단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공동체이며, 지원 사업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공동체 사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신규 단체 들에 대하여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의 마을공동체 지원제도 마련

- 수요 조사 결과로 볼 때, 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측됨. 그리고 이미 인천 지역 내 마을공동체 활동이 존재한 것을 확인한 바 있음.
- 따라서 현재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의 마을공동체 지원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IV.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비전 및 전략

1. 기본계획의 개념
2. 비전과 가치
3. SWOT 분석과 도출 전략
4. 5대 마을공동체 전략의 의미
5. 전략별 사업 내용

## IV.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비전 및 전략

### 1. 기본계획의 개념

####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 사람(주민)-마을-공동체

- 주민: 해당 지역에 주소를 가지거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곳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마을(town):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 공동체(community):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복수 사람에 의한 같은 지역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한 모임

#### »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마을 공동체

-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좋은 마을을 만들어낸다는 지원 조례의 취지 공유

#### »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원칙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원칙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원칙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원칙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원칙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 지향

#### »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가치

- 신뢰: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주민 간 신뢰 형성이 기반이 됨
- 지속가능: 환경과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하는 동시에 주민이 주도가 되는 지속 가능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
- 공생: 주민간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간 신뢰와 협력,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에 기반한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감을 의미

## 2. 비전과 가치

### » 조사 결과에 나타난 핵심키워드 도출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비전 및 미션 수립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민(neighborhood), **공동체(community)**, 비전(vision), 사람(human), 신뢰(trust), 건강(healthy), 관계(relationship), 공간(space), 경제(economy), **나눔(share)**, 기쁨(happy) **네트워크(network)**, 더불어(together), 되살림(revival), 이야기(story), 동네(town), 또다른 새마을 운동(alternative saemaeul campaign), 미래(future), 문화(culture), 사회(society), **예술(art)**, 의제(agenda),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회복(recovery), 민주주의(democracy), 돌봄·배려(care), **복지(welfare)**, 비전(vision), 방향(direction), 의제(agenda), 배움(learning), **소통(communication)**, 생태(ecology), 실천(practice), 살맛나는(worth living), 사회자본(social capital), 성평등(equal right), 성장(growth), **우리(we)**, 일상(daily life), 안전(safe), 열린(open), 이상(ideal), 웃음(laugh), 유쾌(joy), **공감(sympathy)**, 울림(sound), **어울림(suitable)**, 정체성(identity), 자치(autonomy), 지속가능(sustainable), 자발적(voluntary), 존중(respect), 참여(participation), 주체(independence), 운영(operation), 필요(need), 재미(fun), **자리매김(settling down)**, 자각(awakening), 시민의식(citizenship), 교육(education), 강화(reinforce), 자연(nature), 치유(healing), 토론(discussion), **통합(integration)**, 플랫폼(platform), 협력(partnership), 희망(hope, wish), 향기(fragrance), **화합(harmony)**

» 인천시 2014 비전 및 2025 도시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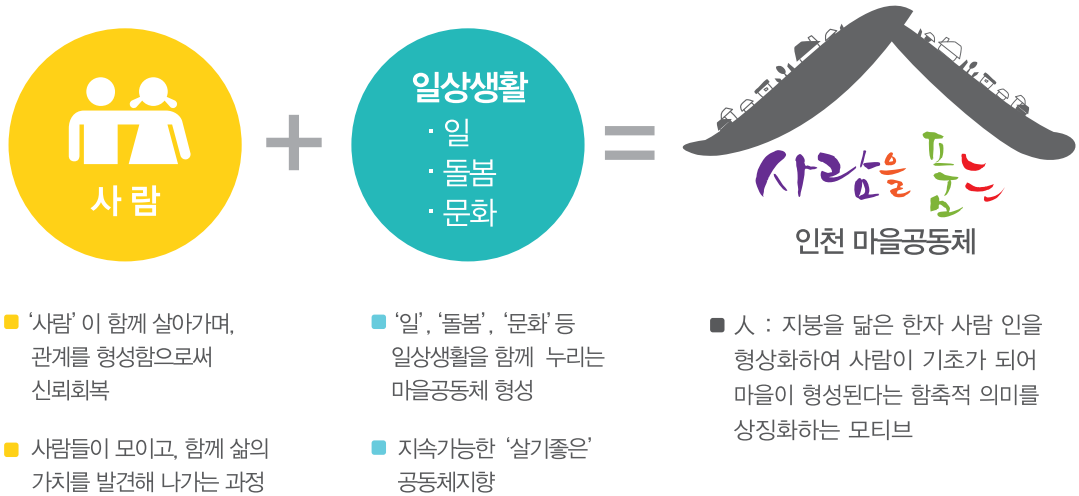
- 인천시 2014 비전 및 2025 도시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가치는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소통과 융합, 열정과 도전, 균형과 상생, 교육,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청년일자리, 사람, 공항과 항만, 산업기반, itez, 미개발지,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창조적 문화도시,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도시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비전

- 위 도출된 가치를 볼 때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함.
- 사람이 “일상생활”을 함께 누리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체를 지향함을 담고 있음.
- 위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비전은 다음과 같음.

〈그림 4-1〉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비전



“사랑을 품는 인천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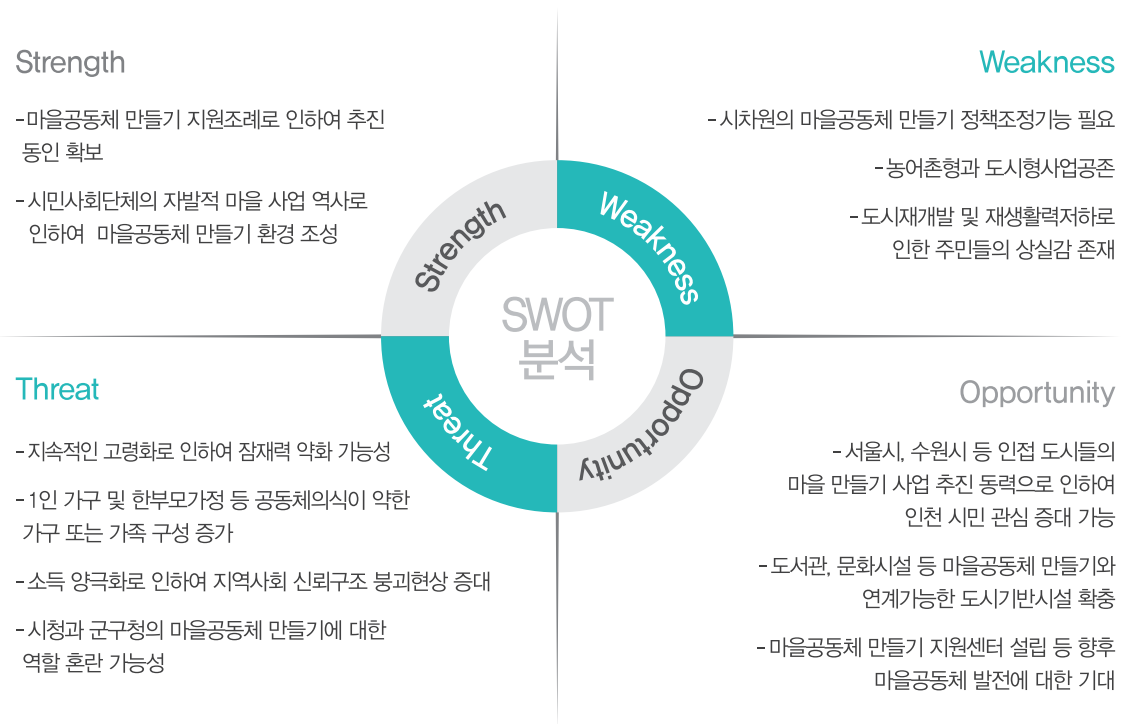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의 가치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의 가치는 지원조례의 가치를 공유함.
-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공동체를 지향함.
- 이러한 “일”, “돌봄”, “문화(또는 여가)”를 함께 누리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삶의 가치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비전에서 표현하고자 함.

### 3. SWOT 분석과 도출 전략

- 인천에서는 지역별로 자생적인 마을사업의 역사가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사업들 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공의 지원이 부족했음.
- 그러나 주변 도시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공동체 관련 정책이 만들어짐으로써 사업 추진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따라서 시 차원에서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 사업간 조정 기능 마련이 필요함.
- 고령화와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황 개선을 기 대할 수 있음.

〈표 4-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SWOT 요소



#### »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략

- SWOT 분석을 통하여 인천시 내부의 실국간 정책간 조정 기능과 중앙정부 및 시군구간 관련 사업들을 종합화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며, 물리적 재생사업 과 교육 등의 경제사회적 사업을 연계하는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 사업 수행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기존의 사업들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일과 돌봄, 문화적 역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개발과 기반 조성,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일과, 돌봄, 문화 관련 전략 과제 도출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적 환경 조성, 관계 형성과 조직화 등을 함께 하는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이에 따라 5대 마을공동체 전략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일”과 “일자리”등을 중심으로 하는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
  - “복지”, “지역공동체의식 제고”, “프로그램 중심 사업”을 연계하는 “함께 돌보는 마을공동체”
  - “물리적 재생”, “환경 조성”등을 목표로 하는 “함께 가꾸는 마을공동체”
  - “프로그램 중심 사업”과 “공동체 정체성”및 “공동체 의식”을 연계하는 “함께 즐기는 마을공동체”
  - 자발적 사업 활력과 정책 조정, 사업 패키지화를 연계하는 “함께 배우는 마을공동체”

〈그림 4-2〉 SWOT 분석결과에 따른 전략과제 도출

##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방향

실국간 종합화와 정책 조정 기능 강화

중앙정부, 시, 군구와의 사업 패키지화

물리적 사업과 프로그램형 사업 연계

자발적 사업 활력과 공공지원 연계

지역사회 복지기능과 마을공동체사업 연계 전략 개발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 긍정적 영향 기대

마을공동체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제고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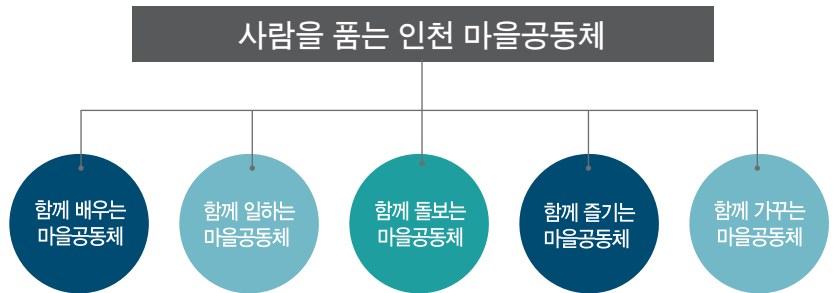


## 5대 전략과제



## 4. 5대 마을공동체 전략의 의미

〈그림 4-3〉비전 및 5대 전략



## » 함께 배우는 마을공동체

- 함께 배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아래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 지원 사업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학습 과정을 의미
- 즉, 일, 돌봄, 문화(또는 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일꾼 육성과 활동지원, 교육과 학습, 네트워크 구축, 자원 지원 등을 의미
-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와 기관에 대한 제 지원 사업과 이러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학습체제와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교육 및 학습 체제와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공동 노력을 의미

## »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

-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란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
-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마을 내에서의 마을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 » 함께 돌보는 마을공동체

- 함께 돌보는 마을공동체란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
- 마을 내 주민들이 함께 돌봄을 지향함으로써 마을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
-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육성할 수 있는 제 지원을 포함

## » 함께 즐기는 마을공동체

- 함께 즐기는 마을공동체란 마을의 문화와 예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

- 함께 즐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마을의 정주의식이 높아질 수 있음
-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교육 사업 등도 함께 즐기는 마을공동체 사업 범주에 포함

» 함께 가꾸는 마을공동체

- 함께 가꾸는 마을공동체란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마을환경을 전반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
- 마을환경을 전반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한다는 의미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환경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도 포함하며, 마을 주민들의 의·식·주에 있어서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
- 마을공동체의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발굴하고, 이를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와 기관들에게 이러한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가꾸는 마을공동체 사업 범주에 포함

5. 전략별 사업 내용

- 아래의 전략별 사업 내용은 “일”“돌봄”“문화”세 가지 분야와 물리적 기반 조성과 인적 역량 강화라는 5가지 분야를 유형화 함.
- 아래에서의 사업들은 예시적 성격이 있음
  - 물리적 기반 조성 과 인적 역량 강화 외의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성격임. 따라서 아래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전략과제1 :

함께 배우는 마을 공동체

-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 지원 활동으로 마을일꾼 육성과 마을 공동체 활동지원
- 교육과 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사업

- 함께 배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제 지원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을일꾼 육성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사업을 의미



### »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교육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아직 주민들의 이해가 높은 편이 아님. 주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임.
-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교육체계 구축은 가장 필요한 사업임.
- 인문학 강좌를 포함하여 인천형 마을공동체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찾아가는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도 있음.
-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에 이러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도 있음. 또한, 이러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 문화공간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에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마을 활동가 육성

- 동네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간조직의 활성화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끌거나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마을활동가가 있어야 함.
-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론적 부분 뿐만 아니라 마을 현장을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을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고급(뿌리형, 피울형, 맺을형)으로 단계별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마을 활동가는 청년 창업 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으며, 각 공동체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마을 활동가는 마을 자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원들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하며, 물리적 또는 정서적인 지원도 병행할 필요
  - 또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하여 컨설팅이나 상담을 하는 역할 수행
- 마을활동가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음. 따라서 건강한 마을활동가를 육성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교육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교육하며, 현장에 파견하는 일련의 과정임. 다만, 교육과정을 통하여 네트워크가 보다 공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인천형 민관학 파트너십 제고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 역량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는 활동가를 육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됨



- 일반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서 네트워크는 시민사회로 대표되는 민과 공무원 조직으로 대표되는 관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나 인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는 여기에 더불어 대학으로 대표되는 “학(學)을 추가
- 즉, 민관학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여야 함.
-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또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교육이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음. 그러나 본 계획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공무원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을과 인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계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포함. 이외에도 시민사회나 마을활동가, 대학의 참여 대학생에 대한 교육도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 전단계로서 필요조건임.
  -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지식에 대하여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가 전문가일 수 없음.
  - 따라서 적절한 전문가나 활동가, 필요 자원을 매칭시켜 주는 것은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효과적임.
- 또한 주요 주체들 간의 건강한 소통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매우 필요한 활동임. 이를 위해서는 유사 주체들 간 또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함께 하는 활동들이 필요함. 이른바 활동가 간의 워크숍 또는 1개 마을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활동가·공무원들의 모임 등은 집단지식을 통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함.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전략과제2 :

## 함께 일하는 마을 공동체

-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육성
- 특히, 마을 내에서의 청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란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마을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즉, 마을 내에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하며,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유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마을 구성원을 경제 순환구조의 구성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
  - 마을 공간을 통한 마을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지원하는 것
- 아래의 사업들은 예시적 사업이며, 창의적 확장에 의하여 마을 내에서의 “노동” 또는 “경제”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도 포함됨.

### » 마을공동체 작은 기업 지원

-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활동들이 사업화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컨설팅과 교육, 자원 등을 지원
- 마을공동체의 작은 기업들은 1차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자본을 출자하는 것이지만, 교육이나 컨설팅 등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작은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보다 줄일 수 있음. 이들 작은 기업들의 단계에 따라 교육을 지원하거나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자원을 지원 가능
- 이러한 마을공동체 작은 기업은 3가지 단계에 따라 지원 가능함
  - 뿌릴형: 가장 낮은 단계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씨앗 또는 새싹형으로 불림. 초기 단계로 기업이라기보다는 창업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미함.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연간 200만원 내의 지원과 기타 교육 활동 지원
  - 피울형: 뿌릴형을 평가하여 피울형으로 평가되거나, 뿌릴형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창업화 초기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연간 200-500만원 이내의 지원과 창업 컨설팅 활동 지원
  - 맺을형: 기존의 활동을 평가하여 맺을형에 가깝다고 평가되거나, 지원센터의 평가에 의하여 맺을형에 걸맞는 단체에 대하여 창업 이후 사업 창업 이후의 초기단계 지원. 500만원 이상의 지원과 창업 지속가능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타 사업(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 지원



- 마을공동체의 작은 기업들은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취미 활동을 사업화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사업화하는 것이 가능(예: 퀴트 모임, 바리스타 과정 등).
- 또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형 사회서비스 사업과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여 이를 결합시키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작은 기업으로 발전가능(예: 노인 돌봄 사업, 방과후학교 등)
- 위와 같은 마을공동체의 작은 기업은 처음부터 촘촘히 기획하여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수도 있으며, 마을공동체의 모임들이 발전하여 마을기업으로 육성될 수도 있음.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작은 기업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사업과도 연계될 수도 있음.
  - 마을공동체 작은 기업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는 단계별 공모사업으로 진행
  -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관련 네트워크 사업 진행

#### » 마을 경제의 주체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국가 수준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주요한 이슈인 반면에, 마을 수준에서는 노인 들과 주부만이 있을 뿐 청년들의 활동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
- 청년들의 활동은 마을에 활력을 주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청년들의 활동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제구조도 존재
-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이끌어내는 단위로서 청년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마을 경제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마을 의 자원으로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 단위 개발 필요
- 즉,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뿐 아니라 청년 근로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들이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이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이러한 사업들은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과 연계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이며 창의적인 형태의 청년 창업으로 발전될 수도 있음.
- 다른 사업들에 대하여 청년들이 마을활동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도 가능. 창의적인 형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 자금, 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다른 창업 컨설팅과 연계
  - 마을활동가나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과 연계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가능
  - 타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 진행

#### » 공유형 마을경제 순환구조 지원

-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 수요와 공급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
  - 마을 내에서 마을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을로서 마을에 대한 정 주성을 높이는데 중요함.



- 이러한 경제 구조 하에 사업의 매개로서 마을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화폐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위와 같은 사업의 일환임. 이러한 형태는 향후 협동조합으로의 발전 가능.
- 마을화폐 사업은 이른바 “에코머니(eco money)”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 에코머니란 마을 내에서 지속가능한 생태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적 비용을 화폐화하여 다른 소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을 내에서의 생태적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데도 도움이 됨
- 마을화폐 사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고민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함.
  - 마을화폐 사업, 공유경제 형의 바자 사업, 물품교환 사업 등
  - 에코머니와 연계한 사업
  - 아파트 에너지자립 관련 사업 연계 가능
- 공유형 마을경제 순환구조 지원 사업 역시 마을이나 아파트 단위별 공모사업 가능. 공모사업 추진시 교육 연계





» 전략과제 3 :

## 함께 돌보는 마을 공동체

- 마을 내 취약계층,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하여 배려를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 공동체 형성을 통한 돌봄의 보편화 지향, 신체적 돌봄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돌봄 실현

- 함께 돌보는 마을공동체란 마을 내에서 1차적으로는 취약계층,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하여 배려를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미
- 보다 광의적 의미로는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돌봄의 보편화를 지향하자는 것임
  - 즉, 마을 내에서의 삶에서 공동체를 통한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또는 정서적 돌봄을 실현하고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지역 정체감으로 발현

» 주민이 함께하는 작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 돌봄공동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취약계층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중심으로 함.
- 반면, 주민이 함께하는 작은 마을 사업은 마을 내 공동의 관심 또는 흥미에 따라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 커뮤니티를 만들어냄으로써 정서적 돌봄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보편화 지향
- 서울시의 부모 커뮤니티 사업 등이 이와 유사한 사업이며, 인천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관(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관) 또는 도서관 커뮤니티를 통하여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
- 1차적으로는 하나의 관심사에 따라 마을 커뮤니티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지향하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마을 내 문제와 인식하게 하여 스스로 마을공동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필요
- 보편적 복지와 보다 작은 단위에서의 상호 부조적 관점에서 주민이 주도로 그리고 함께하는 커뮤니티(또는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마을에 대한 정체감을 제고 기대
- 따라서 위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통의 분모를 찾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함. 평생교육 사업이나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등의 동아리 활동과도 연계가 가능함.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작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부임
- 이러한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작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3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공통의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사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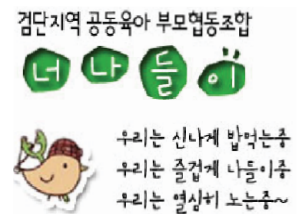


에 대한 최소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공모사업의 경우 교육과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위 사업은 지금까지는 돌봄의 대상이었던 여성, 노인 등이 주도적으로 작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될 필요가 있음. 이들이 자신들만의 공동의 관심과 흥미를 도출하고 이러한 관심과 흥미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작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역시 마을공동체 작은 기업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3 단계로 나누어 지원함.
  - 뿌릴형은 기본 단위를 사람 수로 하되, 초기 단계로 공동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는 단계임
  - 피울형은 사회복지관 등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 지원이 되는 경우, 피울형으로 지정
  - 맺을형은 피울형 사업의 확장 단계로 평가하여 진행
  - 위 유형별 지원액 등은 사업 계획에 따라 컨설팅 후 결정

#### » 돌봄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네트워크 구축

- 돌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필요한 니즈(needs)를 파악하고, 마을 내 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마을 내 취약계층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 대한 마을복지 사업을 전개하는 것임. 즉, 마을 내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자는 프로젝트임.
-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분야의 지원사업과 결합된 형식 가능. 즉, 기존의 공동육아, 노인 돌보미 사업, 취약계층 자활공동체 사업과 마을공동체를 연계
-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적 관점의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 또한, 마을에서 자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내고 그들이 모임을 통하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 돌봄 마을공동체 사업은 타부서의 사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 전략과제 4:

## 함께 즐기는 마을 공동체

- 마을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만든다는 의미로부터 마을의 문화, 전통, 예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의식 제고

- 함께 즐기는 마을공동체사업이란 마을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만든다는 의미로부터 마을의 문화와 예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좀더 거창한 목적을 가지기도 함.

» 작은 마을공동체 문화 지원

- 대부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초기이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도의 문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
  - 이러한 문화 활동은 기존의 마을 동아리 활동을 발전시킨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마을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주민들이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센터에서 전문가를 연계시켜줄 수도 있으며, 마을 단위의 행사와 연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또한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문화 활동들은 지역의 축제와 연계될 수도 있으며,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될 수도 있음. 활동 자체로서 재미를 찾는 것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됨으로써 보다 함께 누릴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가능할 것임.
- 작은 단위에서의 공모사업이 가능하며, 타 사업에서 문화적 분야를 함께 넣어 공모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음.
-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모사업 전후에 교육을 진행하여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축제나 문화 행사 주도보다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가짐.

» 마을 축제나 이벤트에 대한 지원

- 지금까지 마을 축제나 이벤트는 관 주도적 또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문화 만들기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문화 활동을 하는 것과 이를 마을문화와 연계시키는 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마을 축제나 이벤트 활동에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의미



- 가장 큰 마을 축제나 이벤트라고 한다면 인천시 차원에서의 마을공동체 축제 또는 박람회라고 할 수 있음(예: 서울 마을공동체 박람회, 수원마을만들기 박람회 등). 이러한 활동에도 마을에서 하는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스(booth)를 마련하거나 전시나 공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기존의 마을축제나 이벤트가 마을사람들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을 개입시키고,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임. 이 사업은 앞 사업과는 달리 기존의 마을 축제나 이벤트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문화 만들기는 주민들이 마을 문화를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서부터 마을 문화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제 과정에서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고 이러한 장으로 축제나 이벤트 활동으로 연계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 여기서 마을 축제나 이벤트는 반드시 동 단위 등의 행정적 단위일 필요는 없음.
  - 아파트공동체 중심의 이벤트도 이러한 마을공동체 문화 활동에 포함됨.
  - 학교 중심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 이벤트는 단순히 공연이나 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의 베품시장 활동 등도 이러한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
- 사업을 정의하고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모두 마을 주민들의 주도적 활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센터나 행정은 컨설팅이나 교육, 전문가 연계 등에 대하여 지원가능
-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네트워크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함.





» 전략과제 5:

## 함께 가꾸는 마을 공동체

- 마을 내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시설을 미화하며 마을 내 함께 활용가능한 마을공간 등을 찾아보는 과정

- 함께 가꾸는 마을공동체에서의 사업들은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이러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사업들을 포괄

» 마을공동체를 위한 작은 마을공간 조성 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
  - 이러한 “공간”은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목적 성격으로 활용되어야 함.
  - 따라서 기존의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다목적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마을공동체 내에 이러한 공간이 전혀 없다면, 주민들이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기존의 공공 시설물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민간 시설물 중 일부 공간을 임대 가능
  - 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주민과 전문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간의 협의 선행
-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내의 회의실이나 틈새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마을 내 작은 도서관이나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회의실이나 틈새 공간들 활용
-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DB화되어 공동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등을 갖추는 것도 가능. 이러한 예약시스템 사업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 사업으로 추진(예: 서울 청소년 휴카페 사례)
- 필요 공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나 타 사업(원도심 관련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진행
- 전체적으로 필요 공간에 대하여 동일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네이밍 필요(예: 휴카페, 행복센터 등)
- 함께 가꾸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마을공간 조성 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과 하나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첫째, 기존 공공기관 등의 회의실이나 사업 활용 가능 공간에 대한 개방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접근임. 둘째,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것임. 셋째, 이러한 공유 공간이 전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새롭게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타 사업과의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는 DB화 하는 작업을 통하여 인천 시민의 전체의 공유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사업을 전개하는 것임.

### » 안심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현 정부에서는 마을 안심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 추진
  - 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 안심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를 통하여 마을 내에서 4대악을 근절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마을 내 학생들이 주도로 참여하는 청소년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전문가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
- 이에 대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모하는 과정에 지원 및 컨설팅 필요
- 부모 커뮤니티 등이 함께하는 마을 공간 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건강한 먹거리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이러한 사업들은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안행부의 착한가게 사업을 연계 가능
-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에 대한 절감으로 연계 가능. 왜냐하면 건강한 먹거리는 지역내 생산물을 이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며, 지역내 먹거리의 순환은 궁극적으로 식재료의 이동거리를 축소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사업 취지에 대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인지하고 필요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컨설팅 진행 필요

### » 원도심 관련 사업 및 주거환경 관리사업

- 원도심 마을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 특히, 재개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을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가능함.
- 다만, 위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학습 사업에서 적절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V. 마을공동체 교육과 학습

1. 교육과 학습 원칙
2. 교육과 학습 추진방향
3. 교육과 학습 추진방안
4. 단계별 교육과 학습사업



## V. 마을공동체 교육과 학습



-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특정한 사업을 통해 실천되어짐. 실천 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목표 지향을 가질 수 있다는 기쁨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능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
- 이러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받고, 긍정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과정임.
- 단순히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함께 체험하고 공동체 관계망을 통하여 스스로 알아나가는 과정으로서 교육과 학습 과정을 만들어어나가는 것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과 학습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자체와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동기와 의지를 부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의의임.

### 1. 교육과 학습 원칙

#### »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가장 중심적 요소로서 교육과 학습을 강조한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없는 곳에서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고, 마을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보다 건강한 마을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추구함.
-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가 없는 곳에서는 교육의 결과에 따라 주민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파악된 주민 수요는 마을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연계됨. 마을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과정에 교육과 학습을 연계시킴으로써 마을공동체를 보다 공고히 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는 모든 과정과 유형에 있어서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마을의 성장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 모든 지원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은 우선적으로 교육과 학습을 연계시킨다

- 지원사업(또는 공모사업) 전후 단계에 교육과 학습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음.
- 교육과 학습 과정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며, 사람들이 모여 지속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함.

»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고려한다

- 현재 인천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단위에서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이들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은 연 1-2회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 이들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마을공동체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주민주도적 학습과 주민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근의 교육과 학습 방향은 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임. 즉,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쌍방적인 토론을 통한 학습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마을공동체 교육과 학습 역시 주민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 수단을 다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마을마다 현황과 상황이 다르므로, 각 마을에 따른 형편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2. 교육과 학습 추진방향

» 지원사업 또는 네트워크 사업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사업 중 공모사업은 뿌릴형, 피울형, 맺을형의 3단계로 운영될 것임. 이러한 3단계 운영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 교육은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공모사업 대상 교육으로서 회계교육 등은 필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교육과 학습 방법을 활용하되, 각각의 단계는 서로 연관되어 기획되어야 함. 예를 들어 공동체 조사 및 현장탐방은 피울형의 마을의제 수립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실행기업이나 실습 결과는 향후 마을코디 및 마을리더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 교육과 학습 단계별 추진방향



- 이외에도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전문영역별 교육도 기획될 필요가 있음.

〈표 5-1〉 주체별 단계별 교육과 학습 운영체계

	뿌리형	피울형	맺을형	비고
주민(공동주택, 저층주거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능지역)	- 주민조직 형성을 위한 기본 소양/정책 이해 - 공동체 조사/현장탐방	- 마을의제 수립 등 실행기법/실습 - 집담회/ 교류학습/발표회/분임토의 등	지속적 주민조직 유지를 위한 마을코디/마을리더 교육 연계	찾아가는 교육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사전단계로서 교육 수료: 회계교육 등
마을코디/마을리더/마을활동가	기본 소양/정책이해/갈등관리/집담회		마을활동가 양성 상설대학 지향	전문영역별 교육·협동조합, 마을기업, 주민참여예산제 등
공무원/전문가	기본소양/마을이해/심포지움/세미나/간담회/타운미팅 민관학 합동교육			

» 주민, 활동가, 마을코디, 공무원, 전문가 등 주체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과 학습 대상인 주민, 마을코디 등 활동주체, 공무원 등 지원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함.
- 주민 대상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은 마을 의제에 집중화하여 특화될 필요가 있으며, 마을코디 및 마을활동가는 갈등 조정 등의 프로그램이 특화될 필요가 있음. 공무원 및 전문가는 마을을 대상화하여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인 과정은 마을코디과정, 마을공동체학교, 주민자치인문대학으로 운영되며, 각각의 특화된 과정은 마을공동체학교 등에서 세부화되어 운영될 수 있음.
- 대상별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공동 교육과 학습과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학습 초기과정은 대상별 프로그램으로, 발전 프로그램은 공동 과정으로 운영되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지원사업 관련 제반 교육 및 컨설팅과 토론회, 세미나, 박람회에서도 교육 및 학습과 연계시켜 운영하여야 함.

주민주체 만들기 맞춤형 교육과 학습 시스템 구축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모임형성</li> <li>· 마을활동가훈련</li> <li>· 마을의제발굴</li> <li>· 마을디자인</li> </ul>	<b>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마을리더</li> <li>· 마을코디, 활동가</li> <li>· 공무원, 전문가</li> <li>· 민관학 합동교육</li> </ul>
<b>지원 및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코디 과정</li> <li>· 주민자치인문대학</li> <li>· 마을공동체 학교: 찾아가는 마을강좌, 지원사업 학습과정, 기본과정 등</li> </ul>	<b>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관련 제반교육 및 컨설팅</li> <li>· 관련 토론회, 세미나, 박람회</li> </ul>

### » 주입식 보다는 사례 중심의 발표회나 분임토의 등 참여식 교육 지향

- 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대규모 위주의 강의식 프로그램이 대부분임. 강의식 교육은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유용한 방식임. 강의식 프로그램은 지원사업 설명회 등이나 대규모의 주민에 대한 일방적 설명을 필요로 할 때는 필요로 되는 방식임.
- 그러나 최근에는 사례 위주의 발표회나 분임토의를 통해 교육과 학습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평가도 있음.
  - 사례 위주의 발표회는 일방적 개념 교육보다 현장감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동기 부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임. 단순히 사례 위주의 발표회보다는 함께 토론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분임토의의 경우 강의식 교육이 가지는 일방적인 주입식 방식보다 소수의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의제 등을 이끌어낼 때 효과적임. 특히 주민모임 형성을 하는 단계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마을의제를 이끌어낼 때 필요한 방식임.

###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

- 대상에 따라서 일상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교육과 학습이 불가능한 대상이 있음. 또한, 마을 자체가 교육과 학습의 장일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예를 들어, 상인 교육의 경우에는 요구하는 시간대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상 생활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 등 주말을 활용할 수 있음.
- 공동체 조사나 현장 탐방, 실습 등에는 자체 학습지로서의 이동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학교를 통한 교육과 학습 사업의 지속화 필요

-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이 포괄되어 있는 마을공동체학교 등의 마련이 필요함.
- 단계별, 대상별, 지역별, 방법별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이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교육과 학습 전문가가 컨설팅을 통하여 적절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는 총합화된 형태로서 마을공동체학교를 지향함.

### 3. 교육과 학습 추진방안



#### » 교육과 학습의 기획단계의 중요성

- 교육과 학습에서는 기획단계가 매우 중요함. 즉, 교육과 기획단계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뿐만 아니라 효과가 달라짐.
- 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교육과 학습이란 마을주민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안내 하는 활동으로 이 과정을 통해 마을주민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습득



- 교육과 학습의 목적 설정
  -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학습을 기획할 수도 있고, 마을활동을 위한 공동의 요구를 모아내기 위해 교육과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의 요구를 보다 잘 실행하기 위해 교육과 학습을 기획하기도 함.
  - 어떤 목적으로 교육과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 목적에 따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얻을 성과가 다르기에 교육과 학습 목적 설계가 교육기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 주제와 목표 설정

- 교육과 학습의 목적 설정 후 목적에 맞는 주제 확정
- 목적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면 교육과 학습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움.

#### ■ 평가 설계

- 교육과 학습 목표는 구체적인 성과 지점을 지시하는 평가기준임.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평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평가도구를 기획단계에서 설정함.
- 평가를 어떤 차원에서 진행할 것인지 교육과 학습 이전에 설정하고 평가의 방향을 설정해야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음.

### » 마을공동체학교를 통한 교육과 학습 서비스 전달

#### ■ 목적

-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마을만들기 시행을 위한 주민 리더 육성,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인천 마을에 대한 이해 등 전반적인 교육기획 및 전달 서비스 제공
- 마을의제 수립, 마을만들기 실행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등을 교육하여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주민자치 행정 실현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의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공동체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설계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 주요 교육과 학습 내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개념과 주민조직 형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에 대한 인식 향상
- 경제, 문화예술, 생태, 복지 등 다양한 영역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계 방안 이해
- 물리적 환경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 마을기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지역 이슈 발굴과 행동 계획 수립 등

#### ■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예시 1: 찾아가는 마을 강좌

- 교육과 학습 대상: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3인 이상), 정책이해 교육 시 등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 공무원 참석 권장
- 전문가 강의: 4시간, 실습 및 토론: 6시간, 발표: 2시간(총 12시간)
-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전화 상담을 기본으로 함.



-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으로 주 3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각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도 있음.

1주차: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사례 소개  
 2주차: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 사례 소개  
 3주차: 사례 탐방  
 4주차: 우리 마을공동체와 공동체 사업 필요 내용에 대한 토론

-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예시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학습
  - 교육과 학습 대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구성원, 담당 공무원
  - 전문가 강의: 6시간, 실습 및 토론: 10시간 (총 16시간)
  -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으로 주 4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음. 각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도 있음.

**1-2주차:**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교육으로 마을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서부터 공동의 요구를 모아내는 방법, 관계 맺기, 마을파악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전문가 강의와 실습 및 토론 병행)  
**3주차:** 지원사업 분야별 이해(전문가 강의와 실습 및 토론 병행)  
**4주차:** 특정분야의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실무 능력을 키우는 교육, 회계교육, 서류작성법, 기획안 작성법 등(전문가 강의와 실습 및 토론 병행)

-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예시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주민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주민교육의 결과로 모아진 요구에 대하여 지원센터가 사업 기획을 지원함. 지원센터의 컨설팅 하에 주민주도로 이루어진 사업기획안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함.
  - 이 때, 추가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학습을 시행함.
-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예시 4: 마을공동체학교 기본과정
  - 마을공동체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주민
  - 전문가 강의 : 6시간, 실습 : 22시간, 발표 : 2시간 (총 30시간)
  -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 1주차:** 마을살이  
-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시작하기, 사례 소개
- 2주차:** 타 지역 사례 탐방 및 토론
- 3주차:** 동네 한바퀴  
- 마을공동체 1개를 선정하여, 지역의제와 지역 자원 분석, 조사 방법과 분석기법 이해
- 4주차:** 조직화와 의사소통  
- 갈등관리, 회의진행, 조직화 방법 등 교육과 학습
- 5주차:** 기획과 실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 실현방법 찾기, 회계 실습 등

- 이외에도 여성의 경우, 육아나 자녀 교육, 쉼트나 홈코디 등 관심사와 연계된 콘텐츠와 마을살이 교육을 연계하거나,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특화된 전문교육과 연계 가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마을예산학교 교육과도 연계 가능

## » 마을코디과정

- 마을코디 양성과정
  - 대상 : 마을공동체 활동경력 2년 이상 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역할 : 마을만들기 기초 상담,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추진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지원
  - 내용 : 마을만들기 철학,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 대화법 등
- 마을리더 성장 프로그램
  - 대상 :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사업의 대표 활동가 등
  - 교육과 학습 과정은 마을공동체학교 기본과정이나 이의 심화과정으로 진행함.

- 1주차:** 마을살이  
- 마을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일반 이해, 사례 소개
- 2주차:**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
- 3주차:** 사례 탐방과 프로그램 개발  
- 타 시도 사례지 방문 및 분석 평가  
- 의제, 민관거버넌스, 활동주체, 자원활용 등
- 4주차:** 조직화와 의사소통  
- 갈등관리, 회의진행, 조직화 방법 등 교육과 학습
- 5주차:** 기획과 실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 실현방법 찾기, 회계 실습 등

» 주민자치인문대학

- 주민자치인문대학은 마을공동체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인문학을 통하여 마을의 가치와 철학을 탐구하는 과정임.
- 인천 지역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적인 인문학 강좌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높이고자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을의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보다 쉽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음.
-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의 교육과 학습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계 운영되는 교육과 학습 과정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사업

- 마을공동체학교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과정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인 주민센터 공무원 참여가 필수적임.
- 이외에도 일반 공무원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여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을 컨설팅에 참여할 전문가에 대해서도 대학을 통하여 인천 마을에 대한 이해도료를 높이고 주민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단계별 교육과 학습사업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기단계(2014-2015년)에는 직접 주민 대상 교육과 학습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직접적 주민 대상 교육인 찾아가는 마을강좌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학습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 중기단계(2016-2017년)에는 마을리더 성장 프로그램이나 마을코디, 마을활동가 관련 사업 등에 중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무원 연계교육과 전문가 교육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함.
- 최종단계인 3단계(2018년 이후)에는 이상을 투자함. 이 때에는 중간지원조직 교육 등에 집중하고, 직접적 주민 교육은 구 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단계별 교육과 학습 사업과 예산 방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점증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구단위 지원센터들이 설립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임.

〈표 5-2〉 단계별 교육과 학습 사업 추진방안

	1단계 (2014-2015)	2단계 (2016-2017)	3단계 (2018~)
내용	직접 주민 대상 교육, 주민 발굴 및예비 리더 성장을 위한 교육 등에 중점	마을코디 및 리더 교육 등에 중점	중간조직 마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학습체계 강화





## Ⅵ. 지원사업 추진방안

1. 지원사업 원칙
2. 지원사업 추진방향
3. 지원사업 추진방안
4. 공모사업 평가지표 설정
5. 마을공동체 종합발전계획과 마을 의제 수립
6. 단계별 지원사업

## VI. 지원사업 추진방안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 단위의 활동 단위 및 주체들이 저마다 필요로 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공공 분야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사업의 계획 및 활동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해당 주체 및 단위를 대상으로 기획하여 결정하거나 사업 공고 및 신청을 받은 후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됨.
-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며,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며,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목표를 구체화할 수도 있음.
-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인천 또는 인천 지역 내 마을 단위와 활동 주체들의 독자적 정체성 및 특성, 수행 의지와 역량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원사업 체계와 형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1. 지원사업 원칙

#### » 지원사업은 해당 마을 및 사업 주체의 독자적 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해당 마을 및 사업 주체의 독자적 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도 열린 지원 내용과 방식 마련이 필요함.
- 지원사업의 가장 초기적 형태는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 직접 실행하는 주민 주도 사업임. 이러한 주민 주도사업의 경우, 주민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의 준비정도에 맞추어 주민모임 형성, 실행, 마을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행함.
- 따라서 각각의 사업의 형태 및 특성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각각의 형태와 특성에 기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

#### » 다양하고도 열린 지원 내용과 방식을 결합하도록 한다.

- 지원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마을 코디를 신청하면 마을코디가 직접 찾아가서 마을사업 일반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준다는 것임. 아울러 찾아가는 마을 강좌를 통해 마을 공동체 관련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했음. 이러한 상담에 기초하여 다각적 지원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단순히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 보다 열린 방식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함께 고민하여 마을 의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함.
- 또한,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서류 심사 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와 자치구 의견 등 다양한 방식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사업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지원체계를 고민한다.

-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기적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사업의 성공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웃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여 살기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의 단기적 성과 위주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함. 위와 같은 관점에서 지속적 지원사업 및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닌 다각적 지원이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업 비용에 대한 지원과 이에 대한 투명한 정산 과정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 물론 사업 비용에 대한 지원과 투명한 정산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意識을 회복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이는 단순한 비용 지원 문제라기 보다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원일 수 있음. 이외에도 다른 행정적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지원 방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2. 지원사업 추진방향

### » 지원사업 전반에 교육·학습의 밀접한 결합 필요

- 교육·학습과 결합되지 않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행정의 양적 성과 지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마을공동체 주민 역량 강화로는 이어질 수 없음. 그러하기에 지원 사업 전반 과정에 교육과 학습은 밀접히 결합되어야 함.
- 지원사업 자체가 네트워크 및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교육과 학습을 운영할 수도 있음. 즉, 지원사업과 교육과 학습, 네트워크 사업등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이중에서도 지원사업은 교육과 학습과 밀접한 연관이 필요함. 지원사업의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학습체계를 세밀히 구성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 마을사업 초창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에서 주민 모임(커뮤니티) 형성과 발전에 주력 필요

- 마을 사업 초창기에 중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초기 주체들을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함.
- 다양한 주민모임(커뮤니티) 형성과 기획 사업을 위하여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고, 마을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초기 주체가 만들어졌다면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정기 공모사업 역시 초기 단계에는 다양한 주민모임을 형성하기 위한 뿌릴형 사업에 집중하여 이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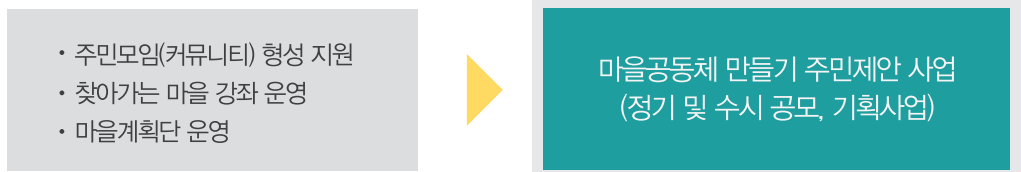
» 지원사업 유형의 다양화와 선정절차의 다면화

- 초창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소 복잡하더라도 지원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선정 절차는 다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외에도 마을 여건이나 상황이 심각하다거나, 주민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모델 개발을 위해 기획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즉, 주민과 전문가, 예술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행정의 연계를 맺어 중·장기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기획 사업으로서 시범사업 운영이 필요함.
- 또한,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서류 검토만을 하는 것이 아닌 현장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기획사업의 경우에는 자치구 의견 조사나 주민 면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다각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지원사업 추진방안

» 지원사업 교육과 학습의 단계별 진행

- 실제로 청년이 없는 마을공동체 사업 주체의 경우 공모 양식 작성부터 무척 애를 먹고 있으며, 이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음. 마을 코디(또는 마을 상담원) 제도를 운영하여, 요청이 있을 시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천의 경우 군구의 중간조직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찾아가는 마을 강좌를 통하여 주민제안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음. 이러한 사업은 수시 공모나 기획사업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교육의 경우 현재 회계 교육 중심의 실무적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의 교육과 학습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가급적 사업 참여자 의무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마을활동가 전문가 교육은 마을공동체학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도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획이 가능함.
- 사례 발표회는 1년 동안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축제와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토론의 장으로 기획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자들에게 자긍심과 새로운 동기 유발의 공간으로 기획하도록 함.

〈표 6-1〉 지원사업 교육·학습 단계

사전 단계	진행 단계	평가 단계
- 찾아가는 마을 강좌(교육) - 마을 코디 운영	- 사업 참여자 교육·학습 (전문가, 공무원 등 포함) - 마을활동가 전문가 교육	- 사례 발표회

» 유형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 기획사업의 경우, 마을계획단을 구성하여 영역별 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기획 사업은 유형별로 지역은 선정될 수 있으며, 대상은 동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다수가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생단체 소속이더라도)을 대상으로 함.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계획 수립 활동을 통해 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민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수립 과정은 「마을별 조사 및 분석 → 비전, 목표 및 지표, 사업 수립 → 마을별 1~2차례 주민 간담회 진행 → 마을 예비 계획 수립」의 과정으로 진행되거나 일반적인 마을 의제 발굴 형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 이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마을계획단으로 마을계획단은 의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점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마을 의제에 집중하게 하며,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을 의미함.
-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할 수도 있으며, 주민모임 등을 통하여 마을 의제화되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 찾아가는 마을강좌 등의 활동도 공모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음. 공모사업 심사는 다각적으로 시행되도록 함.
- 공모 시기는 정기 및 수시 형태로 하되, 정기 공모 시기는 상반기 중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산은 가급적 포괄예산제로 운영하되,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과 학습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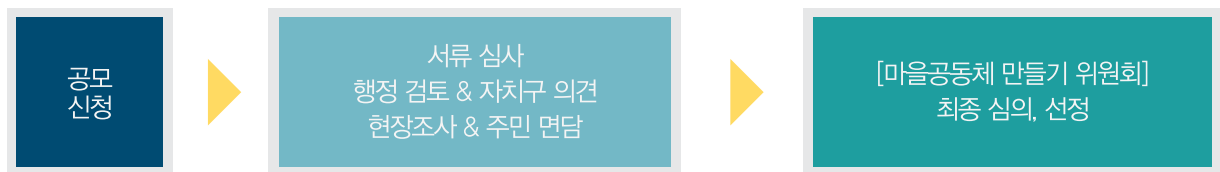
〈표 6-2〉 지원사업 유형 및 내용

구분		사업유형	사업 내용	비고
공모 사업	정기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시설 및 환경개선	우리마을알기, 공동육아, 다문화마을, 부모커뮤니티, 마을기업, 녹색마을, 문화마을, 아파트마을공동체, 청년마을활동, 도시농업, 리폼, 에너지마을, 예술창작소, 시설 및 공간 조성 등	서류심사, 현장 조사, 주민면담, 자치구 의견 청취
	수시	찾아가는 주민강좌 등 통해 발굴 사업		
기획사업		다양한 분야와 특화 영역		영역별 모델 개발 (마을계획단)

- 사업의 내용은 우리마을 알기 등의 마을의제 발굴사업과 공동육아, 다문화마을, 부모커뮤니티 등 돌봄 관련, 마을기업과 청년마을활동, 녹색마을, 도시농업, 에너지마을 등의 일자리 및 생태 관련, 문화마을, 예술창작소 등의 문화 관련, 아파트 마을공동체, 시설 및 공간조성 등의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주가 될 수 있음.

» 유형별 공모사업 운영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모 사업은 일반 공모(정기적)와 수시 공모(기간을 한정하지 않음)로 나누어서 진행하되, 정기 공모는 상반기에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하반기의 경우 사업 집행에 대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 횟수를 한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시 공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기공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선정됨.



- 공모사업은 다음의 3단계로 유형화하여 운영함. 이 3단계는 마을조직의 형성 및 지원 규모와 관련이 있음.
  - 뿌릴형 사업의 경우 마을주민 3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마을공동체의 경우 「찾아가는 마을강좌」 교육과 학습 과정 이수가 필수적임.
  - 피울형 사업의 경우 뿌릴형 사업이 성장하거나 이미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어 마을살이를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실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임.
  - 맺을형 사업 단계에서는 시설 및 공간 조성과 연계되며, 뿌릴형과 피울형이 연계 되는 형태일 수 있음. 마을에 대한 종합적 시각이 형성될 수도 있으며, 이를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표 6-3〉 공모사업 유형 및 내용

구분	목표	주요사업
뿌릴형 (모임형성지원)	마을의 씨앗을 뿌리는 주민모임 구성 마을 및 주민 수요와 의제 발견	우리마을알기,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등
피울형 (실행지원)	마을 및 주민의 수요와 문제 해소 마을살이 실행을 통한 주민조직 형성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 추진	마을 기업,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단계 마을 예술창작소, 청년마을활동, 마을신문, 마을 축제, 청소년 마을교육, 지역화폐 등
맺을형 (마을계획 수립지원)	마을의 뿌릴형과 피울형이 모여 종합적인 마을계획을 수립, 실행 새로운 뿌릴형 발굴	마을 정원, 생태학습장 등 시설 및 공간조성 연계 가능

〈그림 6-1〉 지원사업 단계별 추진방향



- 뿌릴형의 선정 과정은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와 주민 면담으로 보다 단순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음. 왜냐하면, 뿌릴형 사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초창기 또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시행 가능한 모델로 선정 자체에서 어렵게 하기 보다는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사업 공모 시 단체 및 주민주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 추진단계

- 지원사업 추진은 사업 추진 전단계, 진행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되,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음.
- 사전 단계로 매년 지원사업 관련 연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연중 주민모임 형성 지원을 위한 마을강좌를 실시함. 또한, 마을코디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기획을 연중 실시하며,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된 기획사업을 마을계획단을 통해 진행함.
- 상반기 중에 수 회에 걸쳐 정기 공모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주로 수시 공모를 통하여 진행함. 다각적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함. 이후 컨설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교육과 학습을 연계함.
- 평가 단계로 정산을 포함한 결과 보고를 실시하며, 사례 발표회는 홍보와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로도 활용함.

〈표 6-4〉 지원사업 추진단계

사업단계		내용	비고
사전 단계	연간 사업 계획 발표	· 연간사업 계획 및 일정 · 각종 지원 및 협력 시스템 안내	-
	주민모임(커뮤니티) 형성 지원	· 찾아가는 주민 교육	-
	마을계획단	· 마을 코디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제안 사업
진행 단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 사업설명회	정기공모/ 수시공모 사업의 일반적 진행단계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획사업 등은 서류심사 등 일부 단계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신청사업 심의	· 서류 심사	
		· 행정 검토와 자치구 의견	
		· 현장조사와 주민 면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결정	· 사업 참여자 교육	
		· 마을활동가 전문가 교육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진행	· 지원금 지급		
	· 행정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마을 컨설팅		
평가 단계	결과 보고 (추진 실적 & 정산)	· 사례 발표회	차기년도 사업 지원 방향 마련
		· 사업평가	

#### 4. 공모사업 평가지표 설정

##### » 공모사업 평가

- 공모사업 중 사업별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시행함.
  - 이 때 평가지표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며, 평가위원회 구성 역시 담당 부서에 결정하도록 함.
  - 다만, 평가위원회는 5명이나 7명 등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는 서면 평가에 더불어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도 병행될 수 있음.
- 공모사업 전체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또는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분야별 또는 지역별 할당이 필요할 때도 있음. 이러한 할당의 경우, 공모사업 진행시 사업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평가 방법은 담당부서별 평가와 동일함.

### » 공모사업 평가 항목 및 내용

- 다음의 사업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예시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 및 배점은 공모사업 평가 이전에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공모사업 평가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6-5〉 공모사업 평가항목 예시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마을공동체 사업 이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추진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타당한지 여부, 주민이나 마을에 필요한 사업여부	10
	사업의 공익성	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의식의 함양이나 마을 주민들의 공공 이익을 달성하는지 여부	5
	사업의 창의성	사업 컨셉 및 테마 설정의 창의성, 공모 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5
주민참여도		사업 발굴 과정에서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정도, 주민의 의지와 수요의 반영 여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계획의 구체성 여부	40
실현가능성	사업의 구체성	사업 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실시 방법의 구체성 여부	10
	사업수행역량	사업 참여 주체 및 참여 주민의 인적 역량 및 재원투자계획 (자체 부담),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사업수행역량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	10
	지속가능성	사업 추진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타 사업으로 전이하여 지속가능한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5
	민관학파트너십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 학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사업 수행에서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지 여부	5
현장평가 등 추가 사항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과 공모사업 목적과의 부합정도 등을 현장 평가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실현가능성 평가	10

### » 공모사업 선정결과 통보와 미선정시 조치사항

-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미선정 사유와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줌으로써 향후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함.
-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 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마을강좌 등을 통하여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여 사업변화를 통하여 수시 공모나 이후 공모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 5. 마을공동체 종합발전계획과 마을 의제 수립

- 마을계획단에서의 기획사업이나 찾아가는 마을강좌의 경우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 공동 또는 주민 공동의 문제를 발견해내고,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각각의 사업들이 종합화되어 하나의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의 공동의 비전, 목표, 발전전략과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을 마을공동체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과정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신이 소속된 마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요한 자산조사 등 기초여건 분석이 포함되어 있음.
  - 마을계획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을에 대한 이해임.
  -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마을 내 이슈와 문제를 발굴해야 함.
  - 실제 마을에서 마을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마을을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마을의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소통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을종합발전계획에는 마을 주민 등 활동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계획단계별 역할, 실행내용 등 주민참여를 위한 시나리오(Scenario)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음.
- 마을종합발전계획은 물리적 구역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의 주도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마을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담은 계획임. 따라서 마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이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대구축의 큰 방향과 주요 실현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다만, 마을종합발전계획은 마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초기에는 “광역시”차원에서의 접근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음.
  - “마을”은 하나의 공간적 범위이지만, “마을 사람”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이해에 따라 모이는 집단임. 따라서 하나의 “마을”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성립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종합발전계획”이 이러한 공동체의 성립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음.
-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

### »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시 필요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1.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계획 수립
2. 주민과 행정과 파트너십에 의거한 마을계획 수립
3. 마을의 현황 파악 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 계획 수립

- 마을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에 연동하는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실행계획(액션플랜)의 수립이 필요함.
- 마을종합발전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최소 2년은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마을이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마을 내 다양한 문제 및 분야와 관련하여 주민추진협의회와 같은 실행 구조의 설정
-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의 목표와 원하는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사업의 실행에 대한 장애물과 극복해야 할 사항 확인
- 목표, 장애물, 자원의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체적인 일정
- 실행을 위한 갈등 관련 상호 의견 조정
- 주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활동과 동기 부여

#### »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마을의제 수립 과정

-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민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임.
- 마을 종합발전계획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볼 때 6단계 정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DeFilippis and Saegaet 2008, Fisher and Kling 1993). 각 단계들이 반드시 순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음.
  - 1단계: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조직을 형성할 수 있음. 조례에서의 주민추진협의회와 같은 조직임. 마을계획을 구상하고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주민대표, 전문가, 민간단체, 해당 지역 공무원들로 구성될 수 있음.
  - 2단계와 3단계: 마을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이러한 마을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임. 주민추진협의회와 같은 주민조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활동의 목적을 분명하는 단계임. 이 때 서로 대화를 필요로 하고, 대화를 통하여 마을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와 관련 자원들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음.
  - 또한, 이 때 마을 내 환경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함. 인구나 경제적 환경, 공유 공간 등의 사항, 마을 문제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즉, 마을의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함. 문화, 역사, 자연환경, 공간, 인물 등의 모든 자원(외적, 내적자원)을 문헌, 인터뷰, 행정기관의 협조 등에 의해 찾아내고 문서화 하여야 함. 마을 통계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타운미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음(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한 SNS, 마을신문이나 블로그, 지역 신문 등). 분석 방법으로는 SWOT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음.



- 4단계: 초기의 마을 내 주민추진협의회 뿐만 아니라 이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마을 주민들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함. 이는 2단계와 3단계의 마을 환경 조사 과정이나 커뮤니케이션 과정, 교육과 학습 과정에서도 지속됨.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개적인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마을 내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체크 보드(check board) 등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교육과 학습 과정에서 평가 단계에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음.
- 5단계: 비전이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개념적인 이미지임. 이와 같은 비전 작성은 일반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작성되고, 이러한 대화와 소통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됨. 또한, 향후 마을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목표로부터 멀어지거나 다른 목표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함.

- 비전은 기억하기 쉽고, 짧고, 이해하기 쉬우며, 마을 구성원에게 영감과 도전의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되어야 함.
- 비전은 바람직하고 높은 이상을 나타내야 하며,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함.
- 비전은 현실적으로 15년에서 20년 안에 성취할 수 있어야 하며,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꿈꿀 수 있도록 도전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6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계획수립 팀을 따로 운영할 수 있음. 계획관리팀은 마을 계획의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만나고 서로 중요한 이슈와 목표에 관하여 공유함. 계획관리팀은 민간과 공공 조직, 두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함. 계획관리팀은 계획의 전반적 업데이트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고, 일 년에 2-4 회 정도 조직 전체에 보고를 할 수 있음.
- 계획을 실행할 때는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사례발표회 등을 통하여 기획의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함께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실행을 위한 짧은 기간
-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 높은 가시성
- 낮은 실패 위험성
- 자본과 자원의 이용

## 6. 단계별 지원사업

- 지원사업의 추진은 1단계인 초기단계에서는 뿌릴형 사업인 마을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울형이나 맺을형 사업을 늘려갈 수 있음.
- 2단계와 3단계를 지남에 따라 군구 마을공동체사업이 증가하면서 군구 정기 공모 사업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서는 기획사업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이 바람직함.
- 물론, 모든 단계에 있어서 초기 마을공동체 형성 단계인 뿌릴형 사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을 통해 뿌릴형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낼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각 마을공동체의 직접적 사업은 군구의 정기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획사업을 통한 모델별 시범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함.

〈표 6-6〉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방안

	1단계 (2014-2015)	2단계 (2016-2017)	3단계 (2018~)
사업 방향	정기 및 수시 공모 사업에 중점적 운영 기획사업 분야도 일부 예산 투입 뿌릴형 사업 집중	정기 및 수시 공모 사업 추진, 기획 사업 비율 증가 (군구 정기적 공모 사업 예산 증가 전제)	기획 사업 비율 증가 정기 공모 사업 비율 점차적 감소 (군구 정기적 공모 사업 예산 증가 전제)



## Ⅶ.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1. 네트워크 구축 원칙
2. 네트워크 구축 추진방향
3. 네트워크 구축 추진방안
4. 홍보체계 구축방안
5. 단계별 네트워크 및 홍보체계



## Ⅶ.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는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자 주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함.
-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주체들 간의 소통 및 연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관 소통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형성,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주민주도 및 과정 중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마을과 마을간, 지역사회내 자원들을 연계하고, 시민사회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을 연계하는 민관학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함.

### 1. 네트워크 구축 원칙

#### » 네트워크 사업은 교육과 학습 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 네트워크 활동의 모든 과정은 교육과 학습을 수반함. 즉, 교육과 학습 과정 자체가 소극적으로는 네트워크 활동이 될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 활동을 위하여 교육과 학습 과정을 개발할 수도 있음.
- 지역내 네트워크 활동, 마을과 마을간 네트워크 활동의 주요 핵심은 교육과 학습임.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교육과 학습은 주로 활동단위의 내용과 맞물리며, 이러한 내용은 네트워크 활동으로 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음.
- 즉, 모든 교육과 학습 과정은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기획이 필요함.

#### » 네트워크 사업의 중심에는 주민과 활동 주체들이 있어야 한다.

- 네트워크 사업 또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하향적으로 기획되어 상향적으로 활동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일방적 기획 및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 및 활동에도 주민과 활동 주체들이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네트워크 사업은 개방성, 지속가능성, 다양성을 지향한다.

-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사업과 활동의 자가 발전을 위한 기제를 마련하는 것임. 즉,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음. 또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적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는 이러한 장점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치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개방성과 다양성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임.

»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네트워크는 단발적인 활동으로 성과를 이룰 수 없음. 네트워크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나타난 성과 역시 측정가능하거나 가시적이지 않음. 다만, 지원 사업의 활동이나 교육과 학습 과정 등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나타남.
- 다만, 확고히 구축된 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음.

## 2. 네트워크 구축 추진방향

» 마을과 마을의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강화

- 인천의 마을은 빈민운동에서 출발해 주민운동, 주민자치, 작은도서관운동에 이르기까지 깊은 역사를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마을단위가 네트워크로 확장 되면서 인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2010년)와 동네살이네트워크(2013년)가 만들어졌음. 이들 네트워크는 만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가치와 지속적인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 있음. 이처럼 네트워크활동은 지속적인 마을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통해 인천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의 마을들은 네트워크의 초기에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자료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정보공유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원지도 등을 제작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마을단위 조사를 계기로 하여, 마을교류 및 활동가 양성 등 지속적인 활동들이 발생하고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사회내 조사를 위해서는 모든 단위들을 연결시켜 줄 허브단위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적합한 단위는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과 밀접한 단위일수록 좋음. 행정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행정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민간단위 조직이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이 단위가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음.
- 지역사회의 변화는 마을에서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따라 긴 시간을 두고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음.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학습을 하고, 삶 속에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단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가 해야 할 역할임.

» 민관학 거버넌스 및 구 단위 마을공동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지속성은 어떻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음.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화된 구 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구축이 필요함. 인천은 아직 구단위의 지원센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단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차원의 인큐베이팅 과정이 필요함.
- 시단위와 구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관계설정이 필요한데 시지원센터는 구지원센터가 직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컨텐츠와 시스템개발, 인천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개발, 시범사업정책개발 등의 연구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구단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관계에 있어서도 시단위의 지원센터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내용적인 역할분담을 해야 함.
-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구현됨. 앞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 네트워크 구축은 민관학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협력해 나갈에 따라 가능하게 되며,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을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역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임.

#### » 유형별 · 단계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과 마을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내 자원 네트워크 구축, 장기적 방향에서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각 단계에서 발생한 네트워크는 다음 단계의 네트워크로 파생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조사와 현장 탐방은 마을공동체 연합 아카이브로 연계될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되는 마을 자원 조사나 공동체 교육, 매뉴얼 준비를 통하여 마을간 네트워크나 지역사회내 자원 네트워크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 및 단계별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의 현재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
- 즉, 현재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발전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상적 교육사업과 연계

- 협동조합,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이 지역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의 내용과 더불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까지 모두 교육과 학습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교육과 학습의 형태는 마을공동체학교 등 강좌개설이 될 수도 있고 대화모임, 심포지움, 워크숍 등 네트워크교류의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
- 이는 마을간의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임. 네트워크활동을 통해 마을의 활동가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상설 마을활동가대학이 개설이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계된 네트워크활동이 될 수 있음.

#### » 홈페이지, 영상, 아카이브를 통한 사람간, 공동체간 지속가능한 홍보체계 구축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 및 구축 이후 발생한 성과들은 공유될 필요가 있음.
- 공유된 정보는 정보 자체가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제가 제공되어야 함. 이러한 기제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Social Network System(SNS)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구축된 홈페이지나 SNS는 그 자체로 홍보 매체가 됨.

### 3. 네트워크 구축 추진방안

- 또한, 기존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안에서 사람, 역사, 문화, 복지, 공간, 사회경제적 조직 등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조사를 실시함.
- 마을공동체 조사, 현장탐방, 마을공동체 순회 집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마을과 마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타운미팅, 민관합동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및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함.
-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뿌릴형과 피울형의 동시 추진도 가능함.

#### » 지역내 자원네트워크 구축

- 도서관, 품앗이, 역사문화, 돌봄마을 등 유형별 활동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함.
- 마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와 정보교류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공동체 박람회 등을 통한 상호 유대감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대학, 복지관, 문화회관,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등 각 기관과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타지역 마을공동체와의 연계 및 교류와 학습, 심포지움, 세미나 등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도모함.
-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뿌릴형과 피울형의 동시 추진도 가능함.

#### »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강화

-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대학 설립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 교육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군·구단위 네트워크가 가능한 곳은 군·구지원센터를 위한 정기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지원함.

〈그림 7-1〉 네트워크 단계별 추진방향



〈표 7-1〉 유형·단계별 네트워크 구축사업

구분	뿌릴형: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피울형: 지역내 자원네트워크 구축	맺을형: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강화	공통사항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조사, 현장탐방, 일상교육, 순회 집담회를 통한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li> <li>· “만나다 컨퍼런스”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운미팅, 민관합동교육 등을 통한 자원 네트워크</li> <li>· 집단지성 대화모임 추진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구지원센터설립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조사, 공동체교육, 매뉴얼준비를 통한 네트워크화</li> </ul>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 연합아카이브 구축</li> <li>· 네트워크 교류학습</li> <li>· 심포지움세미나, 마을공동체 박람회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li> <li>· 마을 만들기전국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li> <li>· 전국마을활동가대화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제 발굴과 실행에 따른 자원네트워크 확장</li> <li>· 사회적 경제 관련단위 교류와 협력</li> <li>· 지역사회 대학, 복지관, 문화회관 등 각 기관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역할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를 통한 자원 네트워크 확산</li> <li>· 마을별 자원인프라 맵제작, 마을별아카이브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구지원센터 네트워크 정기 간담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화</li> </ul>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학교를 통한 마을 네트워크 확립</li> <li>· 마을공동체네트워크 확대 제반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별 자원인프라 맵 제작, 마을별아카이브 구축</li> <li>· 타 시도 교류 및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확대</li> </ul>	상동

#### 4. 홍보체계 구축방안

- 교육 및 학습, 공모사업 등 사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과 적절히 연계될 필요가 있음.
- 마을공동체에 대한 우수 사례들이 발굴되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것에 대하여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 대안이 될 수 있음. 또한, 마을박람회 개최함으로써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세미나에 직접적으로 참석하고, 이러한 세미나 참석 등의 기회를 홍보 방안과 연계하는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천in 등 공공기관의 매체와 중앙 및 지역 신문, 개인의 SNS 등 민간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례 위주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함.
- 초기단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되, 중기단계에서는 영상 및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을 통한 자료의 정보화와 이를 통한 홍보의 지속화가 필요함.
-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혼합 방식의 홍보 방식 마련이 필요함(Blended Communication). 이러한 홍보 자체가 주민들의 풀뿌리 역량 강화 및 마을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을 강화하는 것도 홍보에 도움이 됨. 즉, 관-민 공동학습 및 관-민 협력체계 구축, 민-민 파트너십 구축, 국내외 홍보와 교류, 사회적기업/마을기업/청년기업 연계,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 마을만들기 기금 조성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음.

〈표 7-2〉 유형 · 단계별 홍보체계 구축사업

	뿌리형	피울형	맺을형
내용	주민교육 과정 중 의제형성과정 학습과 사례 발굴, 인천in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마을내 학습 및 홍보 순환구조 구축: SNS, 마을신문, 지역라디오, 소식지 등	마을간 학습 및 홍보의 파급 또는 확산 구조의 정착화

## 5. 단계별 네트워크 및 홍보체계

- 1단계인 초기단계에서는 마을 자원 기본조사를 통한 네트워크 및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현장탐방이나 마을공동체 집담회를 통한 마을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고, 교육과 학습 및 공모사업 설명회를 통한 홍보가 가능함.
- 중기단계인 2단계에서는 도서관, 품앗이, 역사문화, 돌봄 마을 등 유형별 활동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하려는 활동이 필요함. 특히, 자료를 정보화하는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및 각 마을별 온라인 활동을 네트워크화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음. 이러한 활동들을 홍보와 연계 가능함. 또한, 타 시도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함.
- 3단계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 학습과 교육의 장으로서, 또한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장으로서 마을공동체학교 설립이 필요한 단계임. 이러한 마을공동체 학교를 통하여 정기적 지속적 교육과 네트워크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함. 마을공동체 학교와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군구 단위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중간지원조직 확대 자체가 네트워크의 확장을 의미함. 인천 마을박람회를 통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킴.

〈표 7-3〉 단계별 네트워크와 홍보 체계 구축방안

	1단계 (2014-2015)	2단계 (2016-2017)	3단계 (2018-)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자원조사를 통해 교육과 학습을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li> <li>· 네트워크 자체 사업 및 홍보관련 투자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카이브 구축, 온라인 네트워크 체제 구축, 타 시도와의 네트워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 정기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li> <li>·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구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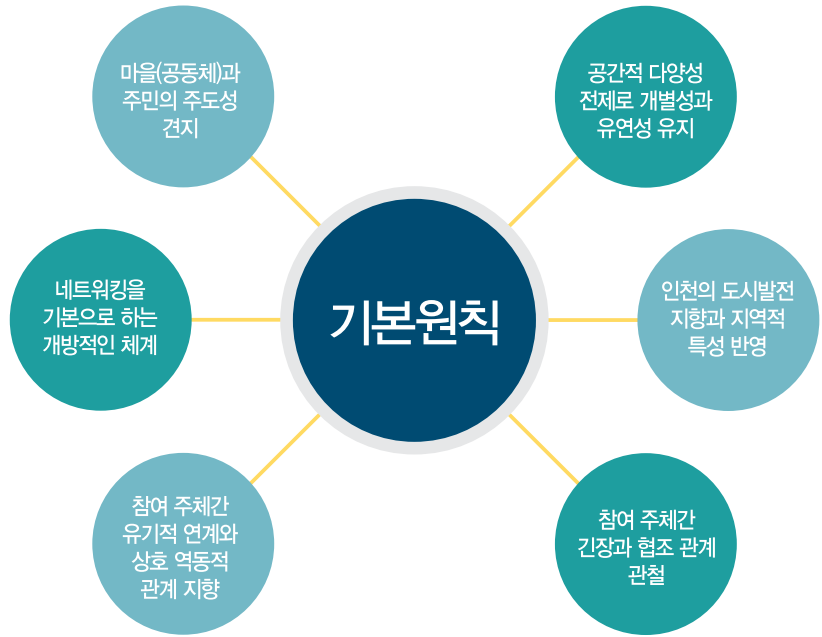


## Ⅷ.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체계

1. 거버넌스 구축 원칙
2. 인천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기본구조
3.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용 방안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방안
5. 마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6.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차별 필요예산

## Ⅷ.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체계

### 1. 거버넌스 구축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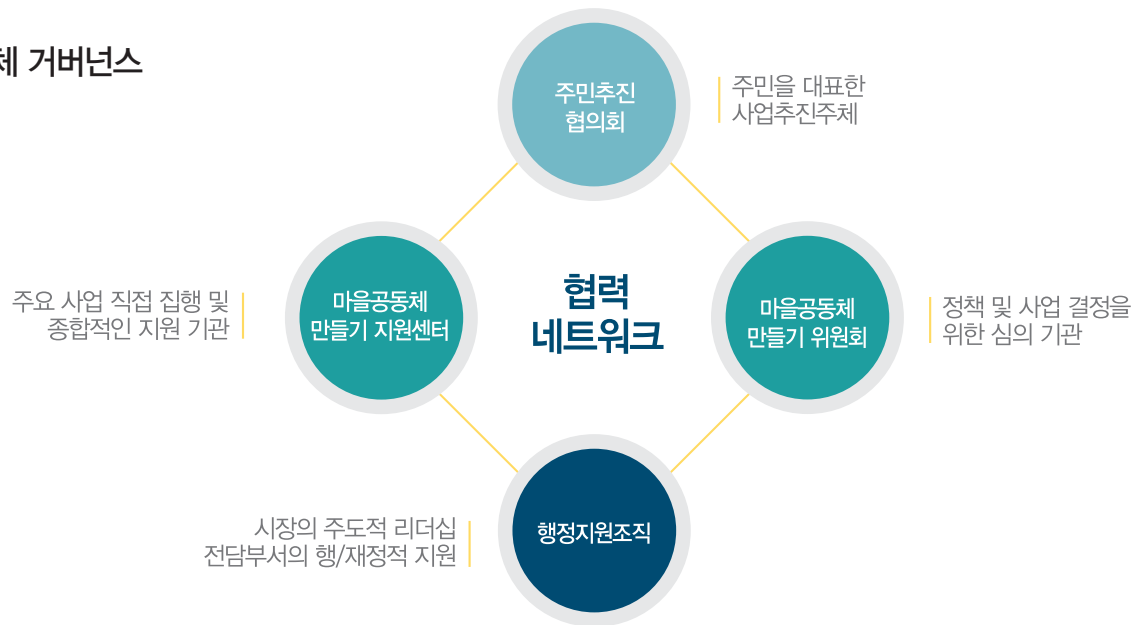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추진체계(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구축은 우선 관련 주체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방향의 설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 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형화된 추진체계로 한정하기가 어려움.
  - 현재 여러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일반적인 형태의 추진체계로 구상하기 곤란함.
  - 다양한 성격과 내용을 갖는 집단들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추진주체의 조합을 구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름.
  -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 그리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의 상황을 적극 고려해서, 추진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탐색해야 할 것임.
  
- 이와함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3조(기본원칙)를 적극 참조해서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체계 구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여기서 조례를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의미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자체가 마을만들기 관련 여러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칙과 방향을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그 결과를 조례의 해당 내용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 **첫째**, 마을공동체 추진 거버넌스는 마을(공동체)과 주민의 주도성이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는 마을과 주민이라는 것이 거버넌스 구축에서 일관성 있게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임.
- **둘째**, 마을공동체 추진 거버넌스는 그 대상이 되는 마을이 갖는 공간적 다양성을 전제로 이 사업의 개별성과 유연성이 일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마을에서의 공동체 활동은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 수밖에 없으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추진체계 역시 이러한 특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함.
- **셋째**, 마을공동체 추진 거버넌스는 인천의 도시발전 지향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을 구상,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인천에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이 지역의 비전과 과제, 잠재적 가능성 등 공간이 갖는 잠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임.
- **넷째**, 마을공동체 추진 거버넌스는 참여 주체 간 긴장과 협조 관계가 항상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것으로 구축되어야 함.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이들 주체들간 여러 조합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도 참여주체간 긴장과 협조 관계가 생산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다섯째**, 마을공동체 추진 거버넌스는 참여 주체 간 유기적 연계와 상호 역동적 관계를 지향해야 함.
  - 새로 시작하는 서로 다른 수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유기적·역동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여섯째**, 마을공동체 추진 거버넌스가 생산적인 의사결정 단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개방적인 체계로 이루어져야 함.
  - 마을공동체만들기 추진체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외간 소통과 교류가 원활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역동적인 의사결정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임.

## 2. 인천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기본구조



-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게 될 추진주체(거버넌스)는 지원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한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거버넌스의 기본구조는 현재 4개 추진단위로 구성되어 있음.

- (1)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조직(시장+실무부서)
-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 이렇게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 4개 추진주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조직 : 시장의 주도적 리더십 발휘, 전담부서의 행/재정 지원
  -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 주민을 대표한 사업추진 주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정책 및 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 의결 기관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 주요 사업 직접 집행 및 종합적인 지원 기관

※ 구/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 기초자치단체(직접적인 사업 현장) 차원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집행 및 지원 기관, 향후 구·군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기본구조가 확장, 완성될 것임.
-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조직 :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수립과 행/재정 지원활동 추진. 시장 사업의 적극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의 〈마을공동체 만

들기 기본계획)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행정부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함.

-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 계획 및 사업을 협의·심의·의결하고 직접 추진함.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민주적 협의 및 심의·의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 공동체 생활·문화·경제·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동사업 추진
- 협의회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리더십의 중심인 협의회장 선출
- 지원 요청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계획 수립
- 기타 협의회 의결을 거친 관련 사업의 추진 등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관련계획·사업집행·지원계획 등을 자문·심의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자문·심의
-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사업 자문·심의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자문·심의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자문·심의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지원·운영 자문·심의
- 기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계획·사업 자문·심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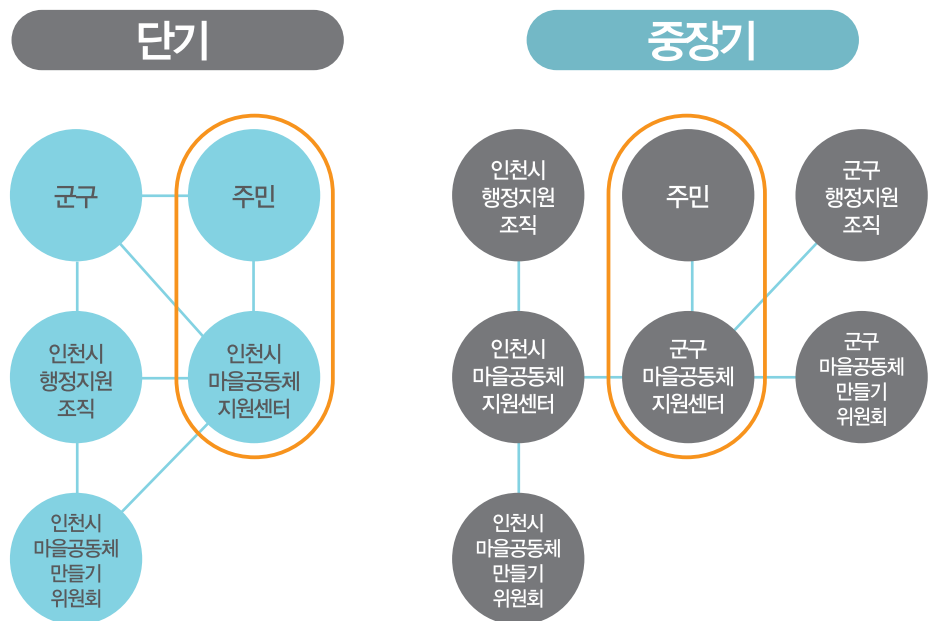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문적 역할과 체계적 지원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의 조사·연구 활동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분석·평가 등 피드백 활동
-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수립·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적 지원 활동
- 마을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 및 학술 활동
- 기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구·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 기초자치단체(사업현장)의 사업 집행 및 지원 기관으로 (광역)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구/군의 사업현장 차원에서 이루어짐. 구/군 지원센터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은 전체(광역차원)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상하면서, 기획·결정해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주요 추진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주민을 중심으로 위원회, 행정지원조직, 군구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군구별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그림 8-1〉 단계별 추진체계 운용방향



### 3.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용 방안

#### 1) 생산적 추진체계 구축 방향

#### » 행정지원조직의 구성 및 효율적 운용

##### ■ 행정지원협의체 운용

- 계획수립에서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행정부문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함. 주민, 마을, 지원센터 등과 함께 공동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행정부문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선 조직개편을 전제하지 않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 제9조(사업지원)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용하는 것임.
- 자치·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원도심 재생 및 주거환경관리 부문),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정보화 분야 등을 포괄하는 (가칭)마을공동체 만들기행정지원단 또는 (가칭)마을공동체 만들기행정지원협의회 등을 구성, 운용해야 할 것임.
- 이때 이 협의체는 현재의 자치행정국장이 의장(또는 회장)의 역할을 하고, 관련 과장(또는 팀장)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조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 전담부서 신설

- 단순한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단기 방안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담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현재의 자치행정과 내에 신설하는 것임.
- 현재의 자치행정과 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 팀의 구성은 부분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복잡한 준비과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임.
- 자치행정과 내 전담 팀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종합적인 접근과 관련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개방적인 성격의 행정지원협의체 구성을 병행해야 할 것임.

##### ■ 담당관제 신설

-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민, 마을, 공동체 등과 함께 하는 공공의 사업들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이러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할 것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도시 재생, 주거환경관리 등과 같이 마을 만들기와 관련 또는 유사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확대된 부서를 고려해야 할 것임<sup>27)</sup>.
- 이 경우 서울시 등의 사례에서처럼 확대된 전담부서는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주거개선 사업, 원도심 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담당관제를 신설하는 것이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합당할 것이라 판단됨.

27) 담당관제보다는 이보다 규모도 크고 권한도 확실한 국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이는 현재의 업무와 관련 사업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상당 기간 국 규모의 신설 조직으로 결정,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그림 8-1〉 단계별 추진체계 운용방향



### » 주민추진협의회의 대표성 확보와 기능 정착

#### ■ 민주적 대표성 확보

- 마을단위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주민들의 참여와 동력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자기 지역의 특성과 주민 구성에 따른 공간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주민추진협의회 구성과 활동방향을 정해가면서 의사결정과 사업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때 각 마을이 가진 장점과 조직적 수준을 참작해서 유연하게 협의회를 구성, 운용해야 할 것임.

#### ■ 활동가 및 참여 문화예술인의 활동 정착

- 주민추진협의회는 활동가 및 문화예술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활동가와 문화예술인은 가능하면 주민으로서 전문적 활동 종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활동가와 문화예술인은 '마을운동'이나 '문화운동' 차원에서에서의 참여가 아니라, 운동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주민의 삶과 생활을 문화적으로 고양시킨다는 자세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 역시 마을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활동방식과 실천내용, 그리고 존재방식 까지도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위원회의 민주성과 선도성 확보

####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건설적 합의 문화 정착

-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효율적인 논의구조가 되도록 해야 하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민주적인 의사결정 관계가 정착되도록 초기부터 조직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생산적인 의사결정체로서의 모범적인 관행을 축적해나가야 할 것임.

- 위원회는 시의회/행정/시민사회/전문가 등의 균형 있는 배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각 주체들의 인식과 상호이해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특히 행정-시민단체-시의회 간 민주적 합의와 생산적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 마을공동체 사업의 선도적 리딩 역할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고 여러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야 할 분야이므로,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선도적 역할이 긴요함.
- 인천에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기획, 추진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위원회는 선도적 관점에서 심층 심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합리성과 민주성의 관행이 축적되어 생산적인 합의기관으로서의 리딩 역할이 관행이 되고 그러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 지원센터의 기능과 위상 정립

#### ■ 역할 확보와 정착을 위한 노력

-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므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설립초기부터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공공부문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참여주체들을 대신해서 종합적으로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므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인 기획활동과 지원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문의 지원센터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합당한 위상 정립이 있어야 할 것임.

#### ■ 주요 지원기관으로서의 다양한 기능 확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논의하면서 지원센터가 차지하는 큰 비중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지원센터에 합당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 지원센터의 기획 및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해석,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임.

#### ■ 핵심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공공조직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만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면,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상을 확고히 세워 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 2) 다양한 추진체계 운용 방안

### » 마을-행정 간 효율적 분업과 지원관계 정립

#### ■ 행정의 적극적 시설 제공

- 공공(행정)과 마을(거주지)모임 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인데, 시/구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행정이 해야 할 복지와 사회정책을 대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그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임.
- 이는 행정을 대신해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지활동을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있는 홀몸노인자매결연, 반찬배달사업, 생활용품지원 등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 마을공동체의 주민들 삶과 생활에 대한 적극적 관심

- 마을공동체란 주민들 자신이 삶의 터를 가꾼다는 차원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일들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단위로 할 수 있음.
- 따라서 삶과 생활의 터전을 개척하고 따뜻하게 하는 공동실천과 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임.

#### ■ 지역기업의 참여

- 마을·정부의 노력에 더해 지역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직접 참여한다면 마을은 훨씬 역동적으로 삶과 생활의 공동체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임.

### » 정보교류 및 상호소통 채널 개통

#### ■ 정기교류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

- 참여주체 간 상호 교류와 이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 활발히 운용해야 할 것임.
- 활동가들 간 정보교류와 상호학습을 위한 정례 학습모임, 내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정기 포럼, 연말 공동 평가회의 등을 기획, 운용할 수 있을 것임.

#### ■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웹 사이트

- 지원센터 또는 행정지원협의체가 주도해서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자발적 정보교류와 경험교류의 장으로서 홈페이지를 구축, 활용해야 할 것임.

#### ■ 마을공동체 웹진

- 정보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런 가운데 마을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웹진을 창간, 활성화하는 방안을 기획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웹진을 통해 추진사업의 평가결과를 공유해서 상호 학습의 모티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소통채널의 구축 및 운용의 주체는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가장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합의 및 행/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 내부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 ■ 마을만들기 참여단체 협의체

- 참여주체 간 상호 소통과 이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상호 정보 교류와 현안 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협의, 공동사업 기획 및 추진 협의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 정기 워크숍

-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례 워크숍을 조직, 체계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한 경험 공유와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과정은 상호 생산적인 학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동시에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을 협의하게 되고, 현안 교류와 중장기 비전을 검토하게 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 마을공동체 멘토링 시스템 구상

#### ■ 마을공동체 자문단 구성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외부 자문그룹을 구성, 활용해야 할 것임.
- 사업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고려할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자문단 역시 네트워크 조직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임.

#### ■ 마을공동체 지원 문화예술단 구성

-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 판단되므로,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업 기획과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야 할 것임.

#### ■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 상시 멘토링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거나 새로운 차원의 사업을 구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미나와 같은 전문가 토론회를 조직, 전문적인 조언을 수집해야 할 것임.

### » 외부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 ■ 타시도·외국 기관과의 정례·체계적 교류

- 상호 방문을 통한 외부 사업 또는 기관과의 체계적 교류는 상호 학습이란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방식임.
- 우선 국내 우수한 사례와의 직접적인 상호 교류 또는 방문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 정기 교류 및 학술 활동

- 상호 정보 교류와 인적 교류를 통해 기획과 사업추진에 의미 있는 모티브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타시도 및 외국 기관과의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은 정보교류 및 경험공유의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방안이 될 것임.

■ 내외 관계자·전문가 참여의 포럼 구성

-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여하는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포럼을 구성,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현안을 분석하는 광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함.
- 일회성 또는 소모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형식과 내용을 충실히 채워가는 포럼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포럼을 기획, 운용하는 책임 있는 단위로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할 것임.

■ 공동주제의 통합 연구활동 기획

- 국내외 조직들이 함께 참가하는 통합 연구활동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임.
-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또는 주제를 정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탐구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유력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임.

» 다면적·창의적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모델의 구상

-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구조와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하나의 정형화된 모델로 접근할 수 없음.
- 이처럼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공동체에 어떻게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기획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도 이러한 다양한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정형화된 프레임을 찾는 방식으로는 검토하기 어려울 것임.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창의적 변용 모색

- 앞서 제시한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현실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창의적 변용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이는 주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마을공동체 뜻과 의지를 모으고 거기서 결정된 사업과 방식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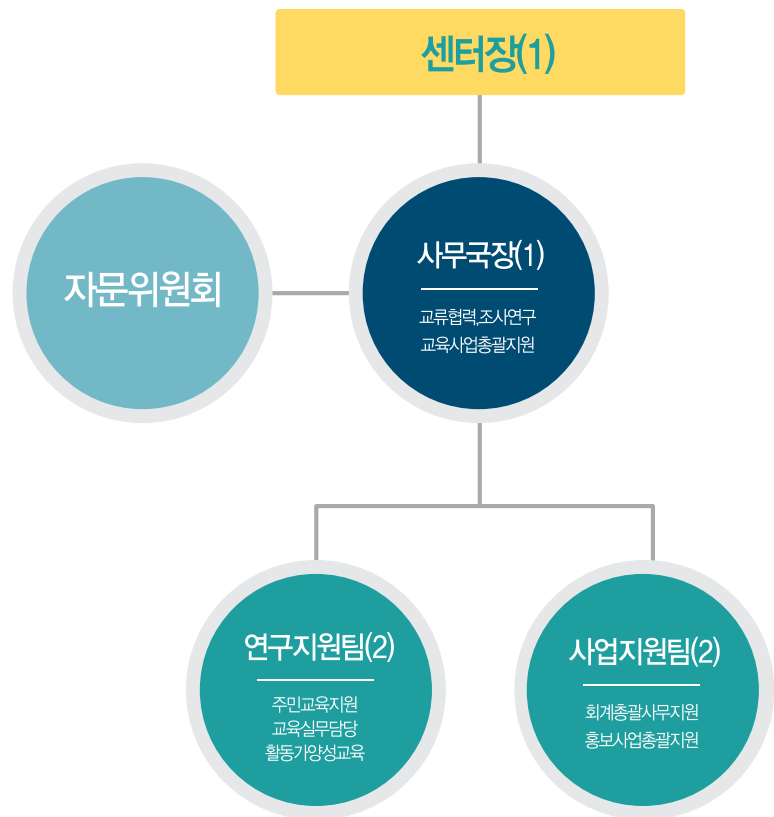
#####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사업 목적

-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 자치역량을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 동네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민관이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 함께 돌보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는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

- 조직: 센터장 1인, 사무국장 1인, 교육지원 2인, 주민공모 1인, 사업지원 1인 총 6인으로 구성
- 사업영역 확대 및 군·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조직 규모와 구성에 대한 조정 필요

〈그림 8-3〉 초기단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조직도



〈표 8-1〉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업무분장표

구분	업무 분장 내용
센터장	업무 총괄
사무국장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협력 지원 교육 및 홍보 · 마을공동체 집단지성 대화모임 추진 · 마을공동체 '만나다 컨퍼런스' 추진 · 전국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 교육, 홍보, 주민공모 지원
교육지원(2)	주민교육지원, 콘텐츠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기획 및 운영, 사업 모델 발굴 및 운영
주민공모(1)	주민창안대회 '마을이야기꽃 프로젝트'운영, 기획사업, 정기 및 수시 공모 운영, 대외협력사업, 조사연구사업
사업지원(1)	연간 자료집 발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홍보, 아카이브 구축, 행정회계 업무

###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및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인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토대로 인천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통합을 리드하는 센터장 기용,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공개채용 필요(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및 회계, 사업 분야의 전문가 공개 채용)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
-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 인천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통과 화합 지향
- 홈페이지 구축, 아카이브, 자료집, 사례집, 뉴스레터 등 다양한 성과물 관리

## 5. 마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 공동체를 위한 유효한 수단의 확보

#### ■ 문화예술적 접근을 위한 수단의 확보

-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에 적합한 접근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움.
- 외부 전문성(기능인, 문화활동가)을 지원받기가 어렵고, 마을 내부에서 문화활동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려움.
- 따라서 마을만들기의 유효한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외부에서 문화예술적 전문기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자체 개발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 ■ 다양한 교육적 접근의 유효함

- 공동체 확보를 위한 마을 활동을 보면 어린이·청소년 등 교육과 관련된 마을사업의 요구가 크고 그 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육아공동체 만들기나 어린이놀이문화 만들기 등도 교육적 접근의 유효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교육적 접근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 청소년 학습·문화활동에의 지속적 관심

- 다양한 교육적 접근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문화활동은 학교에서의 그것을 지역에서 보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교사 역할과 같은 지도 교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와 이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 마을내 공동체 공간의 확보

#### ■ 커뮤니티 복합 공간

-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간 부족을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지적하고 있음.
- 공동체 공간의 확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과 사업추진에서 매우 절실한 것인데, 대부분의 마을에서 아주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으로는 복합적인 용도의 공동체 공간을 하루빨리 확보하는 것임.
- 그런데 이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관·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를위해 우선 기존의 공공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커뮤니티 복합 공간의 확보를 기획해야 할 것임.

#### ■ 기타 마을내 공용 공간의 활용

- 복합공간 대안으로 대규모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등의 기관이 공용 공간 활용의 다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참여주체의 조합

### ■ 다양한 마을공동체 참여 주체의 조합 모색

- 참여주체 조합을 통해 마을만들기 활동의 효과성을 높여려는 작업은 단순한 조합에서 점차 확대해야 할 것임.
-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조합을 모색해야 하나, 요점은 가장 단순한 조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참여주민들의 의식과 참여를 고려해서 마을공동체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문화와 노인문제의 조합에서 출발해서, 문화예술-마을기업(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의 조합으로, 이어서 미술활동-노인여가-지역복지-마을기업 간의 조합 등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임.

### ■ 마을운동은 상호학습 공동체 지향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상호학습의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각자의 경험이 상호 학습의 가장 효과적인 교재 또는 반면교사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가 교사이고 동시에 학생인 새로운 교육학습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 이때 교육과 학습도 마을공동체 내 삶과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임.

### ■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핵심이자 화두는 어떻게 마을만들기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임.
- 현재 문화마을공동체는 '문화'와 '재개발', '빈민', '노인'이 어떻게 삶 속에서 오랫동안 조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고 있음.
- "어떻게 이러한 조합이 마을이란 구체적 삶의 공간에서 지속가능하게 기능할 것인가?"라는 점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고민과 창조적 기획의 출발점이 될 것임.

## » 경제단위로서의 마을공동체의 한계와 창의적 대응

### ■ 사회적 기업의 위상과 역할

-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기능과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의 위상과 역할은 존재양태와 운용방식 등의 관점에서 그에 합당한 수준에서 이해해야 수용해야 할 것임.
- 이는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 회복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임.
- 즉, 마을 내 경제적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일단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사실임.

###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모색

-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 기반의 경제적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함.
- 외부지원과 주민들의 헌신과 봉사에만 의존하는 사업은 지속가능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비즈니스모델'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마을기업 활동을 기획해야 할 것임.

## » 마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 기획

### ■ 마을 자원 활용 프로그램 기획

- 마을이 가진 전체 자원을 충실히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해야 할 것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므로 청소년 진로 멘토링이나 청소년진로센터를 설립,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마을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임.
- 리빙라이브러리 등 재능기부 활동도 마을의 인적자원 풀을 활용한 다양한 멘토링 활동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성과보고 대회, 인천 마을공동체 공동축제, 마을공동체 돕기 인천시민 바자회, <(가칭)인천마을의날> 기념행사 등이 현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실천적 사례에 해당될 것임.

## » 기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현실적 고민과 극복 방안

### ■ 마을만들기-복지 간 경계의 이해와 극복

- 사회경제적 약자 또는 마이너리티가 모여살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의 마을만들기는 '복지'로 접근해야 할 것임.
- 행정이 담당하기 어렵고 담당한다 해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상부상조하며 재미있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부문의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임.
- 마을활동가에 대한 지원도 사회복지사 채용이란 측면으로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행정사업이 될 것임.

### ■ 지역/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

-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정신과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작업의 정신적/정서적 토대가 될 것임.
- 따라서 지역과 공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인가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고리이자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음<sup>28)</sup>.

28) "(인천 열우물 마을의 경우) 현재의 재개발 방식의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이곳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 이곳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과 문화와 역사적 전통이 있는 곳이다. 다음 세대에 누군가 이곳에 이주해서 살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주민자치가 제도화되지도 않았던 시절에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며, 가난을 극복하고 함께 처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곳 열우물 주민공동체,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와 흔적들을 기념하여 모으고 기록하고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찬영(2013),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 만들기의 현황과 전망, 제5회 도시인문학세미나 자료집, 인천도시인문학센터, p. 91.

■ 마을 내 종교/문화 단체 등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

- 삶과 공간의 일상적 모습이 마을공동체의 내용이라 한다면 마을 구성 기관 중 특히 종교단체가 갖는 의미는 클 것임.
-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관 주변 단체와 생산적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함. 뿌리와 성격은 다르지만 지역활동에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됨.

■ 생애주기를 고려한 마을만들기 고려

-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사업'이 아니라 '생활'로 접근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라 할 것임.
-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생애주기' 또는 마을 구성원들의 특성 등에 맞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6.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차별 필요예산

- 서울시는 2013년 기준으로 22개 사업에 대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총 222억원의 예산을 배정함. 이중 사업예산은 197억원 규모이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기반조성 사업으로 27억원의 사업을 배정함.
-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총예산 규모인 2조원의 0.1%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예산은 17억원 규모임. 이중 사업 예산이 14억원 내외임.
- 인천시 역시 서울시와 비교하여 인구 규모 기준으로 할 때 60-70억원 정도, 수원시와 같이 총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 다만, 인천시의 경우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의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을 기준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0.1%를 목표로 함. 2013년 현재 기준으로 70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별 사업 배분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음. 즉, 2014년도에는 10억원 정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2016년에는 35억원, 2018년에는 70억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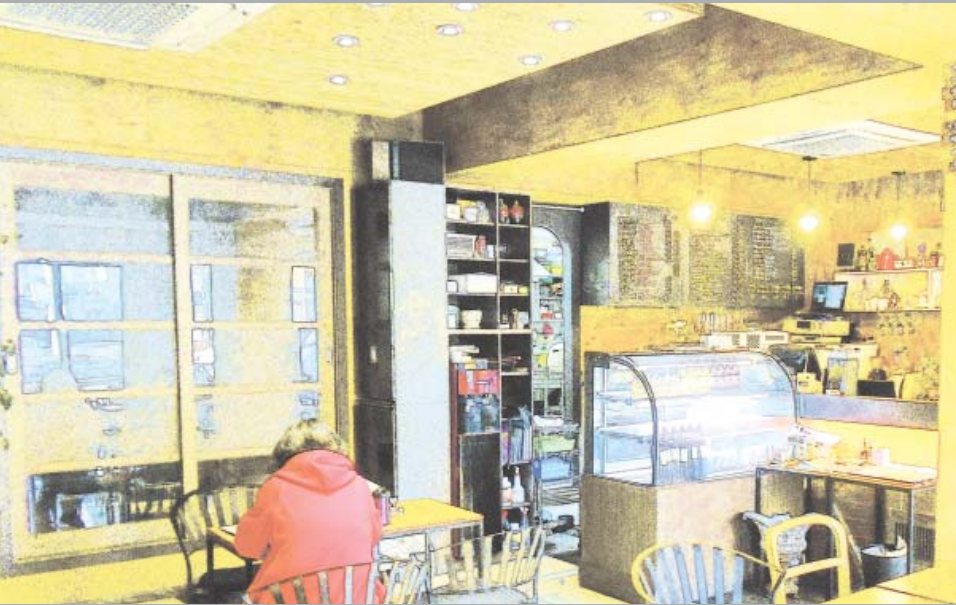
〈표 8-2〉 연차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총 예산 규모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예산규모 (단위:억원)	10	20	35	50	70

- 2014년 10억원을 기준으로 총 지출 규모 및 사업 내용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8-3〉 2014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총 예산 규모 (단위: 천원)

분야	세부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교육과 학습	맞춤형 교육학습	55,000	주민교육, 마을코디, 마을리더, 컨설팅 등
	조사연구	82,000	시범사업 관련 정책연구, 매뉴얼 연구/발간
지원사업	공모사업	400,000	정기공모 및 수시공모
	기획사업	100,000	기획사업
네트워크	교류협력	38,000	지문위원회, 집담회, 컨퍼런스, 교류사업 등
	홍보	65,000	홈페이지, 뉴스레터, 리플렛, 사례집 등
센터운영		260,000	인건비 및 일반비용
합계		1,000,000	



## 부 록

1.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3. 응답단체 리스트

# 부록1.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2013-05-27 조례 제 5241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군·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군·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2장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④ 협의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려면 미리 시설물의 소재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선정
-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 국장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업무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인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천시의원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동간사를 두고, 공동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장과 민간위원 1인으로 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2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05-27 조례 제5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 1. 함박마을공동체

- 약 1만 500세대, 2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함박마을은 연립주택과 원룸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주차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됨.
  - 이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4년 함박마을발전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발전협의회가 모태가 되어 '함박마을공동체'가 만들어 지게 됨.
- 함박마을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탁구, 기체조, 노래교실, 기타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함박웃음잔치'라는 주민 45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였음.
- 공동체 대표 1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적게는 20명 많게는 70명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음.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월세 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교육 및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함박마을공동체'는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생적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함박마을공동체 대표 1인을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공동체 내 사업 추진 조직 및 체계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임.

〈그림 1〉 함박마을공동체 관련사진



[ 함박마을공동체 회관 ]



[ 함박웃음잔치 ]

〈출처 : 경기신문 2013.10.21〉

### 2.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

-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산곡3동 주변의 상권이 쇠퇴하면서 지역 자체가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부평여성회, 부평청년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설립하게 됨.
- 설립당시 한 가족이 가입비 10,000원과 월회비 10,000원을 내고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
  - 도서관의 기본적인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기본으로, 부모들을 위한 '동화읽은 엄마 모임', '주부생태학교', '예비 학부모교실', '부모특강', '도서관사서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글쓰기교실', '동화연구교실', '생태놀이', '기행 및 견학',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열린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2013년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이 주관하여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화랑북로 골목축제'를 개최하여 공연, 체험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임.

- 현재 270여 가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위원 8명을 포함하여 도서관장과 상근직원 1명이 활동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 10명이 운영을 돕고 있으며 2004년부터 인천 어린이 도서관 협의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월 1회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신협건물 2층 공간으로 신협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 2007년 '희망의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책임은 사회문화재단과, 한겨레 신문, 삼성이 도와 리모델링 사업을 하였음.

〈그림 2〉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관련사진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내부]

### 3. 낙타사막

- 2011년 개관한 '카페 낙타사막'은 2006년 진행된 공공미술프로젝트인 '홍예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개업계획을 가지게 됨. 프로젝트를 마친 후 작업실 겸 갤러리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던 중 빈 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카페 낙타사막'을 개관하게 됨.
- 설립 당시 개인적인 공간보다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카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 달 정도 전시회를 진행함.
  - '카페 낙타사막'의 운영자가 고령층이 대부분인 인근 지역의 마을일을 맡아서 일하고 있고, 카페공간에서 마을사람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동네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함.
- 특정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아닌 지역의 동호인 및 예술인들이 수시로 전시회, 영화시사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를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단체와 달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된 형태의 공간이고, 사업 또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큼.

〈그림 3〉 낙타사막 관련사진



[낙타사막 내부]

## 4. 문화바람

- 1997년 창립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는 모단체인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로부터 2004년 독립하였으며, 시민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10년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복합문화공간 아트홀 ‘소풍’, ‘문화로가게’,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연합 ‘놀이터’가 연대한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을 설립함.

〈표 1〉 문화바람 활동현황

구분	활동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수용자운동 및 문화공간 및 사업 인큐메이팅 활동
복합문화공간 아트홀	기획공연, 무료대관 공모사업과 시민문화예술사업의 일환인 어린이 연극교실, 청소년 연극 캠프, 시민연극 프로젝트, 지역주민 문화사업, 예술과 네트워킹
문화로가게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능력이나 장비, 공간 등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연합 놀이터	그림, 음악, 연극, 영화, 사진 등 12개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연합 활동

- 문화바람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연 참여를 할 수 있는 문화바람 프리티켓을 지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동네 축제를 통해서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임대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자원과 화비로 유지하고 있음.
- 문화예술활동을 바탕으로한 네트워크 단체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단체의 특성을 공동체 활동에 활용하고 있음. 각각의 단체 고유활동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문화 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4〉 문화바람 관련사진



[문화바람]



[시민문화살롱]

## 5.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 1996년 창립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중동부지역 지부는 행정, 의정 감시 운동 및 평화통일 캠페인 등 인천연대의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2001년 분화 창립하였음.
- 설립 초반 지역 나눔사업으로 반찬나누기, 어린이 공부방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어린이 공부방의 경우 2004년 '푸른나무 교실'로 독립시킴.
  - 2007년부터 지역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하여 현재 18개 단체가 연합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동구만들기'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13년 동구에서 실시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한 24개 단체(모임)의 네트워크인 '동구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음.
- 동구지역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지역복지센터 우리 동네'와 함께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구는 2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의 경우 네트워크 사업을 비롯한 자체적인 마을 공동체 관련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예산활동, 마을만들기 지원 활동, 네트워크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5〉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관련사진



[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



[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내부 ]

## 6.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 2004년 배움, 소통의 성평등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인천여성회 창립이후 2011년 구단위 지회로 '인천여성회 동구지회'가 발족하였고, 2013년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로 승격됨.
  -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는 골목도서관, 대중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골목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고유 업무와 함께 체험교실과 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대출 서비스로 '책수레'라는 사업을 지행하고 있음. 대중사업으로는 학부모제안활동, 안전지도 제작, 성교육 강사단, 여성친화도시 활동을 하고 있고, 골목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모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송현 1·2동과 송림 1동에서 안전마을 네트워크 '이웃사촌'을 조직하여 '동'단위의 안전한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동구에서 실시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3개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33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시장 내 상인들이 골목도서관과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음.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동구에서 상인회에 위탁한 건물로 상인회에서 다시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에 재위탁 운영을 맡긴 상태임.
- 여성회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특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단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모임)에 대해 회원의 직접참여 또는 도움을 주고 있음.

〈그림 6〉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관련사진



[ 인천 여성회 중동구지부 ]



[ 골목도서관 ]

## 7. 다남동 마을회 마을기업

- 2011년 설립한 '다남동 마을회 마을기업'은 전통 농업 특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삶터이자, 일터이자, 놀이터인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공동체 형성과 지속적인 사업 등 지역내 체험학습 연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 전통재래식 된장, 간장, 메주, 참나무 원목 표고버섯을 생산·판매 하고 농촌체험 학습을 병행하고 있음.
  - 주민이 직접 재배한 메주콩을 전량 수매하여 전통재래식 된장, 간장, 메주를 생산하고, 마을공동 소유 참나무 원목 3,000본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생산함. 이와 함께 메주만들기, 장가르기, 청국장만들기, 떡매치기, 표고버섯장 체험, 주말농장 체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 49명이 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활동 중이며 전통장류사업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표고버섯 재배는 남성 조합원 중심으로 작업반을 결성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음.
  - 마을대회, 정월대보름 옷놀이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등 마을기업활동 이외에 마을활동을 시행함.
-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의 사례 중 하나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마을기업의 생산 및 판매가 제한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그림 7〉 다남동 마을회 마을기업 관련사진



[다남동 마을회 마을기업]



[다남동 마을회 마을기업 작업장 내부]

## 8. 우각로 문화마을

- 우각로 문화마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의동 109번지에 지역주민, 문화예술인, 행정이 함께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는 곳임.
  - 1970~1980년대 생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109번지에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갖게 된 이 지역만의 독특한 모습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것임.
-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로 인해 공가 비율이 증가해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노숙자·주취자·비행청소년 등 치안 관련 문제, 공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음.
  - 2011년 10월부터 예술가들이 사단법인 ‘우각로 문화마을’을 설립해 공가 주인들과 재개발 공사 진행 시점까지 한시적 무상임대 계약을 통해 버려진 공가를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함.
  - 2013년 7월까지 우각로 문화마을 사업에 중추가 될 본부 및 개별 예술가 작업장 조성을 1차로 완성하고 8월부터 4,000권 규모의 마을 작은 도서관, 마을 사랑방, 마을 문화교실을 열었으며 회원들의 기부를 통해 850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추가 모집하고 있음.
  - 8월 2일부터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한 마을 이미지 변신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벽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8월9일 현재 송의동 103-1 주민 집 담벼락과 우각로 마을 도서관 및 본부에 시범적으로 벽화를 조성 함.

-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전도관<sup>29)</sup>으로 그곳에서 주민들을 위한 한글교실, 주민합창단, 실버문화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총 30여명으로, 그중 입주를 하거나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은 19명임.

〈그림 8〉 우각로 문화마을 관련사진



[행복창작소]

[봉로방과 행복도서관]

[도예공방(자기 嗣)]

## 9. 마을@사람

### » 푸른샘어린이도서관 설립

-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던 기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의식과 가좌2동 동장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일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주민자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설치를 기획하고 경기도 일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였으며, 예산지원을 위해 문화관광부 ‘작은도서관살리기’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어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함.
  - 2004년 7월에는 도서관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1월에는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어린이 도서관 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함.
  - 이후 도서관 공사가 착수되고, 공모를 통해 ‘푸른샘어린이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을 확정짓고 2005년 3월 도서관을 개관함.
- 초기에는 문화관광부 ‘작은도서관살리기’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1,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현재는 2006년부터 구청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지원받고,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상근자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 또한 ‘월2천원 후원회’를 통해 연간 60만원정도 후원비를 모금하고 있으며, 연회비를 가족당 1만원으로 책정하고 연간 약 300만원의 수입으로 마을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도서관 건립에는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가 활용되었는데, 주민센터에서 기존 예비군동대 본부로 이용되던 곳을 도서관 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sup>30)</sup>, 지역업체에서 도서관 인테리어와 시설에 대해 후원하였음.

29) 남구 도원역 주변에 있는 빈 건물로 1884년 인천에 온 선교사(닥터알렌)가 쇠뿔고개에 여름별장으로 사용하였고 1956년 에 철거된 뒤 전도관 건물이 세워짐.

30) 기존의 예비군동대본부는 주민센터 4층에 구예산 4,300만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마련하였음

〈그림9〉 푸른샘어린이도서관



### »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

-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도서관과 프로그램에 비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함.
- 가좌동 내 초·중·고등학교가 11개교가 있는데 비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땅히 없었으며, 청소년기에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기 가치관과 철학을 싹 틔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음.
- 6개 중학교(가좌여중, 가좌중, 제물포중, 동인천여중, 가정여중, 석남중)와 연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79명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함.
  - 그 결과를 토대로 동네주민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공간을 만들기 위한 개인후원회가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했던 학생들 중 94명이 청소년인문학도서관의 운영위원이 되겠다고 답했으며, 그중 50여명이 도서관건축학교에 참여하여 전문가의 도움으로 도서관내부의 공간디자인워크숍을 진행하였음.
- 이후 청소년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도서관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금마련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등 합의과정을 경험하게 됨.
- 도서관 건립을 위한 개인후원자가 2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동네의 자영업체, 지역기업, 은행, 노동조합 등이 도움을 줌.
- 현재 후원자 200여명, 1주일에 3시간씩 도서관을 관리하는 자원봉사 15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투입되지 않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 중임.

〈그림 10〉 느루



» 마을기업 「사람사이」

- 지역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자원 활동량이 부족해짐.
-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설립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됨.
- 초창기 일공동체로 반찬가게인 '느루네부엌'으로 추진하였으나 준비부족으로 실패함.
- 청소년인문학도서관 준비와 마을기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두 사업간 연계에 대해 모색하게 됨.
- 마을기업에서는 중고등학교와 연계한 '진로스쿨'과 공정무역커피와 수제쿠키 등을 판매하는 북카페 '사람사이'를 운영함.
- 낮에는 성인 4명, 방과 후 저녁시간에는 청소년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마을 기업의 수익창출은 도서관 운영비용과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과 복지기금으로 사용

〈그림 11〉 마을기업 북카페 '사람사이'



10. 청천 · 산곡동 마을공동체

»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 1997년 IMF 이후 동네가 침체되자, 마을청년단체의 구성원 한분의 제의와 회사로 경로잔치를 개최하게 된 후, 마을단오제 '동네야 놀자'라는 이름으로 2001년부터 매년 마을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음.
  - 동네 공부방 학생들이 풍물놀이를 맡는 등 마을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조로 축제를 진행
  - 마을의 7개 단체들이 3월말부터 10회 이상 마을축제를 위한 회의를 진행함.
- 점차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행사비 마련을 위한 모금액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자모회와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마을의 노인 분들을 지원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07년 7월부터는 이주여성교실을 통해 이주여성과 이주민도 참가하여 공동체 구성원이 확대되었으며, 2008년 11월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승인되었고, 이후 동네장학회를 발족하는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12〉 마을 단오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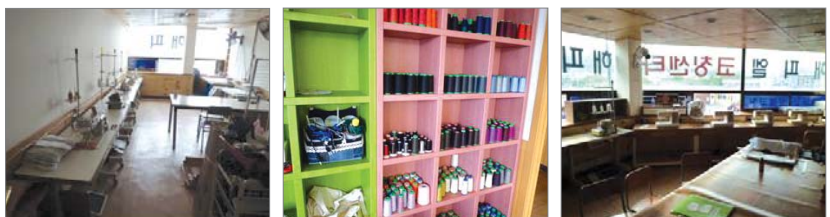
〈출처 :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인터넷 카페〉

-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축제를 비롯하여, 성인문해교실(어머니한글 학교,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실), 홀몸어르신 지원사업, 청소년을 위한 동네 장학회, 청소년 문화자치기구인 '꿈 터', 나눔매장, 리폼교실, 아이들에게 놀이문화를 알려주는 노리놀이단, 노인들의 자조모임인 노인참여나눔터 등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함.

#### » 마을기업 「리폼맘스」

- 동네주민들을 대상으로 버려지는 의류를 활용하는 리폼교실을 운영하여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시를 개최하였음.
- 수리수리 리폼교실 활동을 통해 제작된 의류를 이용하여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재활용패션쇼에 출전하기도 함.
- 나눔매장과 리폼교실 운영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 의류를 이용하여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2012년 마을기업 '리폼맘스'를 창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그림 13〉 리폼맘스 내부 모습



## 11. 인천평화의료생협

### » 의료생협

- 인천평화의료생협의 시초는 1989년 기독교청년의료인회 40여명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평화의원이었으며, 1996년부터 낙후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산업재해 상담실을 개설하였고, 일본의 협동조합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평화의료생협을 설립하였음.
- 평화의원을 주민출자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1999년 평화한의원을 개원, 2000년에 임의단체이던 의료생협을 비영리법인으로 재창립함.
  - 주민 80명 동의로 무상증여 방식으로 인수
  - 부채에 대해서는 장기차입방식 적용

- 2002년 가정간호사업소 개소, 2008년 7월 사회적기업 등록 및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간호센터 개설, 2010년 12월 평화치과를 개원하는 등 의료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연매출 20억, 인천 부평, 부천 및 기타지역 조합원 3200세대로 구성된 성공적인 의료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임.

<그림 14> 인천평화의료생협



#### » 「인천평화 LETS」 마을기업 설립

- 2006년 장기발전계획의 하나로 자치적이고 협동적인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녹색가게 운영이나 지역화폐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음.
- 2011년 2월 인천시와 부평구청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나와 이웃을 살리는 작은 기업 · 인천평화 LETS'로 지원을 받아 '평화나눔가게'를 개업하고 본격적인 지역화폐 활동을 개시하였음.
  - LETS는 지역교환(고용) 거래체계(Local Exchange(Employment) & Trading system)의 약자
  - 지역화폐 '평화'를 이용하여 회원 간 물품거래와 자원봉사시 회원의 계정에 지역화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체계

<표 2> 인천평화레츠 운영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위는 '평화'로 한다.</li> <li>2. 1평화는 1원과 같이 사용한다.</li> <li>3. 거래 시 회원의 동의를 필요하다.</li> <li>4. 거래의 모든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원칙)</li> <li>5. 물건의 가치는 공급자(파는사람)가 값을 정한다.</li> <li>6. 거래 보고는 공급자(파는사람)가 한다.</li> <li>7. 거래 내역은 각 회원의 계정에 (+) 또는 (-)로 기록 된다.</li> <li>8. (+) 또는 (-) 계정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li> <li>9. 거래 내역은 전체 회원에게 공개 된다.</li> <li>10. 거래가 끝난 후 거래가 성립 안 된 물건은 공급자가 가져간다.</li> <li>11. 자원 봉사는 1시간당 2,000평화로 한다.</li> <li>12. 거래 시 (- 상한선)은 50,000평화로 한다. (거래중지)</li> <li>13. 수수료는 거래 가의 10%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도 수수료는 같다.</li> <li>14.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역화폐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 시 지역 화폐위원회에서 거래 중지나 회원 탈퇴를 강제할 수 있다.</li> </ol>
---

<출처 : 인천평화레츠 웹사이트(<http://www.icplets.or.kr>)>

## 12. 청학동 「마을과 이웃」

- 1991년부터 시작된 청학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중한 청산금 문제에 대해 '청학동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합법적인 항의운동을 전개하여, 잉여금을 확보를 통해 과다한 청산금을 우선 탕감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음.
-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체비지와 청산비용 일부를 제공받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인 '나눔의 집'을 2001년 1월 13일 건립하였음.
- 2011년 2월 28일 '청학동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마을과 이웃'으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였음.

### » 청학동마을공동체학교

- 2003년 '청학동마을공동체학교'로 정식 개교하였으며, 2004년 6월 연구구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방과 후 교실'로 지정받아 나눔의 교실 3개 층을 개보수 하였음.
- 2004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40여명을 대상으로 기본 교과목을 비롯하여 한자교육, 사물놀이, 하모니카, 미술심리치료, 독서치료, 풍선아트, 점핑클레이, 탈춤, 월1회 체험학습, 동·하계수련회 학습발표회와 함께 인성교육, 예절교육,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상근보육교사, 조리사, 20여명의 자원활동가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으며, 3년 이상 활동한 자원 활동 교사 중에서 교장을 위촉하고 있음.
- 아동모두에게 교육비와 식비(유기농 및 우리 농산물 사용),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오전과 저녁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활동 장소로 활용하고 있음
  - 종이인형 만들기, 독시지도, 시창작교실,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정기적인 주민학습발표회 개최

〈그림 15〉 청학동마을공동체학교



### » 느티나무 마을축제

- 매년 10월경 마을의 수령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와 향나무를 중심으로 마을축제 '느티나무와 함께 하는 마을이야기'를 개최하고 있음.
- 주민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다양한 민속놀이, 마을을 주제로 한 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음.
  - 2009년 제1회 행사에서는 느티나무 수령 527주년을 기념하여 느티나무 생일잔치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느티나무를 상상하고 표현하는 행사 진행
  - 2010년 제2회 행사에서는 결혼 50주년을 맞은 분들의 금혼식을 개최

- 2011년 제3회 행사에서는 실제 젊은 커플들의 전통혼례 개최

- 마을잔치를 위한 비용은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 주변 상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되고 있음.

〈그림 16〉 청학동 소재 수령 500년 이상인 느티나무



〈그림 17〉 느티나무 마을축제



〈출처 : 청학동마을공동체 인터넷 카페〉

### 13. 장수동 새동네

- ‘장수골’은 인천대공원 인근 40여 가구의 작은 마을이었으나 개발로 인해 기존의 집들이 헐리고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서 공터에 건설 폐자재와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고 마을은 우범지대처럼 변화되기 시작함.
- 이에 2008년 6월부터 마을주민 1인의 주도로 마을주민들의 뜻을 모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위한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함.
- 마을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마을 주위를 정돈하고 마을 미관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공터나 담장 밑에 화단을 조성, 동사무소에서 화초 지원
  - 각 집에 맞는 간판을 제작 및 설치
  - 담장 벽화를 통한 마을 미관 증진
- 마을축제, 동네문화예술교육, 연극공연 등의 주민공동체 활동을 전개함.
- 현재 다세대 주택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단독주택들의 정원들이 다수 없어진 상황이며, 장수동 새동네 프로젝트 추진단장 또한 이주하여 현재 마을가꾸기 활동 동력이 침체된 상황임.

〈그림 18〉 장수동 새동네



## 14. 만월산 사람들

- 저소득 지역인 만수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음.
- 지역 내 주민운동 경험이 있는 단체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이에 동의하는 단체들과 지역공동체운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었음.
- 2011년 4월 인천의제21에서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되었으며, 2011년 5월 지역사회나눔가게 사업을 시작으로 연극교육, 기자학교, 주민워크샵, 동네신문 창간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전개 중에 있음.

〈표 3〉 만월산 마을사람들 활동내용

사업명	내용	일정	비고
지역의 자영업자의 나눔사업 “행복나눔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업소 가맹점 10개소 모집</li> <li>● 자영업자 간담회 실시 (지역공동체 운동의 필요성, 나눔사업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li> <li>● 나눔쿠폰 발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도움 제공</li> </ul>	1~12월	
주민이 만드는 만월산 동네기자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 운동 필요성 및 마을기자 활동 실무 교육</li> <li>● 마을신문 사례연구(간담회)</li> <li>● 마을신문발행 1회 1,000부</li> <li>● 마을신문을 활용해 지역화폐홍보</li> <li>● 마을만들기 사례견학 (서울 은평구 은평마을)</li> <li>● 마을워크샵</li> </ul>	6~12월	부평신문 연계 교육
건강한 경제교육과 재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교육 7회</li> <li>● 재무상담 3회</li> </ul>	5~12월	
주부연극단 ‘골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li> <li>● 마을공동체 학습 및 연극수업</li> <li>● 마을주부들의 첫 공연 ‘가족같이, 가족같이’</li> </ul>	6~12월	

〈출처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마을만들기추진본부(2011), 2011년 마을, 마을을 만나다〉

〈그림 19〉 마중물도서관(좌)과 만월산사람들 활동 모습(우)



## 15.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 2003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민 12~13명이 매주 어린이독서모임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친목모임의 공동체임.
- 2004년 7월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의 모임을 결성하고 마을배움터, 소모임, 녹색마당 등의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음.
  - 마을배움터: 농부학교, 어린이독서교실, 어린이생태교실, 아침저녁독서모임, 식품안전교실, 놀이과학, 기타교실, 미술교육 등
  - 소모임: 청소년 공부모임, 역사와 삶, 몸 튼튼 마음 튼튼, 대동을 사랑하는 모임, 영어동화를 읽는 어른, 자연을 그리는 어른
  - 녹색마당: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장미축제에 참가하여 재활용을 통한 생활용품 제작, 천연염색방법 등을 소개
- 현재 1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1회의 총회, 월례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3월 지역화폐(화폐단위: 토리)를 도입하였으며,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화폐 활용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 인터넷 카페의 일일거래장을 개설하여 회원들 간 중고물품들을 지역화폐인 '토리'로 거래함
- 주민들이 가진 재능목록을 작성하고 품앗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능을 마을에 기부하고 있음.
  - 품앗이는 별도 화폐단위인 '냥'을 사용하며, 모든 노동력을 동등하게 평가하여 품앗이 제공시간당 1만냥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

〈그림 20〉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활동모습 녹색마당(좌), 농부체험(우)



〈출처 :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인터넷 카페〉

## 16. 콩세알 도서관

- 2007년 3월 14일 푸른생활협동조합(푸른두레생활)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도서관으로 지역 안에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음.
- 조상들이 콩을 심을 때 한 알은 땅속의 생명을 위해, 한 알은 하늘을 나는 생명을 위해, 마지막 한 알은 가족과 이웃의 양식을 위해 세알을 심었다는 것을 본받기 위해 도서관 명칭을 '콩세알 도서관'으로 정함.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진행 중임.

- 고전수다(古典秀多): 저녁 인문학 모임
- 점심(點心): 고전읽기 주간반
- 줄탁: 어른 인문학
- 청소년 인문학 교실
-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실
- 푸른생협의 지원금을 비록하여 기부금, 바자회 수입, 공모사업 지원비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은 인천문화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의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음
  - 도서관 장서는 남동구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학나눔'에서 도서 지원
- 콩알품앗이를 통해 공세알도서관 이용자와 주변 마을주민들이 가진 재능과 시간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활동을 진행 중이며, 품앗이는 지역화체인 '콩알'을 통해 거래됨.

〈그림 21〉 공세알 도서관 내부 모습



## 17. 민들레 공부방

- 1987년 동일방직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아이돌봄후원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시작한 공동체 활동임.
- 별도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며, 설립 당시의 후원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현재의 위치에 정착하기까지 세 번의 이사를 했으며, 후원회에서 아파트 한 호를 매입하여 공부방으로 사용 중임.
- 공부방 출신 어린이가 성장하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인천의 대표적인 공부방임.
- 어린이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 등의 장류와 유기농재료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편부가정의 아버지들의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어른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 중임.

<그림 22>민들레공부방 관련사진



## 18. 햇님 공부방

- 인천시 십정동은 과거 염전 시험지가 있던 곳으로,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철거민과 공장지역 노동자들이 모여살기 시작한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임.
- 당시 공장 여성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인 주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로 놀이방과 공부방이 개설되었음.
- 이후 공부방을 중심으로 초기 여성문제에서 보육문제, 생활문제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음.
- 2007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노후한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가가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 주민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벽화, 마을잔치(열우물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햇님공부방은 현재 공부방을 넘어 십정동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주민사업센터로 확대되었음.
-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 주민의 80% 이상이 재개발에 찬성하고 있음.

<그림 23> 햇님공부방



<그림 24> 십정동 마을전경



## 19.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 '인천참여자치연대'와 '주민자치를여는인천희망21'이라는 두 단체가 시민 중심의 장기적인 시민운동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2007년 6월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로 재창립하게 됨.
- 단체 통합 후 서구 가좌동으로 이전하여 2007년에서 2008년에는 지역주민설문조사, 교육을 통한 지역 동아리 만들기, 마을사람 만나고 지역활동하기 등의 풀뿌리운동 다가가기를 위한 활동들을 시작하였음.
- 2009년에는 교육을 통한 동아리 만들기를 주제로 마을사업을 추진하였음.
  - 청소년 마을학교, 호봉산생태안내자모임, 좋은부모모임, 가좌동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마을자원봉사 교육, 나눔 초록장터, 반찬나눔
- 2010년 이후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좌동 활동을 통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풀뿌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좌동 초록장터, 가좌마을청소년배움터, 호봉산생태안내자모임, 청소년인문학모임(F.B.I), 미디어 사람풍경, 풀뿌리활동가 교육
- 100%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약 4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비의 경우 인천문화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의 지원금과 동네업체에서 분담금 성격의 회비를 통해 충당하고 있음

〈그림 25〉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사무국



## 20.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소하였으며, 2001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하여 전국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되었음.
- 2004년에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특별상을 받았고, 매년 연수구내 평가에서도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 있음
-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이하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무분과는 지역문제 및 위원회 재정, 시설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문화여가분과는 문화예술, 취미, 체육,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특히 중요한 사업은 공부방 운영 및 술안말 축제와 연수 빛깔 축제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 솔안말 축제와 벚꽃 축제

-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직후인 2000년부터 주민자치센터 민간실무팀을 구성하여 “솔안말 축제”라는 명칭으로 거의 매년 동네 축제를 해오고 있음.
- 솔안말축제는 10월 정도에 솔안 공원에서 개최되며 솔안말 축제가 개최되는 솔안 공원의 경우,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기 쉽고 주민자치센터의 활동과 연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 2010년의 경우에는 주민장기자랑과 케이크만들기 체험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였으며, 미술공연, 사물놀이 공연, 각종 체험마당 등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졌음.
  - 2011년부터는 연수구가 몇 개의 동이 함께하는 축제 정책으로 인하여 연합축제를 지향함. 이에 따라 연수2동과 청학동이 연합하여 연수 벚꽃 축제를 개최.
  - 이 때는 축제의 중첩성으로 솔안말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연수벚꽃 축제는 옆 동네인 청학동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축제임.
- 연수 벚꽃 축제는 주로 청학동 용담공원 앞 도로를 활용하며 이 때, 차량을 통제하고 미니주민자치박람회와 같은 여러 가지 체험마당과 먹거리마당, 자매결연도시 농산물 판매, 노래자랑과 같은 참여마당 등이 개최됨. 벚룩시장도 개최되는데, 벚룩시장은 날씨의 요인이 많이 작용함.

〈그림 26〉 연수벚꽃축제 리플렛



- 축제기간 동안에는 도로에서 공연마당과 노래자랑, 먹거리 마당 등이 펼쳐지고, 다양한 전시, 체험마당과 벚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이러한 마을 축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부족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함.
  - 연수 벚꽃 축제에서는 연수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전통주 시음회와 같은 행사도 함께 개최하고, 버블 체험이나 벚꽃사진 스튜디오 등 축제의 의미와 다른 축제와 차별화한 행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내는데 분과 운영위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함.
  -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된 벚룩시장에서 판매한 수익금 중 일부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받기도 하며, 불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축제와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1.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 부평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은 부평시장 상인들이 주도하여 쇠퇴하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상인들이 생활공간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 사업임.
  - 1997년 문화의 거리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분수대를 건립하고, 1999년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협의회를 통하여 행정과 노점상과 지속적 협의를 하고, 2000년부터는 도시연대의 협조 하에 축제를 개최하였음.
  - 2003년에는 부평 8개 상가단체와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부터는 사단법인 나눔과 공동으로 나눔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음. 2007년에는 한평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시연대와 협력함.
- 50여명의 건물주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던 상인회는 현재 105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재 문화의 거리 발전 추진위원회는 임기 1년(연임 가능)의 회장 아래 부회장 3인, 사무국장 1인, 고문 약간명(전임회장은 당연직),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거리 상인의 92.7%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회원들은 매달 8천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회비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음.
- 2008년은 도시연대와 함께 “주민과 함께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를 국토해양부에 공모하여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2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됨.

〈그림 27〉 홈페이지에 게시된 활동사진



### 부록3. 응답단체 리스트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1	개항정문화지구 주민협의회	최근식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정체성 강화를 위한 주민대학</li> <li>•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li> <li>•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트프리마켓</li> <li>• 소식지 등 출판 홍보사업</li> </ul>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2가 8-12	761-1186
2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	조민호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보호사업/지역조직사업/ 사례관리사업</li> </ul>	인천광역시중구 내동 3-5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	766-0981
3	중구 자원봉사센터	임인순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복지사업</li> <li>• 지역통화사업</li> </ul>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34-1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777-1365
4	중구 신포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상구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복지사업</li> </ul>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2042 신포동 주민센터	760-7901
5	오스25_꾸물꾸물 문화학교	윤종필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및 문화행사 기획사업 및 문화예술연대 사업</li> <li>• 지역 및 생활 기반 공공예술사업</li> <li>• 문화예술교육사업 및 다문화콘텐츠 개발 사업</li> <li>• 전시 및 예술창작 지원 사업</li> <li>• 학술 및 예술이론 연구 및 비평사업</li> <li>• 국제교류 및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li> <li>• 지역 문화예술 정책연구사업</li> <li>• 문화예술 관련 미디어 제작, 디자인 및 출판사업</li> </ul>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58 2층	765-5250
6	떼아트르 다락	백재리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공연 떼아트르다락 대관사업(공연장, 전시실)</li> </ul>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1 3층	777-1959
7	파란광선	길다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그룹 전시, 소규모 공연, 카페운영, 드로잉 클럽, 발레스트레칭 등 문화예술 사업 및 취미활동 기획 및 운영 등.</li> <li>• 그 외 참여 가능한 문화기획 구상 중</li> </ul>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76 카페 파란광선	772-9417
8	플레이캠퍼스	장한삼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공연</li> <li>• 지역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li> <li>• 인문학 교육사업</li> </ul>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187-9	010-5788-0690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9	(주)홍예문 컴퍼니	윤혜경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교류재단 일본 재즈팀 초청공연 기획/주관</li> <li>• 아리랑프리마켓/버스킹공연</li> <li>• 무지개다리지원사업“팟케스트 사업진행”</li> <li>• 런치공연“한낮의블루스”외다수등</li> </ul>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3-22 꿈꾸는 은하수 3층	772-8211
10	카페'낙타사막'	김흥희	201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보기, 출판기념회, 차마시기, 전시, 공연, 영화시사회, 동호회 모임, 시낭송회 등</li> </ul>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1-16	765-9516
11	청년플러스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제작, 소셜다이닝, 공연, 축제, 디자인 스터디 등</li> </ul>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206-1 청년플러스	010-9851-0229
12	동구 교육희망 네트워크	윤희용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에 내가 원하는 예산 요구하기(참여예산)</li> <li>• 동구교육환경 개선</li> <li>• 새로운학교 만들기</li> <li>• 학부모 교육</li> </ul>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44번길 18	010-4508-9726
13	살아있는 도서관 상상	김혜영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사업</li> </ul>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2동 54-27 1층	777-1016
14	아이들이 행복한 동구만들기 네트워크	김중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5월 5일 동구 어린이날 행사 개최</li> <li>•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참여</li> <li>• 크리스마스 몰래 나눔 산타 진행</li> <li>•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교육을 위한 연구사업 및 캠페인 진행</li> </ul>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2동 55-22	010-4508-9729
15	(사)여성인권 동감	최미라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 가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및 상담소 운영</li> <li>• 한부모 가족 자립·자활을 위한 보호·보육 시설 등 운영</li> <li>• 미혼모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 증진 사업</li> <li>•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연구사업</li> <li>•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li> </ul>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56-199 202호	221-0081
16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김영구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li> <li>• 성평등 강사단 양성 및 운영</li> <li>• 학부모 참여, 청소년 참여예산제 진행</li> </ul>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8-19 솔마루사랑방	765-3080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17	지역복지센터 우리동네	조병옥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층별 나눔 및 돌봄생사, 자원 봉사를 통한 나눔 사업</li> <li>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생태농업 확산 사업 등</li> </ul>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51-38 2층	070-4210-7209
18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부설 골목도서관	손보경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강좌'책읽는 엄마'</li> <li>전래놀이'골목놀이 할 사람 여기여기 불러라~'</li> <li>마을만들기사업 시장책수레"송현시장이 북적북적"</li> <li>마을만들기사업 시장체험프로그램'시장골목탐험대'등</li> </ul>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44번길 18	010-6282-9198
19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문덕수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 의정 감시 운동</li> <li>평화통일캠페인, 기행 및 평화도시 인천만들기 운동</li> <li>각종 지역 현안 대응</li> <li>다양한 지역 공동체 운동 등</li> </ul>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51-38 2층	766-3092
20	꽃동네 공방	송광식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공교실 운영</li> <li>성인반 취미강좌 운영 및 목공 동호회 운영</li> <li>다양한 지역 네트워크 사업</li> <li>동네 자원봉사 활동 병행(밀반찬 배달, 흑서기 무료검진 등)</li> </ul>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93-17	010-9710-6555
21	인천동구선배 시민모임올타리	김일량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구 노인참여예산제 지원</li> <li>동구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li> </ul>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5 솔빛마을 주공2차 아파트 201동 1304호	010-8744-3992
22	금창동 배다리 마을사진관 < 다행多行+幸_하다> 창작공방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환경보호, 재활용, 마을신문만들기, 마을사진찍기 등</li> </ul>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5-7	010-7389-0857
23	스페이스 빔	민운기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움'을 실천하기위한 다양한 만남과 논의, 체험의 장 마련</li> <li>문화사회의 문화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li> <li>다양한 형태의 대안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li> </ul>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7 스페이스 빔	422-8630
24	초록 마을만들기	임희동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렁이 상자 텃밭상자 분양</li> <li>아이와 환경교육</li> <li>아빠와 친환경 목공교실</li> <li>초록장터 개최 등</li> </ul>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22 만석비치타운 A 108동 1703호	010-3316-9284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25	골목문화 지킴이	이성진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민 65명 골목문화해설사 양성교육</li> <li>• 도심에서 걸어보는 옛 길(경인가도) 코스개발 및 리플렛 제작</li> <li>• 골목문화해설사 활동 및 운영</li> <li>• 전국 근대문화유산 비교답사 5회진행</li> <li>• 인천역사특강 6회 진행</li> </ul>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8-19 송현시장내 솔마루 사랑방 2층	070-0770-2384
26	생명나눔 문화사랑방	류지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의 실내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낡은 가구수리, 리폼 및 가구제작</li> <li>•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실내조경 관리 및 텃밭 가꾸기</li> <li>• 취약계층 도예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li> </ul>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13 화도진 그린빌 주공아파트 102동 1901호	777-0984
27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권은숙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비날다헌책방 운영</li> <li>• 창작예술&amp;퇴살림 벼룩시장 운영</li> <li>• 유기농 작은가게 운영</li> <li>• 손님맞이 게스트 하우스 운영 등</li> </ul>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11-9	011-9007-3427
28	화수부두 부녀회	이인옥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환경개선 사업</li> </ul>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256	010-7330-08369
29	남구 지역아동센터	문영미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교실</li> <li>• 아동급식</li> <li>• 야간보호 프로그램</li> <li>• 체계적인 안전교육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등</li> </ul>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75-180 2층	441-9708
30	인천연대 남지부	남승균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양주학교, 작은공원 영화제, 동네탐방</li> </ul>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72-9	873-5515
31	인천 여성회 남구지회	이민아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모임 정기적 강좌</li> <li>• 성교육</li> </ul>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59-92	881-3080
32	담쟁이 숲 아카데미	이진오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무료임대</li> <li>• 지역주민과 청년들에게 세계관, 독서, 영화, 글쓰기, 에니어그램 등 다양한 강좌 개설</li> </ul>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1동 196-17 정명빌딩 지하	070-2845-1391
33	남구 용남시장 상인회	최광철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용 게시판 설치</li> </ul>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1-34	010-3781-9442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34	다함께 만드는 마을 옹두레	김서규	20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옹현 3동 공가 현황과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주민설명회</li> <li>• 마을학교 운영</li> <li>• 독정마을 나눔 한마당 개최</li> </ul>	인천광역시 남구 옹현동 172-21	875-7495
35	청학동 마을공동체 마을과 이웃	윤종만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지역문화예술활동, 보육돌봄</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38-11	833-0001
36	평화로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김현숙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을 홍보하는 사업과 지역의 의정감시 활동 그리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 진행</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620-14 202호	010-8956-5966
37	짱뚱이 도서관	문은현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문화 활동</li> <li>• 마을 역사 해설사 양성</li> <li>•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52-4 2층	814-0377
38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늘푸른교실	이현주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활동 : 지역주민사랑방강좌, 지역네트워크 어린이날 행사 진행, 청소년 야간 학습 지원</li> <li>• 정기공연 : 연1회 지역주민 초청공연</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52-4 2층	834-1172
39	인천여성회 연수구지회	안미숙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제공동체</li> <li>• 주민교육사업</li> <li>• 회원교육사업</li> <li>• 지역네트워크 등</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76-1	010-2318-6725
40	복지공동체 푸른마을	권병기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li> <li>• 노인복지 지원사업</li> <li>• 다문화가정 복지 지원사업</li> <li>• 새터민 복지 지원사업</li> <li>• 복지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사업</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1동 494-64층	822-1082
41	늘푸른 어린이도서관	이은주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사업</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626-113층	818-0645
42	뚝딱이 마을공방	김홍섭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제작교실, 가족목공행사 진행</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53-8 지하1층	
43	(사) 좋은친구들	류재성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들의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사업</li> <li>•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li> <li>•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연구 및 조사, 교류 사업</li> <li>• 기타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2 롯데시네마 802호	813-3705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44	가고싶은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문은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6회 토요일을 이용한 영유아, 아동 별난놀이터 행사진행</li> <li>연수구 전체 어린이공원 실태조사</li> <li>연수구 공원녹지와 연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간담회 등</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52-4	011-9639-5060
45	선학종합사회복지관	김민숙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문학대학, 마을신문, 벽화, 산악회 등</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47 월드비전 선학종합사회복지관	813-6453
46	새말공동체	이형남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꽃길조성</li> <li>태극기달기 등</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 1동 561-5	010-2318-8038
47	마을기업 서로살림 언니네 반찬	이미경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찬제조 및 판매</li> <li>녹색대학운영/식생활 의식개선 교육, 전통음식 체험</li> <li>후속 소모임 운영</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76-1 1층	822-1874
48	아동청소년을 고민하는 어른들의 모임-동네한바퀴	하인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플뿌리단체(네트워크)</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8 건영아파트 502호	010-6414-5419
49	청소년 창의 문화터 미루	이혜정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독서문화활동</li> <li>청소년 인문학 강좌</li> <li>청소년 동아리 지원</li> <li>청소년 봉사활동</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626-11 3층	070-4220-1320
50	함박마을공동체	한철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사업</li> <li>지역안전</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1동 481-3 4층	010-3218-1064
51	건강행복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압화</li> </ul>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 1동 938 건영아파트 관리사무소	010-6226-1949
52	(사)나눔과 함께	이창호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을 위한 후원, 교육, 문화, 생활, 요양 등의 복지서비스</li> <li>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li> <li>사회복지 정책연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사업 등의 활동</li> <li>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사업</li> <li>그밖에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li> </ul>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4동 220-2 문화비람빌딩 2층	433-6150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53	누리장애인 지립생활센터	문중권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권익옹호</li> <li>• 장애인자립생활지원</li> <li>• 동료상담사업</li> <li>• 교육사업(역량강화)</li> </ul>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26거산빌딩 306호	070-7878- 5130
54	인천시민문화 예술센터	임승관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예술정책 생산과 비판</li> <li>• 마을현안/활성화 사업</li> </ul>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0-2 문화비람빌딩 3층	442-8017
55	인천여성회 남동구지회	구순례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교육, 문화사업</li> <li>• 남동구 지역공동체와 마을만들기를 위한 제반사업</li> <li>• 성평등 실현과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li> <li>• 여성과 환경, 건강에 관한 교육, 실천사업</li> <li>•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li> <li>• 풀뿌리 지역 여성운동 사업 등</li> </ul>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 동 1080 3동 201호	466-4865
56	인천도시 농업네트워크	김충기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농부학교</li> <li>• 생태텃밭교실</li> <li>•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li> <li>• 공동체텃밭 설계 및 운영</li> <li>• 옥상텃밭설치 및 운영</li> </ul>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 동 527-3 2층	201-4549
57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연합놀이터	김민수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활동</li> <li>• 동아리지원</li> <li>•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li> </ul>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0-2 문화비람빌딩 3층	442-8017
58	예꿈마을 지역아동센터	윤귀염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li> <li>• 아동의 인권신장 및 복지사업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li> <li>• 각종 교육사업</li> <li>• 센터 운영을 위한 출자자와 후원회 모집 등</li> </ul>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86-1 이삭상가 2층	469-0644
59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협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만들기 기획 강좌 진행</li> <li>•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례연구</li> <li>•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및 지원</li> <li>• 기타 어린이날 행사 개최 등</li> </ul>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 동 1080 3동 201호	070-4144- 4659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60	와글와글 작은도서관	심진숙	2014	• 도서관 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803동 201호	466-4865
61	구월1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미선	2000	• 도시텃밭사업 • 동네정비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 30번길 15 구월1동 주민센터	010-3643-3253
62	마중물도서관	안중은	2008	• 독서문화예술교육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850-3 마중물도서관	070-8873-0193
63	만월종합사회 복지관	김복기	2010	• 가족복지 • 지역사회보조 • 지역사회조직 • 사례관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관로 54번길 12 만월종합사회복지관	417-9070
64	달팽이미디어 도서관	최선미	2005	• 무료 도서 대출 서비스 • 도깨비 시장 무료 찾아가는 도서 대출서비스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책놀이 전문가 양성 교육 • 맞벌이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 달팽이 다문화세계여행 시끌벅적 토요일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55 펠리스빌딩 3층	526-5204
65	배움, 소통, 공동체 외골마을	김성수	2007	• 외골마을 어린이날 놀이행사 • 외골송년잔치, “외골에서 불어오는 희망이야기” • 찾아가는 산타 “외골마을에 산타오셨네”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55 펠리스빌딩 3층	519-9058
66	신나는 도서관	김미진	2003	• 방학교실 및 도서관에서 1박2일 • 북스타트 및 유아6주 책놀이 프로그램 •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91-3 미래타워 503호	521-3763
67	쓱덕쓱덕 작은도서관	류부영	2011	•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제공 • 책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후로 10번길 26 희망빌라	070-7515-3619
68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김미정	2008	• 아동과 여성도 안전한 마을만들기 • 마을만들기 주민워크숍 • 쫓대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사업 • 보라바람 캠페인	인천광역시 부평5동 201-433층	330-3080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69	좋은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	정정민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보육사업</li> <li>초등방과후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li> <li>부모교육</li> <li>지역내 주변환경개선 활동</li> <li>지역 어린이날 행사 운영 등</li> </ul>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취로 10번길 22 희망세상어린이집	521-4630
70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신선희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속의 풍덩</li> <li>주제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li> <li>복스타트</li> <li>학교도서관 활동가 양성과정 등</li> </ul>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 317-119	521-2040
71	삼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박재홍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교육사업</li> <li>환경생태 살리기 사업</li> <li>마을가꾸기 사업</li> <li>주민과 소통하는 사업</li> </ul>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37 삼산2동 주민센터	509-8645
72	인천YWCA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고성란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서비스제공</li> <li>주민여가프로그램</li> <li>봉사, 후원자발굴 및 양성</li> <li>일상생활지원 서비스</li> </ul>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57 삼산종합사회복지관	529-8607
73	삼산 풀뿌리 여성센터	김미정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센터</li> <li>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li> </ul>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54-2301호	070-8635-3080
74	청천2동 주민자치위원회	최신식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학금지원 사업</li> <li>불우 독거노인 돕기사업</li> <li>지역환경 개선</li> <li>불온 청소년 멘토, 멘티사업</li> <li>노인을 위한 무료 건강 강좌 운영</li> </ul>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178-44 청천2동 주민센터	509-8641
75	홀몸노인지원 사업단 나눔터	박만옥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2회 밀반찬 배달사업(약40가구)</li> <li>자원봉사자 교육사업</li> </ul>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32-392층	010-2322-6692
76	다남동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이병석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나무 표고버섯 재배</li> <li>전통장류 사업</li> <li>체험학습</li> </ul>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로 143번길 18	010-2771-6008
77	신나는 교실 지역아동센터	서덕원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계층 복지사업</li> </ul>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32-392층	543-0346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78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정정환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양구청 및 의회 행정 감시활동</li> <li>•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등 지역 연대 사업</li> <li>• 회원 공동체 활동</li> <li>• 평화통일 사업</li> </ul>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32-39 2층	544-0615
79	(주)푸르내 흐르내	방제식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간선수로 청소</li> <li>• 서부간선수로 주변 경관조성</li> <li>• 왕벚꽃나무길 조성</li> <li>• 서부간선수로 벽화그리기</li> <li>•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리더양성 교육</li> <li>•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li> </ul>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 78-15 희망빌딩	010-9965-3338
80	마을기업 (주)한우리 로컬푸드	구기홍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판매를 통한 로컬 푸드 홍보</li> <li>• 소비자 대상 꾸러미 판매</li> <li>• 단체 급식 납품 및 지역식당 납품</li> <li>• 가내, 중·소 식품 제조업체 납품 등</li> </ul>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빌딩D동 1008호	262-2848
81	계양구마을기업 행복동 사람들(주)	차민아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직영 문화센터 운영</li> <li>• 주민 생산물 판매</li> <li>• 주민 특강, 소모임 지원</li> </u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77-4 동양동 꿈샘터	556-5774 (010-9191-6789)
82	마을N사람	권순정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느루운영</li> <li>• 푸른샘도서관 운영</li> <li>• 마을기업 카페 「사람사이」 운영</li> <li>• 인천마을만들기네트워크 사업 등</li> </ul>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28-4 해창빌딩 302호	577-0107
83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유진수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가 있는 마을만들기</li> <li>• 가좌마을 청소년 배움터</li> <li>•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li> <li>• 재활용 나눔을 위한 초록장터</li> <li>• 인문학적 상상력이 넘치는 마을</li> <li>• 마을영상사업단 미디어 사람풍경</li> <li>• 회원 행사 및 동아리 활동 등</li> </ul>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212-14 오성빌딩 3층	507-2811
84	연희심곡검암 연심회상인 협동조합	신천용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광고/공동구매</li> <li>• 상호부조</li> <li>• 불우이웃돕기, 경로행사, 장학금지급 등</li> <li>• 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 등</li> </ul>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42-2	070-8943-8322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85	(사)청사모	고경란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과 배움으로 하나되는 복지사업</li> <li>• 사회봉사단 운영</li> <li>•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후원, 교육 활동</li> <li>• 동호회 지원 사업</li> <li>• 취미, 체험, 여가 활동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li> </ul>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9-8 우리프라자 705호	569-3545
86	인천여성회 서구지부(부) 풀뿌리 미디어도서관	석경아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거노인과 함께 나누는 '추석맞이 송편나눔'행사</li> <li>• 서구자원순환 나눔장터</li> <li>• 부모강좌</li> <li>• 여성역사 강좌</li> <li>• 영상제작 교육 등</li> </ul>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4-33층	010-5518-9003
87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 연대서지부	경영애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감시 및 행정감시</li> <li>• 평화통일 기행</li> <li>• 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li> <li>• 나눔장터 사업</li> <li>• 경인운하바로알기 캠페인 등</li> </ul>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4-33층	565-2748
88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부중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음악회, 도서관잔치</li> <li>• 푸른샘어린이도서관운영</li> <li>• 지역주민육구조사</li> <li>• 마을리더 양성교육사업 등</li> </ul>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30-105 가좌2동 주민센터	560-3316
89	키타라스	강철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활동지원, 환경보호 등</li> </ul>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163 호반베르디움 493동 1503호	010-2878-7053
90	푸른샘 어린이도서관	권순정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른샘도서관잔치</li> <li>• 푸른샘 자원활동가 양성학교</li> <li>• 마을이야기책 출판사업</li> <li>• 지역사회 학교 도서관자원봉사 지원사업 등</li> </ul>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105 가좌2동 주민센터	573-1662
91	연희동 나눔장터 네트워크	손범주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아나바다)사업</li> </ul>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4-33층	010-2272-9666
92	검단1동 마을공동체	김기봉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화사업</li> </ul>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02번길 15 검단1동 주민센터	010-5493-6000

연번	단체명	이름	활동 시작연도	주요사업	단체주소	연락처
93	다살림레츠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나들이, 농부학교, 녹색미당, 회원의 날, 마을학교</li> </ul>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3 대동아파트 상가 2층	565-2012
94	강화도시민연대	오교창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존 운동, 의정감시 활동</li> <li>• 청소년 환경의 가치를 배울수 있도록 지원</li> <li>• 강화나들길 지원사업</li> </ul>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492-1 남궁의원	933-6223
95	교동사랑회	임충식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정기 내고장 역사탐방회 개최</li> <li>•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기 내고장 문화제 가꾸기 행사</li> <li>• 교동홍보지 출판</li> </ul>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88	934-1400
96	이작1리 마을회	김유석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길정비, 여항정비, 정원조성</li> <li>• 자생식물군락지조성, 관광편의시설보수 등</li> </ul>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545-4 이작1리 마을회관	011-0392-3945
97	(주)으름실 마을공동체	오명철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li> <li>• 지역자원 활용 체험관광마을 가꾸기 사업</li> <li>• 특산물 가공공장 및 판매장 운영사업</li> <li>• 노약자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 돌보기 사업</li> <li>• 기타 지역의 발전과 주민소득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li> </ul>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북로 430	858-7383
98	북도면 신·시·모도 지역협의회	차광윤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도대교 설치 촉구 사업</li> <li>• 북도해상교통개선 사업</li> <li>• 관광활성화 사업</li> </ul>	인천광역시 옹진군북도면 신도리 523-48	010-5419-4229

## 연구진

---

연구책임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유홍민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원
	김미정	인천여성회 부평지부장
	김종호	동구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간사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박은희	(사)시민과대안 연구소 사무국장
	안미숙	인천여성회 연수구지회장
	이혜경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